

멕시코

정보수정일자: 2011. 04. 12

작성처: 멕시코시티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7
- 주요 산업 동향 /11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1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7
 - 대한수입규제동향 /32
 - 관세제도 /35
 - 주요인증제도 /37
 - 지적재산권 /43
 - 통관/운송 /5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56
- 외국기업 투자동향 /60
- 우리기업 투자동향 /64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6
- 진출형태별 절차 /70
- 투자입지여건 /7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83
- 조세제도 /8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99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101
- 물가정보 /105
- 바이어발굴 /106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08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12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14
- 이주정착 가이드 /117
- 출장가이드 /12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55
- 유관기관 웹사이트 /159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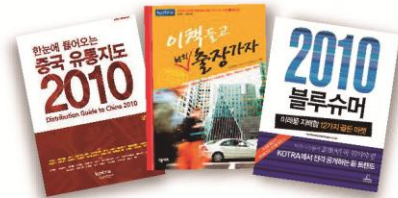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年
250만원/年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멕시코 / 메히꼬(MÉXICO)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임
위 치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326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면 적	1,964,375 km ² (세계 15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9배, 남한의 약20배 크기)
기 후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뉨.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는 온난 건조
수 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 D.F), 면적 1,547 km ² , 해발 2,308m
인 구	총 1억 1,234만 명
주요도시	GUADALAJARA(제2도시/ 4.3백만 명), MONTERREY(제3도시/ 3.8백만 명)
민족(인종)	혼혈(MESTIZO) 60%, 원주민(INDIJENA) 30%, 백인 9%, 기타 1%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가톨릭 83.9%, 신교 7.6%, 무신론자 4.6%, 기타 2.5%, 무응답 1.4%
건국(독립)일	1821년 9월 16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Felipe Calderón Hinojosa 대통령('06. 12. 1일 취임)
입법부	양원제(상원 128석, 하원 500석)
정 당	여당: 국민행동당(PAN) / 야당: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 정부성향: 친미 온건 우경

자료: 멕시코 통계청, IMF, EIU, CIA, 2011. 1

나. 경제 지표

GDP	US\$ 10,397억 달러('10)
실질경제성장률	5.5 %('10)
1인당GDP(명목)	US\$ 9,242('10)
실업률	5.4%('10)
물가상승률	4.4%('10)
화폐단위	페소(\$)/peso
환 율	US\$ 1 = \$ 11.91('11.4.1)
외 채	US\$ 2,085억 달러('11.04.1)
외환보유고	US\$ 1,219억 달러('11.04.1)
산업구조	1차 산업 3.66%, 2차 산업 33.50%, 3차 산업 62.84%
교역규모	수출 2,984억 달러, 수입 3,015억 달러, 무역적자 31억 달러('10)
교역품	○ 주종 수출품목: 자동차 및 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 ○ 주종 수입품목: 자동차 부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자료: KITA, 멕시코 중앙은행, IMF, EIU, 멕시코 통계청, 2011.3

다. 한-멕시코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66.4), 무역협정('66.12), 일반사증면제협정('79.4), 항공협정('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9.11), 이중과세방지협정('94.9), 범죄인 인도 협정('96.11), 외교관용 사증면제협정('97.6), 투자 보장협정('00)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억 3,300 만 달러 ('09년), 88 억 4,600 만 달러('10년) ○ 대 멕시코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억 7,200 만 달러 ('09년), 15 억 2,100 만 달러('10년) ○ 무역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억 6,100 만 달러 ('09년), 73 억 2,400 만 달러('10년)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주종 수출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등 ○ 대 멕시코 주종 수입품목: 아연광, 강반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 금속 광물 등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1~2010.12 통계(실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멕시코 진출 184 개사 753 건, 9 억 9,632 만 달러 - 대 한국 진출 10 건, 2 억 8,514 만 달러 ○ 2010. 1~2010. 12 통계(실·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멕시코 송금 108 건, 진출 17 개사, 6,400 만 달러 - 대 한국 진출 5 건, 36 만 달러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민 수 12,000 여명, 일반 체류자 400 명(유학생 포함) ○ 한인 후손 5,000 세대(1905년 멕시코 이주 한인 1,033 명의 후손, 멕시코 국적 소지)

자료: KITA, 수출입은행, 멕시코 경제부 2011.3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사회 일반 동향

2007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국민행동당(PAN) 소속의 칼데론 정권은 원유수출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 재정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 개혁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IETU(단일세율법인세), IDE(현금예금세) 등이 신설되고, ISR(소득세), IEPS(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올라 일정부분 세수 다변화 및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원유의 보유량 및 채굴량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새로운 원전을 개발하거나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PEMEX가 자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PEMEX에 대한 멕시코 연방정부의 세수 편중률은 1/4을 넘기 때문이다. 원유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유전 탐사 및 채굴이 시급하나 PEMEX 자체적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 부문 투자는 헌법 제 2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08년 중순, 우여곡절 끝에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심해저 탐사 등 제한된 부문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며, 근본적인 에너지부문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09년 4월 중순 발생한 신종 플루사태로 인해 야당의 인플루엔자 관련 정부의 은폐설 등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능력에 관한 공세가 펼쳐진 바 있고 7월 5일 전체 하원과 일부 상원의원을 뽑는 총선이 거행되었다. 야당 내에서도 민주혁명당(PRD)은 내부 결집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 반면, 제도혁명당(PRI)은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민주혁명당(PRD)에 대한 실망 속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11년 7월 3일에는 멕시코주의 주지사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멕시코주는 15,175,86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제일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12년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주의 주지사 선거가 내년 대선 결과를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12년 대선에서 제도혁명당(PRI)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혁명당(PRI)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민행동당(PAN)과 민주혁명당(PRD)의 연합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멕-미 관계

1) 외교 문제

‘11년 3월 카를로스 파스쿠알 주멕시코 미국대사는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사건으로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파스쿠알 전 대사는 외교 전문을 통해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이 저지르고 있는 조직범죄를 척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부패 역시 문제삼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물론 깔데론 대통령 역시 미국 방문시 파스쿠알 전 대사와 함께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개석상에서 불쾌한 어조를 드러내었다. 이번 위키리크스의 문서 공개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멕시코와 미국 양국 사이에 파장을 불러왔고 결국 파스쿠알 대사의 사퇴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현재 파스쿠알 전 대사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멕시코에 머물며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조직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멕-미 관계는 “Fast and Furious” 작전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동 작전은 미국의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에서 수행한 위장잠입 작전으로 멕시코의 마약조직 리더들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류를 불법으로 멕시코에 유통시켜 무기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09년 10월에서 ‘10년 9월까지 멕시코로 넘어간 1500~2500개의 무기류 중 797개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 동 작전은 사전에 멕시코 정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기에 동 작전이 알려지자 멕시코정부는 멕시코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2) 치안 문제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08년 8월 메리다 계획을 통해 미국은 3년간 13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10년 5월까지 1억 2,800만 달러만 지원하였다. ‘09년 4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격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 치안, 이민자 문제, 마약 문제 등에 관한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무기류와 마약 거래 등에 관한 양국 간의 가능한 모든 협력을 통해 근절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치안은 불안한 상태이다. '10년 3월 13일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 시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부부 등 3명이 13일 마약 조직으로 보이는 세력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에서 마약 관련 폭력이 확산함에 따라 멕시코 북부지역 내 영사관 6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족을 현지에서 소개하라고 조치하고, 또한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비롯해 티후아나, 노갈레스, 누에보 라레도, 몬테레이, 마타모로스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의 가족들을 떠나도록 하는 한편, 멕시코시티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이 두랑고, 코아우일라, 치와와주(州)를 불필요하게 여행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3) 노동문제

미국은 자국 내 1,200만 명의 멕시코계 노동자(이 중 50% 이상은 불법이민) 중 불법 이민 단속을 철저히 하려는 반면 멕시코는 이민자가 감소할 경우 본국송금액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적극 협력하기 힘든 상황이다. '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백 기간 중 미국 내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합법적 이민자로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10년 4월 미국 남서부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 관련법은 이민자들이 외국인 체류자 증명서를 항상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로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 및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멕시코-미국 관계의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11년 2월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는 다른 형태의 출생신고서를 발급하며, 부모 중 한쪽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허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동 법안의 지나친 엄격성으로 아리조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미국내의 히스패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이민을 단속하는 법안을 제정코자 하는 움직임은 아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포착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내용들은 아리조나주의 이민법보다는 강압성이 낮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편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반대로 법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되기도 하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500불을 초과하는 외화송금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본국에 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뉴멕시코 주에서도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라. 2011년 경제동향 및 전망

1) 4.0% 성장 예상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약 3.5%~4.0%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출 분야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멕시코의 빈곤층의 확대,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내수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관세 인하 계속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07년 11.2%, '08년 10.4%, '09년 8.3% '10년 5.3%로 낮아졌으며, '11년에는 4.8%의 관세율을 보이며 총 6648 개의 항목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3) 환율, 12 페소대 예상

멕시코 페소는 경제 위기 후 14 페소대 후반의 환율로 약세를 보이다가 경제 위기가 안정됨에 따라 점차 강세를 보이며 12 페소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페소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상반기에는 약 11.7 페소의 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미국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줄어들면서 약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12.2 페소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노동법 개혁 움직임

현 정권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연방노동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 연방노동법은 멕시코 혁명의 유산으로 PNR 당(PRI 당의 전신)의 탄생과 함께 생겼다(1931년). 정부와 여당은 총 1010 개의 조항 중 약 300 개의 조항을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11년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나 멕시코 주지사 선거와 '12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 선출에 힘을 쏟고 있어 실제적인 개혁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멕시코 SECA (전략적 경제 보완 협정) 논의(2005.9~2007.9)

2005년 9월 전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시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간 교역, 투자를 더욱 확대, 촉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를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 SECA는 관세 자유화 대상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양국간 협상이 결렬된 FTA를 대신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특수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는 PTA(특혜무역협정)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한국은 그보다 자유화폭이 한 차원 넓은 SECA 체결을 요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

2006년 2월 7일~9일간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시된 바 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등 협상 분과 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분과의 경우 통합 협정문안이 마련되었다. 2006년 4월 18일~20일간 멕시코시티에서 2차 협상이 개시되어, 상품무역,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절차,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분과 별로 사전에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은 2006년 6월 14일~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 양허 협상을 시작했으나, 범위와 상호관심품목의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한 시차를 보임에 따라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나. 한-멕시코 FTA 협상 개시(2007. 9~)

담보상태이던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SECA)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발전이 양국의 정치권에서 '07년 9월부터 논의되었고, 그 1차 협상이 '0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상의 쟁점은 상품분야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위생 및 검역(SPS) 분야의 투명성, 지역화, 위원회 부문, 무역관련지적재산협정(TRIPS)분야의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범위 등이었으며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제 2차 협상은 2008년 6월 9~1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으며, 제 3차 협상이 멕시코에서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09년 7월 5일에 치러진 연방하원 총선에서 야당인 제도혁명당이 의회내 1당이 되었는데 집권당인 국민행동당은 향후 3년간 의회의 심각해진 여소 야대 국면을 헤쳐 나갈 과 동시에 2012년 대권 계승까지 이루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의회에서 집권당과 제도혁명당간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집권당의 의지인 FTA 확대(한국 포함)는 의회의 정치적 타협에 따라 그 추진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eon Bendesky 씨는 "FTA 확대의 문제는 멕시코가 처한 경제 현실(수출감소, 폐소화 평가절하, 경제 역성장)로 볼 때 관심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야당이 제 1당이 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TRA는 '09년 12월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상품전(5,000m²)을 개최하여 언론 및 경제 주도층의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킨 바 있으며, 재택한인상공회의소가 '09년 12월 출범하여 멕시코와 교역규모에 걸맞는 우리 기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의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상원 내 유관위원회간 회의에서 멕시코 정부는 한국 등 전세계 주요 통상국들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멕시코가 낙오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 의존도가 큰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FTA에 일정 부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멕시코와의 FTA 추진이 담보상태이기는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페루와의 FTA('11.4 체결)와 콜롬비아와의 FTA 확대를 통해 기존 FTA 반대 세력인 민간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과의 FTA도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차원의 협의뿐만 아니라, 멕시코내 학계, 업계 등 한-멕시코 FTA 추진 필요성을 설득, 지지할 수 있는 부문을 확보해 나가며, 아울러, 현지 우리업계 차원에서 한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멕시코 정부 및 재계를 대상으로 동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정책

1) 경제 안정에 가장 역점

멕시코는 '82년 및 '94년 두 차례의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대외무역 및 투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각 정부의 최대 중점 경제정책이며, '06년 12월 취임한 칼데론 정권 역시 물가안정을 최대의 경제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09년 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인 3.6%를 기록했으나, 경제성장률 (-6.5%)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10년은 비교적 안정적인 4.4%를 기록하였다. '11년 멕시코 중앙은행은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 소비자 물가상승률

구 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6.5	3.6	4.4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EIU, 2011.4

2) 개방적인 무역통상 정책 추진

'9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NAFTA 협정으로 멕시코 대외무역정책이 본격적인 개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또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전 세계 다수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FTA)을 맺어 45개국과 13개의 FTA를 맺고 있는 등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효된 FTA는 '11년 4월 체결된 멕시코-페루 FTA이다.

무역 개방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FTA 미 체결국 특히, 아시아산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가 중국산 수입 억제를 목표로 각종 수입통관 엄격화, 최저 수입가격제도 등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08년 10월에 다수 품목에 대해 정상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한편, '06년 9월 6,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08년 5월 중국과 상호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 무역개방조치를 계속하고 있어 거시적인 통상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06년 12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체결 협상을 추진하는 등 개방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업계의 반대가 심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1년 4월 페루와의 FTA가 5년 만에 체결되고 콜롬비아와의 FTA 확대가 논의되면서 브라질, 한국 등과의 FT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 재정적자 축소 및 외채 관리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의 경우, '10년 멕시코 원유수출가가 높아지며 고유가로 인한 재정 수입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11년에 들어서면서 중동 위기로 인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고질적인 원유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세수 다변화를 통한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높여려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적은 편이다.

공공부채는 '04~'09년간 GDP의 20%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12월 기준 외채는 2085억 달러로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나. 최신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경제 동향

□ 외환 보유고 최대치 기록

2011년 3월 멕시코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가 1219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갈데론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편 원유 판매에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공공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외부 쇼크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외환 보유고를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일본 쓰나미로 인한 멕시코 산업 피해

'11년 3월 발생한 일본 쓰나미로 인해 멕시코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2010년 일본으로부터 약 25억불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으며 일본차 메이커(혼다, 도요타, 닛산)의 2010년 자동차 생산량은 615,773대로 멕시코 전체 자동차 생산의 27%를 차지한 바 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 3사 중 닛산은 2개 공장에서 조업 중단을 실시하였으며 크라이슬러는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중단하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 외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멕시코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계속 확산될 것이고 멕시코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 노동법 개혁 움직임

현 정권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연방노동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 연방노동법은 멕시코 혁명의 유산으로 PNR 당(PRI 당의 전신)의 탄생과 함께 생겼다(1931년). 정부와 여당은 총 1010 개의 조항 중 약 300 개의 조항을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 2011년 전망

□ 경제성장률 4.0% 예상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경제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약 3.5%~4.0%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 수출 분야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빈곤층의 확대,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내수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인플레이션 3.7% 증가 예상

Economist에 따르면, 2011년 인플레이션 수준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3.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는 기존 세율의 유지로 인해 전년에 비해 소폭상승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무역 적자 계속

무역수지는 수출액은 대미 수출량 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소폭 악화되어 29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환율 12페소 대 유지 전망

멕시코의 환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12페소 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 불안정, 중동 국가들의 정치적 긴장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페소화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선호하는 통화가 됨. 멕시코는 매우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08년과 같은 수준으로 통화 가치 급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경제 지표별 현황

경제 성장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실질)	%	3.2	1.5	-6.1	5.5
GDP(명목)	U\$억	10,359	10,962	8,828	10,397

자료원 : 중앙은행, EIU

주) * 중앙은행 전망치

'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경기침체는 '09년에도 지속되어, 멕시코 GDP 성장률은 '09년에 -6.1%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 원인은 소비침체, 수출감소, 투자침체이었다. '10년에는 성장세로 돌아서 5.5%의 성장을 보였다.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INPC)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물가상승률(연평균)	%	3.8	6.5	3.6	4.4

자료원 : 통계청, EIU

주) * 멕시코 중앙은행 전망치

'09년 소비자물가는 소비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3.6%의 상승률을 보였다. '10년은 세제개혁으로 인한 부가세 상승(15%→16%) 및 법인소득세율 상승(28%→30%)등으로 인해 4.4%까지 상승하였다.

수지 부문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교역	수출	U\$억	2,719	2,913	2,298	2,984
	수입	U\$억	2,819	3,086	2,344	3,015
무역(상품)수지	U\$억	-101	-173	-46	-31	
경상 수지	U\$억	-90	-163	-63	-57	

자료원 : 중앙은행, EIU

□ 무역 수지

'10년에는 수출은 29.8%, 수입은 28.6%가 증가하여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가 나타났으며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된 반면, 원유 부문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악화되어 멕시코 교역의 원유 의존도를 보여주었다.

□ 경상 수지

'10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적자와 이전수지적자가 합쳐져서 57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1년에는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이전수지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

구분	단위	2008	2009	2010	
외국인투자	직접투자	U\$억	259	152	177
	간접투자	U\$억	48	152	371
	총액	U\$억	307	304	548

자료원 : 중앙은행

'10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548억불을 기록하며 경제회복세를 보여주었다. 간접투자는 증권시장 (6억 4100만불), 금융시장(231억 2700만불)에 투자되었다. 특히 투기성 달러캐리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시장은 전년 대비 565% 성장하며 멕시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환 율

구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환율(연말)	페소/U\$1	10.87	13.54	13.06	12.36

자료원 : 중앙은행, EIU

세계 경제 시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 중동지역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는 미국의 경기회복, 원유가 상승, 내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달러캐리자금의 유입 등으로 페소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연말 환율은 약 12.01페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부문별 성장

멕시코 산업 부문별 성장 추이

(단위: %)

구분	2007 (성장률)	2008 (성장률)	2009 (성장률)	2010년 (성장률)
전 체	3.3	1.3	-6.5	5.5
1. 농림 어업	2.1	3.2	1.8	5.6
2. 산 업	1.4	-0.7	-7.3	6.0
- 제조업	1.0	0.2	-10.2	10.0
- 광 업	0.2	-5.7	1.0	2.3
- 건 설	2.1	2.1	-7.5	-0.9
- 전력, 가스, 수도	4.0	4.1	1.2	2.4
3. 서비스업	4.4	2.1	-6.6	4.2
- 상업	2.7	0.3	-14.5	13.5
- 숙박업, 요식업	-	-	-9.6	16.3
- 교통, 물류, 통신	8.7	2.4	-8.1	6.5
- 전문직업인	-	-	-5.7	-2.9
- 부동산중개	-	-	-5.3	1.7
- 교육	-	-	-4.5	3.4
- 금융, 보험	5.0	4.1	-3.8	2.9
- 공공서비스	2.4	1.9	4.4	-1.6
- 기타(보건, 민간서비스)	-	-	-14.6	0.5

자료원 : 통계청(INEGI)

주: 2009년부터 서비스업이 더욱 세분화되었음.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사태의 영향으로 멕시코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 하반기 이후 미국이 경기 회복과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 가격 반등에 힘들어 경제는 호조를 띄어 2010년에는 5.5% 성장을 하였다.

나. 제조업

멕시코 제조업은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대미수출용 마킬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활동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며, 초기에 주로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마킬라도라 지대가 형성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전자산업은 Guadalajara, 자동차 부품은 Saltillo-Monterrey, TV생산은 Tijuana-Mexicali-Reynosa, 섬유산업은 Puebla, Tlaxcala, 가전제품은 Queretaro 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중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면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주요한 산업으로서 전체 GDP의 2.6%, 제조업 생산의 14%, 외국인 투자(FDI)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시티 중심 및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섬유, 의류, 컴퓨터 및 전자제품 등에서 대미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한 낮은 물류비용 및 납기 준수 등에서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경쟁국보다 높은 노동비용을 상쇄하고 있다. 멕시코 제조업은 미국의 경기변화 및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다. 건설업

건설업은 전체 GDP의 2.47%, 고용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성장세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09년에는 -7.5%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다.

건설부문은 4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며, 비공식부문은 물론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도 커 멕시코 실업문제 해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200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통신부(SCT)의 연방 고속도로 보수공사 등 신규 사회 인프라 공사가 발표되었으나 계획에 비해 실제 공사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인프라 공사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분야의 경우 총 250억 달러의 예산(민자포함)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총 1만7598km도로를 신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연방 고속도로 구비율을 72%에서 90%까지 확장하며,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 개보수 공사 약 2,500건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 광업

멕시코는 세계적인 원유 및 은, 철 등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1990년대 초부터 민영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을 통해 다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원유 부문은 아직 민영화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국제광물가격이 낮아 멕시코 광산업 또한 주춤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구리, 은, 아연, 철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 광업 또

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멕시코 광업 분야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유 및 광물자원 보유 및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원유 생산국이며, 전체 원유 수출량의 80% 가량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마. 기타

멕시코는 NAFTA 출범 이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유통마트 위주로 소매시장이 변화해 왔으며, 멕시코 유통시장은 Walmart(Bodega Aurrera, Superama 등) 대 기타기업 (Comercial Mexicana, Gigante, Soriana, Chedraui 등)의 양대 구조로 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식민지 및 원주민 문화유적을 보유한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2010년 전체 관광객 수는 2200만 명으로 2009년에 비해 7.3% 증가하였다. UN 세계 관광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관광국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바 있다.

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1) 신재생에너지활용 발전 개요

- 1993~2003 년간 에너지부에서 화석연료 사용비중이 높았으나 에너지부와 연방전력공사(CFE)은 2007~2014 년 기간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전력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력에너지(소수력 포함)의 경우 1,500MW, 풍력에너지 1,505MW, 지열에너지 158MW 상당의 설비용량 추가증설이 전망된다.
- 태양광발전은 2008 년 19MW 에서 2013 년 25MW 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경로 및 전망(2007~2014)

(단위: MW)

구분	2007	2008	2010	2014
풍력(연방전력공사)	88	189	391	593
풍력(자가소비)	0	200	1,000	1,000
수력(연방전력공사)	10,976	10,976	10,976	12,476
소수력(연방전력공사)	308	308	308	308
소수력(자가)	89	89	89	89
바이오매스	287	287	287	287
지열(연방전력공사)	965	960	1,010	1,123
합계	12,713	13,009	14,061	15,876

주: 지열(연방전력공사)부문 및 합계는 에너지부 기타자료를 근거로 수치 수정함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SENER), 연방전력공사(CFE))

2)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 및 전망

가) 태양에너지

○ 현황

- 태양열 활용
 - 태양복사량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일조량 일일 평균 18MJ/m² 이상이며,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Sonora, Chihuahua주 등은 일조량이 일일 19MJ/m² 이상이다.
 - 2009년 말 기준 총 121,953m² 상당의 태양열 집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효율은 70% 수준이다.
 - 주로 수영장, 호텔, 스포츠센터, 병원, 가정 및 산업시설 등의 온수가열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태양광발전
 - 멕시코의 평균일사량은 5.2시간/일(시설효율은 25%), 5kwh/m²으로 국제수준의 태양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20개 주에 127,600m²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07년에 901kW 규모의 추가설치로 총 18,534kW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생산된 전기는 공공 에너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원격지역에 가정용, 가로등, 통신시설, 수도펌프, 하이브리드발전(태양광, 풍력, 디젤발전시스템) 등에 주로 활용된다.
 - Baja California Sur주에 하이브리드 공장이 있어 17kW 규모의 태양광, 100kW의 풍력 및 80kW의 디젤전동발전기 보유하고 있다.

○ 전망

- 2013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25MW로 확충하여 연 14Gw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 현재 약 8만 8,000개 마을 500만 명의 주민이 전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이어서 이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한 바, 주요 수요지역은 Sonora, Chiapas, Baja California, Quintana Roo주를 들 수 있다.
- 태양광발전 관련 시장규모는 2009년 5,000만 달러 수준이나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기준 미국이 27%, 중국 20%, 일본 15%, 독일이 14%를 점유했다.
 - 멕시코 관련업체는 Grupo Alpe, Alternativa Solar, Grupo Condumex, Energia Alternativa de Mexico 등이 설치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업체는 없다. 주요 외국진출업체로는 미국의 APC, Morning Star, Sunwise Tech, PVPortal, 일본의 Kyocera Solar, 중국의 Suntech, 독일의 Conergy, 영국의 BP Solar, Genersys 등이다.
- CFE는 Sonora주 Agua Prieta에 380MW(태양열 80MW, 화력 300MW급)규모의 태양열·화력 하이브리드 발전소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총 2억 1,000만 달러 규모(세계환경기금 4,900만 달러 포함)의 투자가 필요하다.
 - 2007년 CFE는 536MW 규모 태양열·화력 하이브리드 발전소인 Agua Prieta II 프로젝트를 입찰을 실시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고 '10년 5월 현재 입찰이 진행중이다.

- 멕시코정부는 에너지절약위원회(CONAE)를 통한 태양열 온수축진 프로그램 (PROCAL SOL) 과 농림부를 통한 농업 재생에너지 개발축진 프로그램을 활용, 태양열 에너지 사용설비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의 경우 건축규정을 개정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에 온수가열을 위한 솔라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였다.

□ 태양에너지 활용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 독일 Q-Cells 사의 실리콘 박막모듈 생산단지 건설
 - 2008년 6월 독일의 태양전지업체인 Q-Cells사는 향후 5~10년간 35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경지대인 Mexicali(Baja California주)에 실리콘 박막모듈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북부지방 및 미국 캘리포니아에 태양광에너지 공급을 염두에 두었다.
- 일본 Kyocera 태양열발전 패널 생산공장 건설
 - 멕시코정부는 2009년 3월 Baja California주 Tijuana 지역에 태양열발전 패널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일본의 Kyocera사와 태양열 발전패널 생산을 위한 3,300만 달러의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까지 650MW의 패널 생산으로 185,000여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월마트의 태양에너지 활용계획
 - 멕시코 월마트가 에너지 자체조달을 위한 일차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Aguascalientes 에 있는 Bodega Aurrera에 2.20m² 크기 태양광 패널 1,056개를 설치, 자체소요 에너지의 20%를 조달할 예정이다.
 - 이는 중남미에서 최대규모로 연간 265,0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 규모는 147가구에 대한 전력공급량과 맞먹는 수준으로서 이를 통해 연간 140톤 가량의 탄소 배출 억제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 월마트는 2025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자사 수요 에너지의 100%를 자체조달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풍력에너지

□ 현황

- 멕시코의 풍력발전능력은 총 85MW 로써 세계 28 위이며('07 년 기준, CFE) 2009 년 2 월 기준 전체 에너지생산 설비용량의 0.15%를 차지하고 있다. Oaxaca 주에는 La Venta I, II 발전소가 총 85MW, 기타 Guerrero Negro 등이 1MW 의 설비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연도별 총생산량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생산량	6	8	7	7	5	6	5	45	248	255	255	255	255
전년대비증가		23.9	(14.7)	2.6	(19.5)	14.5	(18.7)	796.2	454.5	2.5	0	0	0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SENER), 연방전력공사(CFE)), 2010.5

풍력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시설수	가동개시일	설비용량	위치
Guerrero Negro	1	'82/4	1	Mugele(Baja California Sur 주)
La Venta I, II	105	'94.11	85	Juchitan (Oaxaca 주)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SENER), 연방전력공사(CFE)), 2010.5

□ 전망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연구원(NREL)의 보고서('03)는 멕시코의 잠재적 풍력에너지를 최대 40,000MW 로 전망했으며 주요지역은 Oaxaca 주 Istmo de Tehuantepec 과 Yucatan 주 및 Baja California 주이다.
 - 그러나 실현가능한 풍력발전 가능용량은 5,000MW로 예상하고 있는 바, Istmo de Tehuantepec 지역은 멕시코만과 Tehuantepec만을 오가는 계절풍 노출지역으로서 동 지역의 발전가능용량은 2,000~3,000MW이며, 평균풍력계수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 Baja California 주의 La Rumorosa 와 San Pedro Martir(274MW 예상)지역도 중요하며 Yucatan(352MW)과 Riviera Maya(157MW) 지역도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수준의 풍력에너지 발전조건을 갖추고 있다.
 - 2010년에 La Venta II 발전소가, 2011년에는 Oaxaca II-IV발전소(304 MW) 및 Baja California Sur III Coromuel 발전소(43 MW)가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La Venta III 발전소(101 MW, 세계은행 25백만불 지원예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플랜트 제조업체인 Speco 사(총복음성 소재)는 Coahuila 주 Monclova 에 풍력타워 및 풍력발전기 부품 생산공장을 '09.9 월초에 완공하고 생산 가동에 들어갔다. 총 투자액은 3,000 만 달러 수준이다.
- Walmart 는 '10 년 5 월 Oaxaca 주의 La Ventosa 시에 Oaxaca I Lamatalaventosa 라는 풍력발전소를 완공하고 CFE 송배전망을 통해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모렐로스 주의 348 개 점포에 전력공급을 개시했다. 동 풍력발전소는 2.5MW 급 터빈 27 개를 사용해 67.5MW 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13 만 7 천톤의 CO2 감소효과 (자동차 2 만 1 천대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는 2025 년까지 100% 그 린에너지 자가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수력에너지

□ 현황

- 2010 년 5 월 기준 국내 수력발전은 설비용량은 11,134 MW 로 전체 전력설비용량의 18.48%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9.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 년 전과 비교해 설비용량 비중은 22%→18.48%로, 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12.78%→9.63%로 축소되어 화력 발전 및 신재생 발전의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 Veracruz 주와 Jalisco 주에 3 개 소형 수력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Veracruz 주와 Durango 주에서는 소형 수력과 천연가스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 전망

- 2008~2017 년 기간중 중서부지역에 La Yesca 발전소 가동 개시 및 Villita 발전소 확장을 통해 수력발전량이 추가적으로 1,500MW 증가할 예정이다.

연도별 총 생산량

연도	총생산량(GWh)	전년대비 증가율(%)
1999	32,712	-
2000	33,075	1.1
2001	28,435	(14.0)
2002	24,862	(12.6)
2003	19,753	(20.5)
2004	25,076	26.9
2005	27,611	10.1
2006	30,305	9.8
2007	27,042	(10.8)
2008	38,892	43.8
2009	24,908	(35.9)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ENER), 연방전력공사(CFE)), 2010.5

라) 지열에너지

□ 현황

- 2008 년에 멕시코는 지열부문에서 총 965MW 의 발전능력을 보유하고 연간 7,056GWh 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4 위를 차지했다.
- 현재 Baja California 주, Jalisco 주, Puebla 주에 Cerro Prieto V, Los Humeros 발전소 등이 가동 중이다.

지력발전소 총 생산량과 전년 대비 증가율

연도	총생산량(GWh)	전년대비 증가 (%)
1999	5,623	
2000	5,901	4.9
2001	5,567	(5.7)
2002	5,398	(3.0)
2003	6,282	16.4
2004	6,577	4.7
2005	7,299	11.0
2006	6,685	(8.4)
2007	7,404	10.7
2008	7,056	(4.7)
2009	6,026	(-6.6)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ENER), 연방전력공사(CFE)), 2010.5

지력* 지열발전소 현황(총 965MW)

연도	생산능력
1990	700.0
1995	753.0
2000	855.0
2005	960.0
2007	960.0
2008	965.0
2009	965.0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SENER), 연방전력공사(CFE)), 2010.5

지력발전소

발전소명	시설 수	가동 개시일	용량(MW)	위치
Cerro Prieto I	5	1973.10.12	180	Mexicali(Baja California주)
Cerro Prieto II	2	1984.02.01	220	Mexicali(Baja California주)
Cerro Prieto III	2	1985.07.24	220	Mexicali(Baja California주)
Cerro Prieto IV	4	2000.07.26	100	Mexicali(Baja California주)
Humeros	8	1991.05.30	40	Humeros(Puebla주)
Los Azufres	15	1982.08.04	195	Cd. Hidalgo(Michoacan주)
Tres Virgenes	2	2001.07.02	10	Mulege(Baja California Sur주)

자료: 전력분야 전망(에너지부(SENER), 연방전력공사(CFE)), 2010.5

□ 전망

- 멕시코의 지열발전 부문은 지열발전소의 하층토 조건에 따라 시설용량이 현재의 10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현재 CFE 만 참여하고 있다). 2014 년까지는 158MW 를 증설할 전망이다.
- Baja California 주의 Cerro Prieto V 발전소에 2010~2011 년 기간중 107MW 를 증설할 전망이다. Puebla 주의 Humeros 발전소 A, B 에 2010~2011 년 기간중 51MW 를 증설할 예정이다.
- CFE 는 설비용량을 280MW 증가시킬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Tres Virgenes(Baja California Sur 주), Los Negritos (Michoacan 주), Acoculco(Puebla 주) 등에 지열정을 뚫은 바, 향후 지열개발은 지열발전에 소요되는 제반 기술개발이 관건이다.

마) 바이오에너지

□ 현황

- 현재 바이오에너지는 1 차 에너지 소비의 약 8%를 공급하고 있는 바, 2004 년 사탕수수껍질과 목재(장작)를 주원료로 연간 4,500 만 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다.
- 2005 년에는 생산능력 19MW(연간 120GWh 생산)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70MW(연간 105GWh 생산)의 사탕수수 부산물 바이오에너지 생산설비 및 224MW(연간 391GWh 생산)의 에너지생산 혼합발전소(화석연료+사탕수수 부산물) 설립을 인가하였다.

- Nuevo Leon 주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Moneterrey 지역에 멕시코 최초로 화장실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7MW 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B) 등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4 개의 프로젝트가 검토 중이며 6 개가 진행 예정이다.
- 2006 년 멕시코의회는 바이오에너지 진흥 및 개발법안을 통과('08.2.1 발효)시킨 바, 동법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 가공.판매 등을 일정조건하에 허용하게 되나 이로 인한 옥수수가격 폭등으로 시민단체 등은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 전망

- 멕시코의 바이오에너지 발전가능용량은 연간 2,635~3,771 페타줄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의 10%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바, 농업, 삼림폐기물 및 도시 고체폐기물 7,300 만 톤을 이용하여 설비용량 803MW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 조력발전

- 현재 조력발전소 추진 프로젝트는 없으나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Mar de Cortes 지역이 최대 3.5 만MW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수벽 70 km을 건설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San Luis-Rio Colorado 에 500 MW의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생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 수소에너지

- 동 분야는 현재까지 거의 미개척상태이며, 대규모 수소에너지 플랜트 건설은 여타 발전소의 부속플랜트 형태로 가능하나 수소에너지의 생산, 활용, 저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이다.

3) 멕시코 신재생 에너지 육성정책

□ 신재생에너지 활용촉진법안 제정.공포

- 에너지개혁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전환 자금조달법이 2008. 11. 28 일에 발효된 바, 동법은 풍력, 태양력, 수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 촉진 및 효율 증대를 위해 제정되었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부 및 에너지규제위원회(CRE)의 역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에너지의 지속가능 활용방안 및 기후변화 완화 관련 정책 규정이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녹색기금을 조성하여 2009~2011 년까지 매년 일정금 액(30 억 페소, 2 억 3,000 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금 조성방안 및 녹색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다.

□ 개발 인센티브 제공

-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기계·설비 투자시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04. 12.1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의 제 40 조 제 7 항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기계·설비 투자에 대하여는 최초 회계연도에 100% 고속 감가상각을 허용하였다. (최소한 5년 이내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함).
- 고속감가상각으로 인한 혜택은 5년간 감가상각하게 되는 기업(통상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0.35 센트/kwh, 1년에 감가상각하는 대기업일 경우에는 1.05 센트/kwh에 해당 한다.

□ 운영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신탁기금
 - 재생가능에너지지원사용에 관한 법률(LAFRE)에 근거한 것으로 기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55% Fondo Verde : 연구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사용촉진목적 (전기분야 적용), 2) 6% Fondo de Tecnologias Emergentes : 기술통합기금(전기분야 적용), 3) 10% Fondo de Electrificacion Rural : 농촌 전력화 기금, 4) 7% Fondo de Biocombustibles : 바이오연료기금, 5) 7% Fondo General de Energias Renovables : 재생가능에너지 일반기금(전기분야 미적용), 5) 15% Fondo de Investig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de las Energias Renovables (FIDTER) :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기금
-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PERGE; Proyecto de ER a Gran Escala)
 - 세계은행, IBRD 및 세계환경기금의 지원으로 실행되는 프로젝트로 풍력에너지에 특화되었다. 총 7000 만 달러가 지원되는데, 1 단계에서 2500 만 달러, 2 단계에서 4500 만 달러가 지원된다. 1 단계에서는 101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Venta III 실행에 2000 만 달러, 기술지원에 500 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2 단계의 4500 만 달러는 Fondo Verde 에 통합되어 5 개의 101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 탄소 배출권 대응

- 2005 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3 년이 경과된 2008 년 8 월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수량 감축의무가 없는 부속서 I 국가인 멕시코는 탄소배출권 판매 시장점유율에서 3%(약 8,000 만 달러의 가치)를 점하여 중국(61%), 인도(12%), 브라질(4%)에 이어 제 4 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립환경연구소(INE)는 2008~2012 기간 중 멕시코는 이산화탄소 8,100 만톤/년을 감축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대형 에너지 소비 공기업인 PEMEX 와 CFE 가 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 시장에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통하여 참가할 수 있는데, 유엔에 등록된 1,118 개의 CDM 는 멕시코 9.39%, 인도 31.66%, 중국 21.38%, 브라질 12.70%, 말레이시아 2.59%, 칠레 2.06%, 기타 20.2%('08)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 멕시코의 경우 축산업계가 자국 등록 CDM 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멕시코 FTA 체결 현황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에 돌입, 2011. 4월 기준 13개 FTA 협정을 통해 45국과 조약을 맺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6. 11월에 볼리비아는 2010.7월에 조약을 탈퇴하였다.

2003년 말 NA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주요 산업계에서는 그 동안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부는 당분간 더 이상의 추가 FTA 협상은 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6. 12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브라질과의 협상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브라질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멕시코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출구조는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심해 수출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멕시코 국가별 FTA 체결 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1994.1.1
G3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06.11 탈퇴)	1995.1.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1995.1.1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1995.1.1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1998.7.1
멕시코-칠레 FTA	칠레	1999.8.1
멕시코-유럽연합 FTA (27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0.7.1(15개국) 2004.5.1(10개국 추가) 2007.1.1(2개국 추가)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7.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1.3.15(엘살바도르) 2001.6.1(온두라스)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001.7.1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2004.7.15
멕시코-일본 FTA	일본	2005.4.1
멕시코-페루 FTA	페루	2011.4.6

자료: 경제부, 2011.4

나. 경제보완협정 체결

멕시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경제 보완협정(ACE: Acuerdo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체결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간 특정상품에 대한 저율관세 부과, 원산지 규정, 세이프가드 등을 운영 중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 부문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US\$ 백만)

구분	2009			201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수출	229,783	-21.1	100	298,361	29.8	100
1.원유부문	30,911	-39.0	13.5	41,682	34.8	14.0
- 원유	25,694	-40.7	11.2	35,907	39.8	12.0
- 기타	5,217	-28.5	2.3	5,775	10.7	1.9
2.비원유부문	198,872	-17.4	86.5	256,679	29.1	86.0
- 농축산물	7,726	-2.1	3.4	8,510	10.1	2.9
- 광물	1,448	-25.0	0.6	2,424	67.4	0.8
- 제조업	189,698	-17.8	82.6	245,745	29.5	82.4
전체수입	234,385	-24.0	100	301,481	28.6	100
- 소비재	32,828	-31.5	14.0	41,423	26.2	13.7
- 중간재	170,912	-22.9	72.9	229,812	34.5	76.2
- 자본재	30,645	-21.6	13.1	30,247	-1.3	10.0
무역수지	-4,602	73.3	-	-3,120	32.2	-
원유제외 무역수지	-35,513	47.7	-	-44,803	-26.2	-

자료원 :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 09년 수출은 모든 부문에 걸쳐 부진을 보였는데 특히 원유부문 (-39.0%), 광물(-25.0%), 제조업(-17.9%)의 수출이 크게 감소. 수입 또한 전 부문에 걸쳐 감소함. 부문별 수입에 있어 중간재가 전체의 72.9%를 차지하여 멕시코의 가공 및 조립산업 중심 구조를 반영.
- 10년에는 수출은 29.8%, 수입은 28.6%가 증가하여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를 보이고 있음.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폭을 보임.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으나 원유 부문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악화되어 멕시코 교역의 원유의존도를 보여줌.

□ 국가별 수출 (상위 10개국)

멕시코의 주요 수출국 및 비중

(단위 : 억불, %)

국가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총계	2,926	100	2,296	100	2,981	100	29.8
1 미국	2,346	80.2	1,849	80.5	2,384	79.9	28.9
2 캐나다	71	2.4	84	3.6	107	3.6	27.8
3 중국	20	0.7	22	1.0	42	1.4	89.5
4 브라질	34	1.2	24	1.1	38	1.3	54.7
5 콜롬비아	30	1.0	25	1.1	38	1.3	50.4
6 스페인	44	1.5	24	1.0	37	1.2	53.7
7 독일	50	1.7	32	1.4	36	1.2	11.1
8 일본	21	0.7	16	0.7	19	0.6	19.3
9 칠레	16	0.5	11	0.5	19	0.6	77.1
16 한국	5.4	0.2	5.0	0.2	9.4	0.3	88.4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2010년 멕시코의 수출 경제위기 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2011년 1월~2월 기간 중의 수출은 504억불을 기록, 동기간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2010년 역시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9.9%를 차지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대 중국(89.5%), 한국(88.4%), 칠레(77.1%) 수출이 급증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증가는 원유, 구리,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아연 및 구리 등 각종 광물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 품목별 수출 (상위 10개 품목)

멕시코의 10대 수출 품목

(단위:US\$백만)

순위	품 목		2008	2009	2010	
	HS 2단위	설 명			금액	비중(%)
총 계			292,666	229,621	298,230	100
1	85	전기기기	75,505	60,968	71,703	24.0
2	87	자동차 및 부품	42,851	33,698	51,777	17.4
3	84	기계류	33,735	29,079	41,626	14
4	27	광물성연료	50,782	30,460	40,982	13.7
5	90	광학기기	9,347	8,632	10,187	3.4
6	71	귀금속	5,265	6,206	9,218	3.1
7	39	플라스틱	5,378	4,654	5,705	1.9
8	94	가구류	5,307	4,146	5,434	1.8
9	07	채소류	4,227	3,893	4,310	1.5
10	73	철강제품	4,455	3,198	3,660	1.2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World Trade Atlas

- '10년 기준, 4대 수출품목인 전기기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광물성 연료의 수출 비중이 69.1%에 달하고 있다.
- 전 품목의 수출이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전기기기(24%), 자동차 및 부품(17.4%), 기계류(14%), 광물성연료(13.7%)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회복에 기인한다. 특히 원유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 제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승용차와 트럭의 수출이 각각 59%, 58%씩 성장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성장 추이를 보여주었다.

□ 국가별 수입 (상위 10개국)

멕시코의 주요수입국 및 비중

(단위 : 억불, %)

국 가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총 계	3,101	100	2,344	100	3,015	100	28.6
1 미 국	1,526	49.2	1,124	48.0	1,450	48.1	29.0
2 중 국	348	11.2	325	13.9	456	15.1	40.2
3 일 본	163	5.3	114	4.9	150	5.0	31.7
4 한 국	136	4.4	110	4.7	128	4.2	16.6
5 독 일	126	4.1	97	4.2	111	3.7	13.9
6 캐나 다	95	3.0	73	3.1	86	2.9	17.9
7 타이완	67	2.2	46	2.0	56	1.9	22.4
8 브라질	52	1.7	35	1.5	43	1.4	23.8
9 이탈리아	52	1.7	31	1.3	40	1.3	27.0
10 스페인	41	1.	30	1.3	32	1.1	7.6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2010년 수입은 경제위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2011년 1월~2월 기간 중의 수입도 500억불을 기록하며 동기간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최대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15.1%), 일본(5.0%), 한국(4.2%)이 2, 3, 4위를 차지한다.
- '09년에는 대부분 국가로부터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으로 인해 '10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28.6%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40% 증가하여 중국산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 품목별 수입 (상위 10개 품목)

멕시코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순위	품목		2008	2009	2010	
	HS 2단위	설 명			금액	비중(%)
총 계			308,849	234,385	301,482	100
1	85	전기기기	64,941	55,304	70,870	23.5
2	84	기계류	45,467	36,578	46,786	15.5
3	87	자동차 및 부품	26,372	18,491	24,712	8.2
4	27	광물성연료	29,197	15,761	24,058	7.98
5	39	플라스틱	16,196	12,698	17,405	5.77
6	90	광학기기	12,412	8,551	10,203	3.38
7	29	유기화학품	7,944	6,582	7,961	2.64
8	72	철강	8,777	5,185	7,264	2.41
9	73	철강제품	6,867	5,282	6,623	2.2
10	98	특수품목	4,450	4,274	5,555	1.84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World Trade Atlas

- 2010년에는 주로 전자기기 및 부품, 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등이 수입되었고 주로 멕시코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활용되는 중간재로 활용된다.
- 주요 수입 품목 중 플라스틱류(95%), 광물성 연료(62%), 마킬라도라용 부품(62%)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

우리나라의 대(對) 멕시코 수출은 '01년 21.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에는 최고치인 90.09억 달러를 기록, 멕시코는 한국의 9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나, '09년에 21.5%가 감소한 71억 달러로서 11대 수출국으로 떨어졌다. '10년에는 수출세를 회복하여 8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11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對) 멕시코 수입의 경우, '09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전년대비 7.4% 감소한 9.7억불을 기록하였으나 '10년 경제 위기 안정화와 더불어 15.2억불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우리의 대(對) 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08년 80.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09년 61억 6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0년 무역흑자는 73.2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90년대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0년 총 104억불을 기록하며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은 두번째 교역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무역흑자 규모로는 중남미 최대, 전세계 5위로 우리나라의 효자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시장에서의 무역흑자는 양국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한다. 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11년 3월 기준 약 110개의 제조법인이 활동중임),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연도별 대 멕시코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2,149	-10.1	267	-29.4	1,882
2002	2,231	3.8	295	10.8	1,935
2003	2,455	10.09	334	13.0	2,121
2004	2,994	22.0	411	23.2	2,583
2005	3,789	26.6	460	11.8	3,329
2006	6,285	65.9	798	73.5	5,486
2007	7,482	19.1	1,013	26.9	6,469
2008	9,090	21.5	1,049	3.6	8,041
2009	7,132	-21.5	971	-7.4	6,160
2010	8,846	24.0	1,521	56.5	7,325
2011.1~2	2,139	75.4	323	66.4	1,815

자료: KITA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나.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10년 10대 수출품목(MTI 6 자리 기준)중 대부분의 제품의 수출이 상승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TV 생산을 위한 칼라 TV 부품(81.4%)과 기타평판디스플레이(17%)의 상승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96.9%), 냉연강판(113%), 아연도강판(35.8%) 등도 증가하였다.

11위~20위 수출 품목 중에서는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696.5%)의 수출이 제일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부품(36%), ABS 수지(42.2%), 착색아연도강판(62.6%), 열연강판(116.5%)이 큰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10년 한국의 대(對) 멕시코 수입은 ‘09년 대비 전체적으로 56.5%가 증가하였다. 아연광 W(56.5%), 슬랩(242.2%), 금속광물(182.1%), 동광(74.7%), 소금(27.3%) 등이 상위 10대 품목에 속한다.

또한 의료용전자기기의 수입(2,229만불, 576.3%)이 큰 폭으로 증가 했는데 이는 멕시코에 진출한 GE, 필립스, Siemens 등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산소흡입기, 진단시약, 심장박동 측정기, 수술용 모니터, 초음파진단기 등의 완제품 및 부품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다.

對 멕시코 10대 수출 품목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132,760	-21.5	8,845,549	24
1	836110	액정디바이스	2,886,801	-17.9	2,391,142	-17.2
2	821170	칼라TV부품	525,416	-60.2	953,064	81.4
3	836120	기타평판디스플레이	652,760	-	763,381	17
4	742000	자동차부품	260,886	-44.4	513,630	96.9
5	613310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135,412	62.4	288,436	113
6	741160	불꽃점화식 1,500시시 초과	167,123	-39.5	288,194	72.4
7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129,711	-36.8	176,199	35.8
8	812140	시 분할식 전화기	58,885	171.1	169,923	188.6
9	741150	불꽃점화식 1,500시시 이하	44,368	-45	160,986	262.8
10	133120	자동차취발유	105,717	42.9	156,794	48.3

자료: KITA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對 멕시코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71,992	-7.4	1,521,027	56.5
1	116000	아연광	52,740	1,388.10	180,469	242.2
2	619130	슬랩	16,069	-77.9	162,944	914
3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95,240	88.9	95,988	0.8
4	119000	기타금속광물	30,740	2,855.30	86,708	182.1
5	625110	연괴	97,845	1,566.50	77,366	-20.9
6	618400	고철	30,226	-68.5	64,121	112.1
7	113000	동광	32,676	-31	57,078	74.7
8	742000	자동차부품	21,594	-19.2	49,076	127.3
9	122000	소금	34,118	-0.5	43,415	27.3
10	621120	알루미늄스크랩	32,709	64.9	35,895	9.7

자료: KITA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수입규제제도

가.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관련 품목(아래 표 참조)
- 종류: 수입허가

나. 현황

- 관련 규정
 - WTO Marrakech 협정 1, 2 조 및 통상법 3 항 4 조, 5 조(Artículos 4, 5 fracción 3 de la Ley de Comercio Exterior)

수입허가제도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 용
석유 함유 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의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 의견서도 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 차량	국방부(SEDNA) 공식의견서 필요
중고 의류	내무부(Secretaría de Gobernación) 공식의견서 필요
재생용 중고 타이어	재생 담당 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서 필요
자동차 반제품 일시 수입 시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 멕시코에서 완성 후 다시 수출할 경우, 동반 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 필요
해외공관 직원 차량	외무부의 증빙서류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임시수입허가증 사본제출
장애자용 차량	최근 6개월 이내 공식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건강증명서(장애 상세 내용 포함)
방탄 차량	방탄관련 멕시코 품질협회(NORMEX) 증명서 필요
견인차	제조업회의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ón)에서 발행된 동 제품의 국내생산이 없다는 증명서 필요
치즈 및 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 제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필요
중고컴퓨터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용으로 수입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서 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 첫 해는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입 두 번째 해부터 수입내역에 대한 세관서류를 사전 제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경제부 2010.5

□ 수입감시 운영 품목

멕시코는 1998년 7월 27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경제부 사전허가 의무 수출입 품목 분류 및 시행령’을 통해 수입감시제도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는 특정 국가별 품목을 규정하여 수입품의 언더벨류 감시를 위해 자동수입 신고 제도(Aviso automático de importación)를 통해 운영되었으나 2005년 11월 9일 발표된 개정안에 의해 폐지되었다.

수출세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조개 및 갑각류 껍질	조개, 갑각류 껍질, 거북이 껍질 등에 50% 세금 부과	Hs Code 0507.9001
고고학, 사학 수집품과 표본	공공교육부에 의해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되지 않은 수집품과 표본. 50% 세금 부과	Hs Code 9705.0006
100년 이상 된 골동품	50% 세금 부과	Hs Code 9706.000

자료: 경제부, 2010.5

수출허가제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석유관련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 공식의견서 필요	LP가스의 경우 에너지부의 의견서도 필요
화폐, 금	중앙은행 공식 의견서 필요	
옥수수 가루	수출물량이 국내 옥수수가루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 필요	
거북이 및 야생동물 가죽	수산자원부(SEMARNAT)의 공식적인 의견서 필요	
야생동식물	수산자원부의 야생동식물국의 기술적인 의견서 또는 농산부 농업개발국의 의견서 필요	

자료: 경제부, 2010.5

수출금지제도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살아있는 생선	농어, 송어, 미꾸라지, 메기, 민어, 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 등	Hs Code 03019901에 해당하는 생선
종자와 분과 조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Hs Code 1208.9003,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 종자 및 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화학제품	유해화학물	Hs Code 2903.5903,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멸종위기동물	거북이, 거북이 알, 까구아마 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 이미지의 전사지(디칼커매니어)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아동용 디칼커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역사유물	공공교육부에서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된 역사적인 물품	Hs Code 9705.0005

자료: 경제부, 2010.5

수출 쿼터(생산량 제한 등) 운영 품목

품목(분야)	내용
정제 설탕	쿼터 2,954,000kg
비정제 설탕	쿼터 7,258,000kg

자료: 경제부, 2010.5

다. 비관세 장벽

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 대비가 어려워 이는 실질적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 품목
- 종류: 제도장벽

□ 현황

- 관련 규정: 계측표준법 (Ley de Metodología y Normatización)
- 멕시코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공식표준규격(Norma Oficial Mexicana, NOM)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1994. 3 월부터 대상품목을 81 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 2007. 12 월 기준 총 6,600 여 개의 표준규격 제도가 운영 중이다.
- 2008 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에서는 NOM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국제규정과 상이한 것은 개정하고 현 상황에 맞지 않는 NO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바 기존의 7,200 여 개 표준 규격제도가 6,600 여 개로 줄어 들었다.
- 멕시코 정부는 2010 년에 5 천개의 표준규격인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800 개는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이며, 4 천여개는 멕시코표준규격(NM, Normas Mexicanas)이다. 참고로, NOM (총 977 개)은 보다 중요한 국제적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NM 은 국제적 수준의 기술 기준에 준하는 멕시코내 자발적 규정이다.
- 멕시코 경제부 Ingrid Maciel 국제표준과장에 따르면 현재 섬유, 전자제품 규정 및 식품분야 상표부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제품 관련 규정은 다소 진전이 있으나, 식품 상표부착 관련 규정의 검토는 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NOM 제도는 특히 한국산 타이어 및 전자제품의 대멕시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 빈번한 개정 및 충분하지 못한 준비기간
 - 관련 규정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NOM 에 관한 규정 개정의 경우, 공고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하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기간을 갖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2) 현지 조립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멕시코 현지 조립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기업만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생산지역에 상관없이 무관세로 완성차 수입을 허가함으로써 현지 공장이 없는 업체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직접 수입하려 할 경우 2010년 5월 기준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기계(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규정
 -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화 법
- 1990. 1. 1 일부터 멕시코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2009.5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멕시코 현지 생산라인이 없거나 FTA 미 체결국에 대해서는 30%의 고관세를 부과하여 현실적으로 수출이 쉽지 않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2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 영향 및 문제점

- 현지 공장이 없는 우리나라는 직접수출 가능성이 원천봉쇄 되고 있다.
 -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통해 Atoz, Verna 등을, GM 대우는 GM 을 통해 Matiz, Optra 를 수출하고 있다.

3) 중고차 수입금지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 성격이 짙다. 현재 NAFTA체결국인 미국과 캐나다산 중고차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기계(중고자동차)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관련 규정: 세관 개혁 및 보완 법령 137 조(EI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 artículo 137)
- 중고자동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산 중고차 중 미국 연비 및 공해가스배출 관리 규정을 충족한 10 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영향 및 문제점

- 국내산 중고차 수출이 불가능하다.

4)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 통관을 보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 품목
- 종류: 통관절차

□ 현황

- 관련 규정: 없음
-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기재사항들이 너무 많다.
 - 모든 서류, 라벨링에 납세번호(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강제하고 있다.
 - 사소한 사항이라도 누락 시 통관이 보류된다.

□ 영향 및 문제점

- 기재사항이 미비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어 제품 납기 지연 가능성이 농후하다.

5) 자국어 사용 강제 규정

서류작성 시 스페인어나 현지 통용영어 사용만 강요해 수출업자에게 추가 번역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 품목
- 종류: 통관절차

□ 현황

- 관련규정 명기: 없음
- 서류작성 시 스페인어 사용을 요구한다.
 - 원칙적으로 스페인어 외에 영어도 사용 가능하나 실제 세관에서는 스페인어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영어로 작성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현지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영향 및 문제점

- 스페인어 및 현지 통용영어를 익숙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 통관서류 작성 시 추가 번역 비용이 발생한다.

6) 의료기기 수입 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 수출허가를 위한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적기에 시장 진출이 어렵다.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 분야(품목): 전기·전자(의료기기)
- 종류: 수입허가

□ 현황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 376 조
 -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소모품 포함)이 멕시코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멕시코보건부(Secretaría de Salud)가 발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한다.
 - 관련규정에 의해 품목허가에 장기간(10 개월~1 년)이 소요된다.

□ 영향 및 문제점

-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시장진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멕시코의 대 한국 수입규제 동향: 1 건의 반덤핑 규제 중.

멕시코 경제부(무역위원회: 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는 '93.8.19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98.8.20 및 '03.8.20에 추가적으로 5년씩 동 조치를 연장하였다.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UPCI)는 주재국 이해관계사 (Akra Polyester, 마킬라도라 지역 생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동 품목을 멕시코 국내에 공급함)의 요청에 따라 '08.8.19동 조치 연장 여부를 재조사기로 결정하고 '08.8.23 한국의 생산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생산기업(웅진(구 제일), 휴비스(구 삼양))은 '08.9월 및 '08년 11월에 생산 가격, 수출 가격, 생산시설 규모 등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09.5.25 사전설명회에 이어 '09.6.2 제 1차 공청회(원고측: Akra Polyester, 피고측: 대사관 및 KOTRA)가 열렸다. 한국 생산기업 및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도 지명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측에서 참석하였다. 공청회에서 Akra Polyester측은 과거 동 품목에 의한 멕시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한국의 동 품목 생산 능력과 재고는 많은데 비해 수출할 곳이 많지 않아 반덤핑 규제가 풀릴 경우 멕시코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15년 이라는 기간은 멕시코 국내산업이 입었던 산업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며, 추가적인 반덤핑 조치의 연장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수준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WTO 반덤핑 협정 제 11.1조)

또한, '93년 이후 한국 화성업계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해당품목의 급격한 대 멕시코 수출 증가 현상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05.7월의 한국산 저융점사 (Low melted)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고품질의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 제한은 관련산업에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멕시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인도나 중국산 동일제품의 정상 수입을 더 많은 양 (2008년 4개 HS Code 합산액 기준, 중국산은 한국산의 3배, 인도산은 1.2배)을 허용하는 것에 비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단 1회의 공청회로 심리절차가 끝났고, '09년 11월 최종 판결결과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이 결정되었다.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 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93.8.19 '98.8.20 '03.8.20 '08.8.20	○ 관세율 - 삼양사 제조, 수출 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 참고: 일반관세 9%

주: 상기 품목의 반덤핑조치 기한은 2008.8.19까지였으나 멕시코 경제부는 2009년 11월에 최종 판결을 내려 5년간(2013. 8.20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 결정하였다.

나. 멕시코의 전반적 수입규제 동향

1) 2010년도 수입규제 동향

□ 멕시코의 통상정책 방향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대외무역 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 현재 멕시코는 12 개 FTA 조약을 통해 44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평균 관세의 경우도 점차 관세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010년 5월 기준 12,116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관세율은 5.2%, FTA 및 각종 경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95%, 산업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 관세율은 3.4%이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07년 11.2%, '08년 10.4%, '09년 8.3%로 낮아졌으며, '10년 5.2% (자동차 30%, 타이어 15%), '11년 4.6%, '12년 4.4%(자동차 20%), '13년 4.3% 예상된다.

- 현 정부는 한국, 파나마, 페루와 새로운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으나, 철강 및 화학업계를 주축으로 한 멕시코 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 측의 FTA 체결 움직임이 순탄치만은 않다. '10년 5월 멕시코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브라질과 FTA 체결 협상을 위한 아젠다 설정에 합의하였다.

2) 멕시코, 대 중국 반덤핑 관세 일부 철폐

□ 멕시코, 대중국 반덤핑관세 철폐

2008년 10월 15일에 749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철폐되고 정상 관세가 부여되었다. 2008년 5월 31~6월 1일까지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APEC 통상 장관회의에 참석한 멕시코 수석대표인 에두아르도 소호 경제부 장관과 중국측 Chen Deming 통상부 장관은 현재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신발·장난감·기계·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한' 품목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진 인하여 정상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업체 요청에 따른 조사를 명목으로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대 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세부내용

- 2008년 10월 15일부 관세 정상화 품목
 - 29171901, 29181401, 29181501 등 HS Code 8 자리 분류에 따른 749개 품목
- 2011년 12월 11일까지 관세 정상화 품목
 - 29154001, 29189901, 29189999 등 HS Code 8 자리 분류에 따른 204개 품목

□ 멕시코 산업계의 반응

멕시코 경제부는 대 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관세 철폐기간에 경제부는 중국산 저가품 수입의 영향을 받는 자전거·유모차·공구·섬유·의류·신발·장난감·가전 업계 제조업체를 소집해, 각 업계의 경쟁력·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 산업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의류업계는 반덤핑 관세 철폐 후 의류 제조업에서만 5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시사점

멕시코 측이 합의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더 이상의 명분없는 반덤핑 관세 철폐유예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무리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계속할 경우, 중국이 경고한 바와 같이 대 중국 관계에 있어 경제적·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 당시 칼데론 대통령의 중국 방문(2009. 7. 10~12)을 앞두고 멕시코는 중국 쪽에 반덤핑관세 철폐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중국 측 투자를 많이 유치 하자는 실리주의적 전략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953개 품목의 79%에 달하는 749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액 가중치로 계산한 즉각 철폐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철폐 합의안을 이끌어 내 주요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아래 표 참조)

중국산 반덤핑 관세 해제 당시 수입액 대비 보호 비중

부문	보호 비중
의류	72%
신발	88%
밸브, 관	91%
자전거	84%
화학	67.4%
장난감	67.4%
자물쇠	47%
안정기	100%
양초	100%
연필	100%
라이터	100%

자료: 멕시코 경제부, 2008.10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HS Code 2 단위 기준으로 상위 10위의 대 멕시코 수출품이 95.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반덤핑관세 철폐 대상 품목에는 거의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는 2012년 이후에는 한국 제품의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한국제품의 멕시코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멕시코 FTA가 타결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멕시코의 산업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 관세율은 5% 미만이며, 따라서 한-멕시코 FTA가 2012년 전에 타결되고 발효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공산품 수출품이 받는 혜택은 5% 내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전 및 화학제품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의 경우,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율 체계

- 멕시코 상품분류는 '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116개의 FRACCION으로 세분된다.
- 2010년 5월 기준 12,11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관세율은 5.2%, FTA 및 각종 경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95%, 산업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 관세율은 3.4%이다.
-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킬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 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책자를 참고해야 한다.

나. 멕시코 관세율 사이트

-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 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동 사이트의 경우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 국가(한국)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 DIA 사이트의 경우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의 경우 관세검색 내역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 경제부: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 DIA: <http://www.diaenlinea.com.mx/>, <https://www.datacomex.com.mx/>
 - 스페인어를 선택한 후에, 왼쪽 메뉴 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 를 선택하고, HS CODE 를 넣고 검색하면 수입관세가 나오는 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 한국에 해당하는 관세이다.

경제부 사이트 관세 설명(예)

Aranceles a la importación aplicados por México a: 멕시코 수입 관세율			
Socios comerciales (tarifa mexicana): FTA 체결국가			
TLCAN (NAFTA)	EE.UU.	Canadá	
	Ex.	Ex.	
Triángulo del Norte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Ex.	Ex.	Ex.
Centroamérica (중미)	Costa Rica	Nicaragua	
	Ex.	Ex.	
G - 3	Colombia	Venezuela	
	Ex.	Ex.	
América del Sur (남미)	Chile	Uruguay	Bolivia
	Ex.	Ex.	Ex.
Unión Europea (EU)	Unión Europea		
	Ex.		
AELC (ECLA)	Noruega	Suiza	Islandia
	EXCL	EXCL	Ex.
Israel (이스라엘)	Israel		
	EXCL		
Japón (일본)	Japón		
	Ex.		
Países no socios: FTA 미체결 국가			
Arancel Nación Más Favorecida (NMF): 10 % : MFN 적용 국가 세율 10%			

주: EX- 0%, EXCL- 협정에서 제외

자료: 경제부 사이트

6. 주요인증제도

가. 멕시코 공식표준(NOM) 마크 제도 개요

1) 제도의 성격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2) 운영배경 및 목적

□ 운영배경

- 대내적 요인
 -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대외적 요인
 - 경제개방 조치 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운영목적

- 소비자 보호 차원
 -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상품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와 제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한다.
- 산업정책적 차원
 - NOM 획득 품목과 비 획득 품목을 차별화함으로써 멕시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신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3) 규제지역 (제도 적용지역)

NOM 마크 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NOM 마크 획득 여부 심사는 관세국(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내국 생산품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청(PROFECO)에서 NOM 마크 획득여부를 심사한다.

4) 제도 주요내용

□ 안전검사대상 제품 및 라벨링 대상 제품 이원화 운영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멕시코는 동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안전검사대상 제품: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 라벨링 대상 제품: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나. NOM마크 제도 운영기관 및 방법

1) 주관기관 및 연락처

- 주관: 경제부 표준국(DGN / DIRECCIÓN GENERAL DE NORMAS)
 - 주소: AV.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NAUCALPAN DE JUAREZ, ESTADO DE MEXICO, MEXICO
 - TEL: (52-55) 5729-9300 (Ext. 43241), FAX : 5520-9715
 - WEB: <http://www.economia.gob.mx/?P=85>
 - E-MAIL: lurquiza@economia.gob.mx
 - 담당: C. CIRO LOPEZ URQUIZA(JEFE DE DEPARTAMENTO DE CONTROL DE DOCUMENTOS Y DATOS)

2) 검사 및 시험기관

□ 개요

- 검사·시험 기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OM 마크 신청 시 안전검사 또는 라벨링 검사 등과 함께 NOM 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INSTITUTO DE CERTIFICACIÓN)과 NOM 신청 예비 단계로 이용하게 되는 실험소(LABORATORIO)로 구별된다. 인증 기관과 실험소는 공히 경제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다.
- NOM 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NYCE),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ANCE), 건축자재 표준화 인증기구(ONNCCE), 데킬라 규제원(CRT) 등이 있으나 ONNCCE 는 비 강제검사제도인 NMX(NORMA MEXICANA) 마크제도 위주로 운영되며, CRT 는 데킬라 단일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관련 주요 NOM 인증 기관은 NYCE 와 ANCE 2 대 기관을 꼽을 수 있다.
- 강제검사제도 예비단계로서의 실험소는 다시 시험소(LABORATORIO DE PRUEBAS)와 계측소(LABORATORIO DE CALIBRACIÓN)로 대별되며, 관련 업체나 협회 등이 실험소로 지정된다.

□ 주요 검사, 시험 기관명

-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니체)
 -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ELECTRÓNICA, A.C.(NYCE)
 -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 관련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 시행 및 NOM 발급을 담당한다.
-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안씨)
 -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DEL SECTOR ELÉCTICO, A.C(ANCE)
 - 전기제품, 가스 관련제품, 가정용 기기 등 분야 검사 시행 및 NOM 발급을 담당한다.

□ 연락처

- NYCE(니체 / 전자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 주소: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CO, 11200, MEXICO D.F.
 - TEL: 52(55) 5397-0777
 - FAX: 52(55) 5397-0777(전화 팩스 동일)
 - E-MAIL: nyce@nyce.org.mx
 - WEB: <http://www.nyce.com.mx/>
 - 담당: ING. GERMAN FLORES Y GOMEZ
- ANCE(안씨 / 전기부문 표준화, 인증 협회)
 - 주소: AV. LAZARO CARDENAS 869, COL.NUEVA INDUSTRIAL VALLEJO, 07700, MEXICO. D.F.
 - TEL: 52(55) 5747-4550
 - FAX: 52(55) 5747-4560
 - WEB: <http://www.ance.org.mx/ie/index.asp>
 - 담당: Ricardo A. Hernández Márquez

3) 검사 및 시험기관 이용방법

□ 국외에서 이용하는 방법

-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을 세워야 한다. 법정대리인으로는 동분야 전문 법률사무소(BUFETE)를 주로 이용한다.

□ 검사, 시험 소요 기간

- 안전검사 대상품목(NORMA DE SEGURIDAD)
 - 검사 대상품목이 신제품인 경우
 - DGN 이나 NYCE, ANCE 는 공히 인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검사 완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단, 제출 서류에 하자(DEFICIENCIA)가 없어야 하는데, 하자 발견 시 미비점을 적시하여 반송된다.

-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등인 경우
- 공히 인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검사완료, 인증서가 발급된다.
- 제출서류상 하자 발견 시 미비점 적시, 반송된다.
- 라벨링(상업정보) 검사품목(NORMA DE ETIQUETADO)
 - ANCE: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 완료된다.
 - NYCE: 검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 완료된다.
 - DGN: 표준국에서는 라벨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ANCE 와 NYC 에서 대행 처리한다.

□ 검사·시험 비용

- 안전검사(CERTIFICACION)의 경우
 - 검사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NYCE 의 경우 최저 \$1,835 페소(141 달러)에서 최고 \$3,560 페소(273 달러)가 소요된다.
 - ANCE 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1,948 페소(149 달러)에서 최고 \$3,898 페소(299 달러) 소요된다.
 - DGN 은 평균 \$1,917 페소(147 달러)소요되나,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라벨링(상업정보) 검사(VERIFICACION)의 경우
 - NYCE 는 \$398 페소(약 30 달러), ANCE 는 \$615 페소(약 47 달러)
 - \$는 멕시코 페소화 단위 표기이다. 미 달러화는 U\$로 구분 표시한다.
- 시험소 검사(PRUEBA DE LABORATORIO) 비용
 - 품목별로 비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1,000-20,000페소 범위 내에서 결정되나 1,600 ~5,500페소가 일반적이다.

다. NOM 마크 신청절차

1) 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 대표준국 (DGN) 신청 시 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 검사 서비스료(인지대) 납부 영수증 (COMPROBANTE DE PAGO DE DERECHOS) 원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의견서 (DICTAMEN)
- 각 NOM 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 (DOCUMENTACIÓN TÉ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릿 또는 제품사진, 기술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 (DIAGRAMA ELÉ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 (DECLARACIÓN)
 - 신청 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 대 NYCE 및 ANCE 신청 시 서류

- 안전검사(CERTIFICACIÓN) 신청 시: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의 경우
 - 안전검사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안전검사 신청 계약서(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L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인시험소(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INFORME DE PRUEBA) 또는 소견서(DICTAMEN)
 - NOM 신청 전에 견본품(3 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 보고서를 사전에 득한 후 NOM 신청서 등 여타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ANCE, NYCE)에 제출한다.
 - 각 NOM 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DOCUMENTACIÓN TÉCNICA)
 - 작동·서비스 지침서(INSTRUCTIVO) 및 편람(MANUAL)
 - 팜플렛 또는 제품사진, 기술사양서(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 명세서, 품질 보증서
 - 제품 전기 도해표(DIAGRAMA ELÉ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 품종 선언서(DECLARACIÓN)
 - 신청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또는 단종품인지 여부 명기 및 동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한 서류
- 라벨링 검증(VERIFICACIÓN) 신청 시: 라벨링 요건 품목 (NORMA DE ETIQUETADO)의 경우
 - 라벨링(상업정보)검증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 VERIFICACIÓN DE INFORMACIÓN COMERCIAL)
 -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VERIFICACIÓN DE ETIQUETADO)
 -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 (CEDULA DE RFC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안전검사나 라벨링 검사 신청 모두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CARTA PODER) 추가 필요

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 평가방법 (평가유형)

- 예비평가의 경우에는 서류채취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 평가 시에는 서류심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 일단 NOM 을 획득한 뒤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평가는 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 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된다. 공장 방문(내국산의 경우) 내지 창고방문, 판매현장방문(수입품의 경우)의 형태로 이루어지되 사전통지 후 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진다.

□ 승인절차(NOM 획득절차)

- 예비신청
 - NOM 을 획득하고자 할 때 내국산의 경우에는 통산부 지정 품목별 공인시험소에 바로 시험 의뢰를 하면 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DGN 등 NOM 발급기관에 견본 수입 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 견본 수입수량은 품목별 해당 NOM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3 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시험소 검사 의뢰용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견본수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기관 별 견본수입 허가신청은 아래와 같이 실시된다. 시험소는 해당 공인시험소 중 1 개 처를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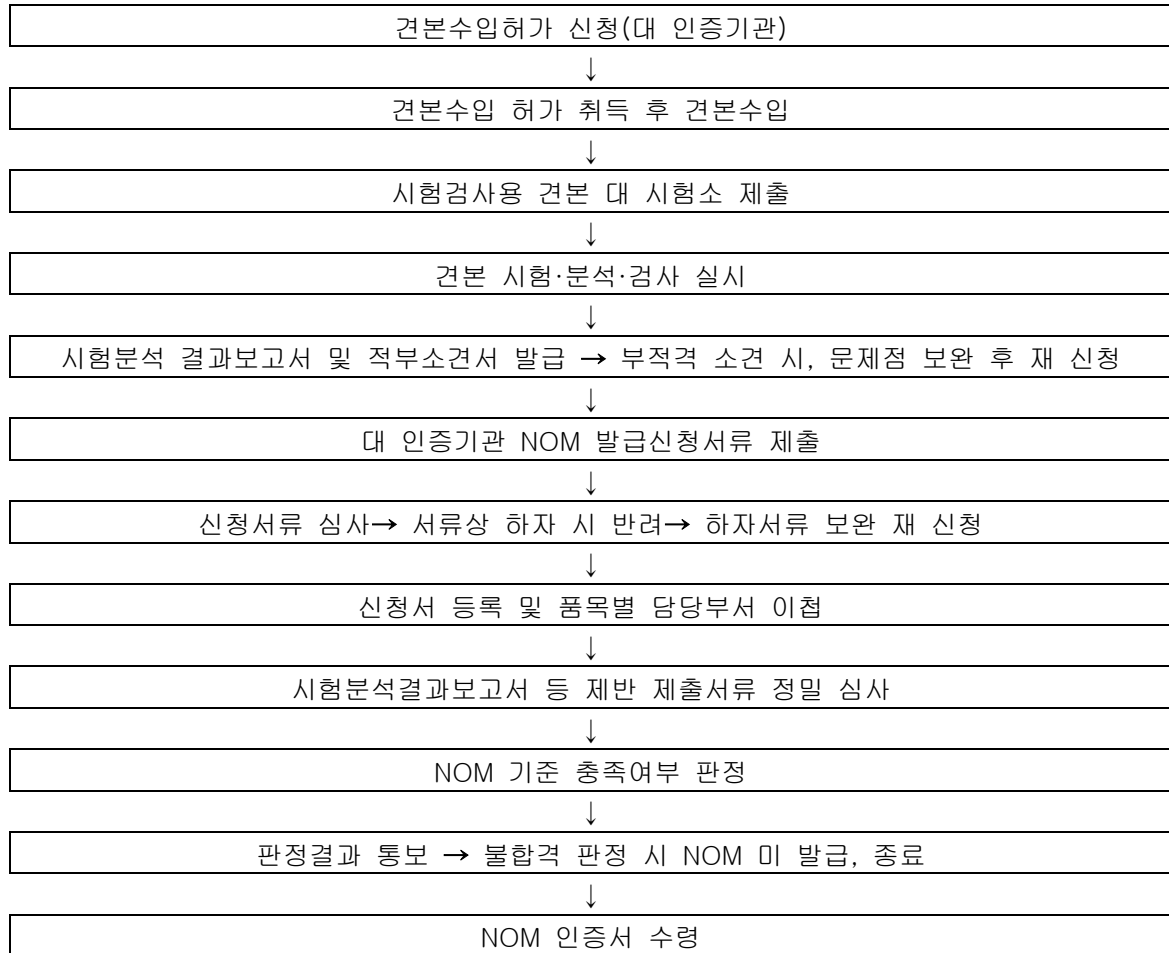
기 관	제출 서류	신청수수료(품목당)	처리기간
DGN	신청회사 레터헤드지상신청서	\$ 261페소	7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	\$ 220페소	24시간 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	\$ 289페소	24시간 이내

자료: 경제부

동 신청서상에는 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 세관명, 견본 개수, 선택 공인시험소명 등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승인을 득하면 견본을 들여와 기신고한 공인시험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한다.
- 예비평가
 - 표본검사를 의뢰 받은 공인시험소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면밀분석 및 적부 소견서를 작성 한다.
 - 기준미달 불합격 시에는 의뢰자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달내용을 적시(摘示)한다.
 - 의뢰자에게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및 적부소견서를 발급한다.
- 본 신청
 -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출두하여 각종 NOM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본 평가
 - 인증기관은 제출된 제반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하자가 없을 경우 소관 부서로 이첩된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시험분석 결과 보고서 등 모든 서류 면밀 검토 및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 제품의 품질 및 특성뿐 아니라 생산과정, 유통 및 A/S, 참고 보관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평가회의
 - 평가종료 후 최종판정에 앞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의뢰자 또는 대표자를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행하여 의문점을 해소한다.
- 승인서 교부
 - 기준 충족 판정 시 NOM 인증서를 발급 및 교부한다. 미 충족 시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 통지서 발부, 미비점 보완 후 재 신청을 유도한다.
- 정부 관련 사이트
 - <http://www.economia.gob.mx/?P=85>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993>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204#Normalización>

□ 절차도



7. 지적재산권

1994년 지적재산권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과거의 관련법에 비해 특허권 부여대상 확대 및 여타 보호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지적소유권 보호환경이 한층 개선되었다. 멕시코는 세계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 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서 특허관련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이후 18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간 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나. 상표

상표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만료기간 이후 6개월 내에 재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되므로 반드시 재등록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 양식은 멕시코 특허청 사이트(www.impi.gob.mx)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회사명 등록도 상표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상표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상표 등록 절차

- 상표 기 등록 여부 확인
 -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기존에 이미 등록돼 있는지 발음 및 문자가 매우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여부 확인은 특허청 사무실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동 서비스 수수료는 약 100페소(10달러)이며, 5~10분 정도 소요된다.
 - 상표권 등록 신청
 - 상표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최고 6개월 내에 상표를 등록한 후 수락내용의 광고를 게재 한다.
 - 상표 등록 신청 후에 진행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marcanet.impi.gob.mx/marcanet/controler/TramiteExpedienteBusca>

2) 상표등록 유효 기간: 10년

-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후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취소된다.

3) 상표등록 신청비(1건당): \$2,493(페소)

종 류	수수료(페소)
상표(marca) 등록	\$2,303.33
상표(marca) 등록 갱신	\$2,433.41
광고문구(avisos comerciales) 등록 예) Nike의 Just do it	\$614.77
광고문구(avisos comerciales) 갱신	\$730.24
회사명(nombre comercial) 등록	\$528.37
회사명(nombre comercial) 등록 갱신.	\$645.81

주: 멕시코 특허청

4) 상표 등록 시 필요서류

- IMPI-00-006서류를 4부 작성 제출
 - 이 서류는 특허청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www.impi.gob.mx)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아래 제출과는 별도로 각 신청서마다 상표를 붙여야 한다.
 - 로고 등록 시 6개의 로고를 제출해야 하며 크기는 4x4cm 이상 10x10cm 이하여야 한다.
 - 3차원 상표 등록 시에는 크기 4x4cm 이상 10x10cm 이하의 사진 6장을 제출해야 한다.
 -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고 위임장에 본인 및 대리인 서명, 2명의 증인 이름 및 주소 등을 적어 제출한다.

5) 형태

- 상표는 상표명, 로고, 혹은 상표명 로고 결합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 가능하다.
 - 상표명(Nominativa): 상표 이름만 등록(예: Nike)
 - 로고(Innominada): 로고만 등록(예: Nike의 로고 그림)
 - 상표, 로고 결합(Mixta): 상표 이름 및 로고 둘 다 등록

6) 상표권 관련기관

- 멕시코 특허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권 담당국(Direction Divisional de Marcas)
 - 주소: Arenal 550, 3er Piso, Colonia Tepepan Xochimilco, Delegacion Xochimilco, C.P. 16030, Mexico, D.F.
 - 전화: (52-55) 5334 - 0700(EXT. 5180, 5181)
 - E-메일: buzon@impi.gob.mx, 웹사이트: www.impi.gob.mx

<참고: 지적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채재산 또는 지적재산 이라한다. 멕시코의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예술/문학/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저작권과 특허권, 의장/다지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원산지표시, 영업비밀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리고 특허와는 다른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형태로 신제품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식물 신제품 보호권이 있다.

가. 저작권 (Derecho de Autor / Copyright)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성과인 문학/예술작품 등의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 (Autor de Obra) 혹은 그 권리 승계인이 주장 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이 표현형식과 특정 기술적 사상에 대한 발명을 보호한다면 저작권은 사상 및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창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저작권은 심사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관리청에 일정 등록이 없이도 보호를 받으나 등록을 해야 제 3 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저작물 (Obra)

멕시코 저작권법 제 13 조 에서는 문학/예술작품, 음악, 드라마, 무용, 회화 /미술작품, 조각/모형작품, 만화, 건축, 연극, 영화 및 영상 창작,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진작품, 의류/그래픽디자인 및 백과사전, 문집과 같은 각종 작품 모음집 등 그 외 창작물들을 저작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저작자의 권리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저작권 중 인격권 (Derecho Moral)으로 이는 저작자만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일신전속적인 영구적인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불가능하고 만료기간/시효가 없으며 취소불가능하고 압류가 불가능한 성격을 취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둘째로, 저작권 중 다른 하나인 재산권은 (Derecho Patrimonial) 저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경제적 권리이며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로써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 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에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이를 양도 할 수 없다. 저작권 및 저작권을 양도하는 각종 계약서를 저작권관리청의 저작권등기소 (Registro Publico del Derecho de Autor)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일생동안, 그리고 사후 100 년간 존속하며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사후 출판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첫 출판일로부터 100 년간 지속된다.

3) 저작권관리청

멕시코에서 저작권은 교육부(SEP)산하의 저작권관리청(Instituto Nacion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담당하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증진, 창작물의 증진, 저작권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Derecho de Autor)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자는 문학/예술작품, 음악, 드라마, 무용, 회화 /미술작품, 조각/모형작품, 만화, 건축, 연극, 영화 및 영상 창작,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진작품, 의류/그래픽디자인 및 백과사전, 문집과 같은 각종 작품 모음집 등 그 외 창작물을 저작권관리청에 등록하여 더 안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SBN (Número Internacional Normalizado del Libro) 국제표준도서번호는 Agencia Nacional ISBN México 에서 받을 수 있으며, ISSN (Número Internacional Normalizado para Publicaciones Periódicas)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Centro Nacional ISSN México 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두기관은 저작권관리청 산하에 있어 주소는 동일하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이메일: isbn_issn@sep.gob.mx, lnava@sep.gob.mx, jsanchezs@sep.gob.mx
- 전화: 3601 82 06, 3601 10 00 ext. 28052, 28053, 28054, 28055

4) 저작인접권 (Derechos Conexos)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는 실연자, 음반 제조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5) 독자적 캐릭터 (Reservas de Derechos al Uso Exclusivo)

연방저작권법 173 조에 의거 소설이나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공적 인물 뿐만아니라 실제인물인 스포츠선수나 연애인 및 예술인들의 캐릭터를 보호한다. 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저작권 위탁관리업 (Sociedades de Gestion Colectiva)

저작권자는 개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 혹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리행사의 대리 혹은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저작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분쟁의 조정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이란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서,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Junta de Avenencia)나 중재위원회 (Arbitraje)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 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화해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우선 저작권관리청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하며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재는 중재 위원회가 중재과정 중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산업재산권 (Propiedad Industrial)

산업재산권은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의장)권, 상표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의 기본적인 등록요건은 권리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이 있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 등록여부가 결정이 된다.

1) 특허 (Patentes)

특허권의 부여는 신기술의 발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특허권의 제품 및 제조과정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이용/사용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타인에게 처분/양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은 특허권 관련 국가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이내에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해당국(제 3국)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동 시간이 경과하면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이 멕시코에 수출이나 투자 시에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반드시 출원/등록을 받아야만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해외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에 따른 출원절차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로 인한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멕시코 특허청(IMPI) 역시 특허출원 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출원인의 의사와 심사 절차의 진행현황과는 관계없이 일반 공중에게 그 특허출원의 내용을 알리는 출원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공개기간 (18개월) 이전이라 할지라도 출원인이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 공중에게 특허청관보 (Gaceta del IMPI)에 공보하여 특허출원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증을 획득하기 까지는 통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2-3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인정되면 출원일부터 연장불가 조건으로 20 년간 독점권의 보호를 받으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공익으로 환원된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식물 및 동물의 생식을 위한 생물학적 주요 과정, 생물학 및 유전자적 물질, 동물 종족, 인체 및 생명이 있는 신체 부위, 식물 등을 제외하고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료는 15% IVA 불포함 \$7,577.39 페소, 특허권 관보 공고료는 \$1,182.61 페소, 그리고 특허증 발급료는 \$2,767.83 페소이다.

2) 실용신안 (Modelos de Utilidad)

실용신안권은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보호/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든 권리로서 특허의 발명처럼 기술적 창작의 진보성/고도성은 요구하지 않으며 신규성과 산업적 응용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는다. 멕시코에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 년으로써 연장은 불가하다. 실용신안등록 출원료는 15% IVA 불포함 \$1,899.13 페소이고 실용신안증 발급료는 \$591.30 페소이다.

3) 산업디자인/의장 (Diseños Industriales)

디자인은 제품의 내부구성이나 작동원리 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물품의 외관상 나타나는 미감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 형상, 도안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며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 할 때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멕시코에서 산업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도안과 색채의 결합을 통해 고유하게 제작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 도면(Dibujo Industrial)과 제품의 입체형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 모델(Diseño Industrial) 로 분류된다.

멕시코 특허청(IMPI)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등록을 마치면 출원일로부터 15 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은 불가능하다. 디자인등록 출원료는 실용신안등록 출원료와 동일하여 IVA 불포함 \$1,899.130 페소이고 사용자 인증서 발급료는 \$591.30 페소이다.

4) 상표권 (Marcas)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 또는 심벌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상표권은 자사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는 기본적 기능과 품질보증기능, 출처표시기능, 광고선전 기능, 신용보증기능 및 소비자 보호기능, 재산적기능 등 파생적기능을 갖고있다.

멕시코에서 상표등록 형태는 상표명(Nominativa), 로고(Innominada), 상표명과 로고 결합(Mixta) 혹은 입체상표(Tridimensional) 등 4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 멕시코에서 상표등록 출원후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기까지는 대략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등록 진행상황은 인터넷 관련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에 대한 법적보호는 상표등록출원 신청일 부터 법적보호를 받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후로 동기간으로 연속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권리를 자동 상실하기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 등록 출원료는 15% IVA 불포함 \$2,167.83페소이며 갱신료는 \$2,526.09 페소이다.

□ 단체표장 (Marcas Colectivas)

단체표장이란 각종 조합, 협회 등 일정한 목적 하에 구성된 생산/제조업체 혹은 서비스 업체들의 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상업광고상표 (Avisos Comerciales)

상업광고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업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알리는 상업적 광고 목적의 구획 또는 문장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Nike 의 Just do it!이 있다. 동 상업광고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료는 IVA 불포함 \$358.26 폐소이고 갱신료는 \$179.13 폐소이다. 법적 보호기간은 10 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 상호명 (Nombres Comerciales)

회사나 사업/영업장에 대하여 도안이 포함된 상호명을 타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다. 멕시코 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동 상호명의 보호범위는 실제적인 고객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포함하며, 특별한 경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동 서비스 사용자는 신의성실한 상호명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 대신 특허청관보에 공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독점적인 상호명을 사용하는데 있어 좀 더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보에 공보한 효력은 10 년간 유효하며 갱신도 가능하다. 특허청관보 공보료는 \$358.26 폐소이며 갱신료는 \$179.13 폐소이다.

5) 영업 비밀/노하우 (Secretos Industriales)

영업 비밀 (Secretos Industriales)은 경제 활동에 있어 경쟁적/경제적 우익을 유지 및 획득하기 위한 모든 기밀 정보를 말하며 이는 기술의 정보와 영업상의 정보로 나누고 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을 각각 그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상의 정보는 성분, 처방, 제조방법, 제조공정, 설계도, 청사진, 도면, 실험 및 검사방법, 편집기술, 신제품의 정보, 조리법등을 들 수 있으며, 영업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유통 및 마케팅의 방법 및 형식, 사무실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의 구입처, 가격표, 입찰계획, 판매통계, 재산명목, 합병계획, 광고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 산업재산권법에선 영업 비밀을 규정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소유주는 기밀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기밀', '비밀'이라는 라벨을 붙여 문서, 전자 혹은 마그네틱 매체, 시각적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혹은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내 영업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과는 기밀 협약을 체결 후 공개해야 하며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줄 수 있으나,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영업 비밀은 멕시코 특허청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호기간도 영업 비밀이 누설되기 전까지 무제한이다.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있을때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연방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6) 지리적표시제 (Denominación de Origen)

지리적표시제란 지리적으로 그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 혹은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임으로 보르도 '스카치' '테킬라'처럼 지역명이나 품의 명성·품질 등과 직결될 경우 이를 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WTO 협정에 의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다. 멕시코는 리스본 협정의 당사국이며, 지리적표시제 등록권한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특허청(IMPI)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신청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특허청은 그의 사용권을 일정요건을 충족한 일반 개인 혹은 법인에게 10 년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료는 15% IVA 불포함 \$1,468.70 페소이고 사용허가인증서 및 연장료는 \$645.22 페소이다.

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Esquemas de Trazado de Circuitos Integrados)

특허권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로배치 설계부분을 보호하기위하여 새로이 탄생한 권리가 배치설계권이다. 배치설계권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회로소자와 연결도선의 배치설계도면이나, 실질적인 보호대상은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칩, 반도체칩이 내장된 최종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등)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보호제도는 집적회로 배치도 또는 배치설계가 원본이어야 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처음 사용 날로부터 2 년간의 출원유예제도가 있으며, 알려진 원본의 설계는 모두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 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며 배치설계권자는 회로배치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수입, 판매 혹은 승인없이 배포하는 것을 금지 시킬 권리가 있다. 신청등록 수수료는 15% IVA 불포함 \$2,489.57 페소이다.

다. 연방식물품종보호법 (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ales)

식물의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 (Obtentor)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농림수산부 (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on-SAGARPA) 산하의 국립 종자 검열 및 확인 서비스국 (Servicio Nacional de Inspeccion y Certificacion de Semillas-SNICS) 에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있다. 품종보호출원일이 아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 부처 일반적으로 15 년 동안 권리를 보호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항공 및 육상 운송 제품의 경우 2일간은 부과되지 않으며, 해상 운송은 5일 동안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수수료(servicios de manejo)는 지불하게 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 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멕시코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물 검사는 통관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 시 통관사 또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적색 불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한다. 적색불의 확률은 보통 10% 수준이나 한국 등 아시아산 수입물품은 품목에 따라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화물검사가 불가피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통관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5시간 정도이나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통관 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ÓN), 상업송장(factura comm. Ercial), 선하증권,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제증명서(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 등이 있다.

1) 통관 절차도

통관사 선정 → 수입면장 작성 → 제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검토 → 화물검사 여부 결정
→ 화물 검사 → 화물 인수

통관은 직접 개인이 해도 무방하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통관 비용 및 소요시간

멕시코 통관사를 통해 화물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에 상관 없이 인보이스 금액의 0.45%에 해당하는 통관비와 서비스료 1,500~3,000 페소가 소요된다. 부산항에서 선적, 태평양의 만사니요(Manzanillo)항에 도착하는 경우 직항은 최단 14일이 소요되며 일본, 미국 등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소요된다.

3) “아시아산 제품 대상 자동수입신고제도 (API)” 폐지(1998.8.27일부터 발효)

2008년 6월 이전에는 섬유, 의류, 장난감, 공구류 등 74개 품목에 대한 아시아 상품 수입상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멕시코 영토 내에 상륙하기 전에 경제부에 수입 신고를 필해야 하며, 경제부가 발행해 주는 수입신고필 확인서(ACUSE DE RECIBO) 사본을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ÓN)과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했었다.

동 제도는 중국,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특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는데 2008년 6월에 통관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아시아산 섬유, 의류, 장난감, 공구류에 대한 특별 원산지 규정이 폐지되고, 일반 원산지 규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산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었던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운송

1) 멕시코 공항 개황

멕시코에는 56개의 국제공항과 29개의 국내공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이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공항이다.

주명	국제공항	국내공항
AGUASCALIENTES	1	1
BAJA CALIFORNIA	3	2
BAJA CALIFORNIA SUR	3	2
CAMPECHE	2	0
CHIAPAS	2	4
CHIHUAHUA	2	3
COAHUILA	5	1
COLIMA	1	1
DF	1	0
DURANGO	1	0
GUENAJUATO	1	1
GUERRERO	2	0
HIDALGO	0	2
JALISCO	2	0
México	1	1
MICHACAN	1	4
MORELOS	0	1
NAYARIT	1	0
NUEVO LEON	2	1
OAXACA	3	2
PUEBLA	1	1
QUERETARO	1	0
Q ROO	7	9
SLP	1	3
SINALOA	3	1
SONORA	3	5
TABASCO	1	15
TAMAULIPAS	5	0
TLAXCALA	0	1
VERACRUZ	1	3
YUCATAN	2	4
ZACATECAS	1	1
전체	60	69

자료: 교통통신부, 2011.4

2) 멕시코 무역항 개황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만사니요(Manzanillo) 항을 통해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 무역항

카리브, 대서양 방면	태평양 방면
ALTAMIRA, TAMPS.	GUAYMAS, SON.
CAYO ARCAS, CAMP.	ISLA DE CEDROS, B.C.
DOS BOCAS, TAB.	LAZARO CARDENAS, MICH.
PAJARITOS, VER.	MANZANILLO, COL.
PUNTA VENADO, Q. ROO	MAZATLAN, SIN.
TAMPICO, TAMPS.	SALINA CRUZ, OAX.
TUXPAN, VER.	TOPOLOBAMPO, SIN.
VERACRUZ, VER.	ENSENADA, B.C.
COATZACOALCOS, VER.	SAN CARLOS, B.C.S
FRONTERA, TAB.	LA PAZ, B.C.S.
CIUDAD DEL CARMEN, CAMP.	ACAPULCO, GRO.
PROGRESO, YUC.	SALINA CRUZ, OAX.
PUERTO MAELOS, Q. ROO	PUERTO MADERO, CHIS.

자료: 교통통신부 2011.4

주요 무역항별 물류 비중

순위	항구명	주	물동량(톤)	비중(%)
1	Cayo de Arcas	Campeche	48,664,121	17.89
2	Coatzacoalcos	Veracruz	34,873,345	12.82
3	Lázaro Cárdenas	Michoacán	27,827,625	10.23
4	Manzanillo	Colima	21,996,888	8.09
5	Veracruz	Veracruz	17,604,914	6.47
6	Isla de Cedros	Baja California	13,673,799	5.03
7	Altamira	Tamaulipas	14,711,409	5.41
8	Salina Cruz	Oaxaca	12,975,004	4.77
9	Dos Bocas	Tabasco	12,545,389	4.61
10	Tuxpan	Veracruz	10,488,963	3.86
	기타		56,653,595	20.83
	총계		272,015,052	100.00

자료: 교통통신부, 2011.4

3) 운송회사

BANCOMEXT 사이트 소개, 회사 중심

- Naviomar, S.A de C.V.
 - 주소: Unión No.2 Col. Escandon, México 11800 D.F.
 - Tel: (52 55) 5091-4800
 - Fax: (52 55) 5091-7088
 - E-mail: sarayo@naviomar.com.mx
 - <http://www.naviomar.com.mx>
 - 담당자: Lic. Sara Yolanda Gómezortizoga

- Sistemas kinedyne S.A de C.V.
 - 주소: Calzada de las Armas No. 130-A, Col. Industrial las Armas, Tlalnepantla, Edo. de México, C.P. 54080
 - Tel.(52 55)5318-4844 / Fax:(52 55)5318-4215,
 - E-mail: sistemas@kinedyne.com.mx
 - <http://www.kinedyne.com.mx>

- Grupo TMM, S.A de C.V.
 - 주소: Av. de la Cúspide #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México D.F.
 - Tel: (5255) 5629 8866 / Fax: (5255) 5629 8899
 - E-mail: webstaff@tmm.com.mx
 - <http://www.tmm.com.mx>

-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 Tel: (5255) 50390600, 50390690, 50390692, 50390694, 50390696
 - E-mail: ventas@tum.com.mx
 - <http://www.tum.com.mx>

-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 주소: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D.F. 10200
 - Tel: (5255) 5595 00 73 / Fax. (5255) 5957450, 59577456
 - E-mail: acon@agnamex.com.mx
 - <http://www.agnamex.com.mx>

- Grupo Pondisa S.A. DE C.V.
 - 주소: Francisco I. Madero, esquina Morelos S/N Col. San Francisco Chilpan, Tultitlá, Edo. de México, C.P. 54940,
 - Tel: (5255) 58999994
 - E-mail: comercial@pondisa.com
 - <http://www.pondisa.com>

-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 주소: Av. D No.2000, Col. Central de carga, C.P. 67110, San Nicolas de los Garza, Nuevo León.

- Tel: (5281) 3774563, 3774812, 3774823, 3774818 / Fax: (5281) 3344664
- <http://www.tn.com.mx>

○ Savino del Bene Mexico S.A. de C.V.

- 주소: Insurgentes Sur No. 800 Piso 15 local 1 & 11, Col. Del Valle C.P. 03100, D.F. México
- Tel: (52 55)52.86.30.18 / Fax :(5255) 52.12.03.89
- E-mail: tscarinzi.mex@sdb.net
- <http://www.savinodelbene.net>

4) 통관서비스 회사

○ Agencia Aduanal de América

- 주소: Poniente 150-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D.F.
- Tel: (52 55) 8503 32 00 / Fax: (52 55) 85 03 32 01
- E-mail: rnavarro@aaamerica.com
- <http://www.aaamerica.com.mx>
- 담당자: Ricardo Navarro(CEO)

○ Revisa

- 주소: Varsovia No.22, piso 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D.F.
- Tel: (52 55) 52 07 76 20
- Fax: (52 55) 52 07 21 05
- E-mail: jnavarrete@ravisacom.com
- <http://www.ravisacom.com>
- 담당자: Juana Navarrete (CEO)

○ Roberto Ugarte

- 주소: Sacramento 305-A, Insurgentes, C.P. 03220, México, D.F.
- Tel: (52 55) 56 87 34 44
- Fax: (52 55) 55 36 49 82
- E-mail: rugarte@robertougarte.com
- <http://www.robertougarte.com>
- 담당자: Roberto Ugarte Romano (CEO)

○ Cabezut Grupo Mexicano

- 주소: Reforma No. 509, Piso 7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 55) 52 07 38 66
- E-mail: rrodriguez@cgrupomexicano.com
- <http://www.cgrupomexicano.com>
- 담당자: Roberto Rodríguez (Director Comercial)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

1) 미국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

멕시코는 미국 및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조립,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전 세계 44개국과 FTA 체결

멕시코는 NAFTA(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중남미 G3 국가, 일본 등 전 세계 44 개국과 12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3) 전 세계 21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멕시코는 한국, 중국을 비롯해서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22 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4) 성장하는 내수시장

인구 약 1억 1,000만 명인 멕시코는 국민의 다수가 빈곤층('09년 1인당 GDP 7,744달러) 이어서 구매력이 크지 않지만, 중남미 국가들 중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나. 투자 단점

1) 높은 공공요금

멕시코는 전기, 가스 등 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이다.

2)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기대보다 높은 인건비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미국보다는 인건비가 낮지만,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위해서 멕시코 투자를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경지역의 인건비는 멕시코 평균임금보다 높고, 업체들 간에 노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한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4)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한 법규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법규 등이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투자 유망 산업

1) 자동차부품 산업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약 155만 대('09년)이다. 이 중 81%가 수출되었으며, 그 중 72.5%는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멕시코의 완성차 조립공장 소재지



자료: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 (AMIA)

GM, FORD, NISSAN, VOLKSWAGEN, DAIMLERCHRYSLER 등이 추가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미국 경기 회복 영향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10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가량(60만대) 늘어난 210만대로 전망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멕시코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의 조립공장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1차 벤더 345개사를 포함하여 약 1,000여 개 사에 달한다.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자동차부품 회사의 21%가 소재하고 있으며 멕시코 주에 20%, 북동부 누에보레온 주에 20%가 집중해 있고, 기타 완성차 조립공장 주변에 집중해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는 금년 1월 들어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용도 증진되고 있으며, 부품 업체들의 가동률도 50%에서 55%로 늘어나면서 작년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부품 분야가 금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 5억불 정도를 투자하여 신규수요에 대처하고 국내 내수시장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으로 수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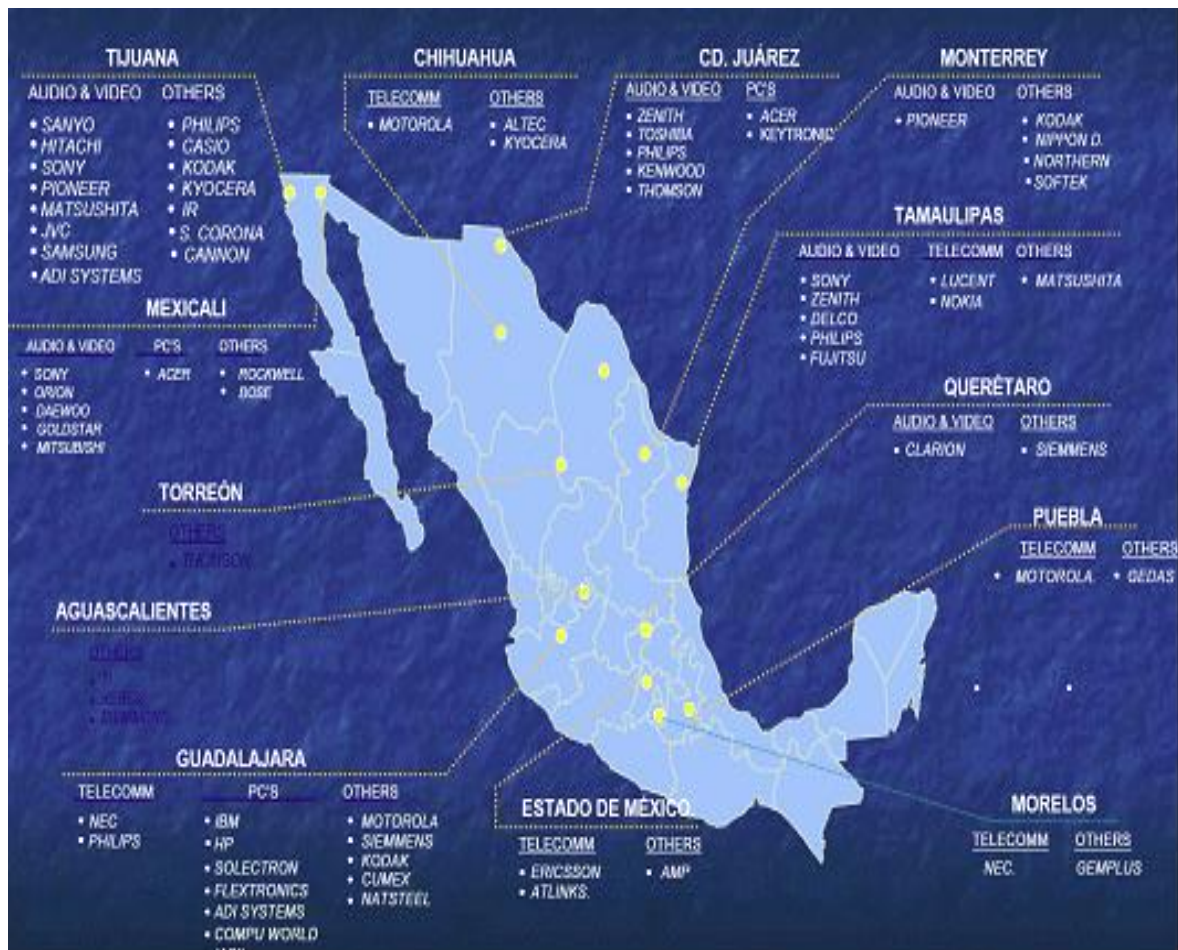
기존에 진출해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들이 멕시코 내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있고, 현대 자동차의 알라바마 공장 가동, 기아자동차의 조지아 주 공장 설립과 더불어 도요타는 텍사스 산 안토니오에 공장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OEM에 납품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라면 멕시코를 투자지로 고려할 만하다. 특히 생산품목이 노동 집약적이라면 임금 수준이 미국의 1/3에 불과한 멕시코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투자지역 고려 시 고객사가 소재한 곳과 가까운 곳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을 겨냥하여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누에보레온 주와 따마울리빠스 주를 후보지로 생각할 수 있다. 누에보레온 주는 비록 완성차 조립공장은 없지만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관련 산업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 따마울리빠스 주는 국경도시인 마따모로스, 레이노사, 누에보라 레도를 중심으로 미국소재 기업에 대한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후보지이다.

한국산 자동차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 멕시코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들은 원활한 부품 공급 및 FTA수혜를 위한 원산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지 부품업체들 또는 FTA 체결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애프터마켓은 여전히 성장 여지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품질이 우선시되는 전자부품 등의 경우 진출가능성이 있다.

2) 전기전자산업

멕시코에 투자 진출한 주요 전기, 전자회사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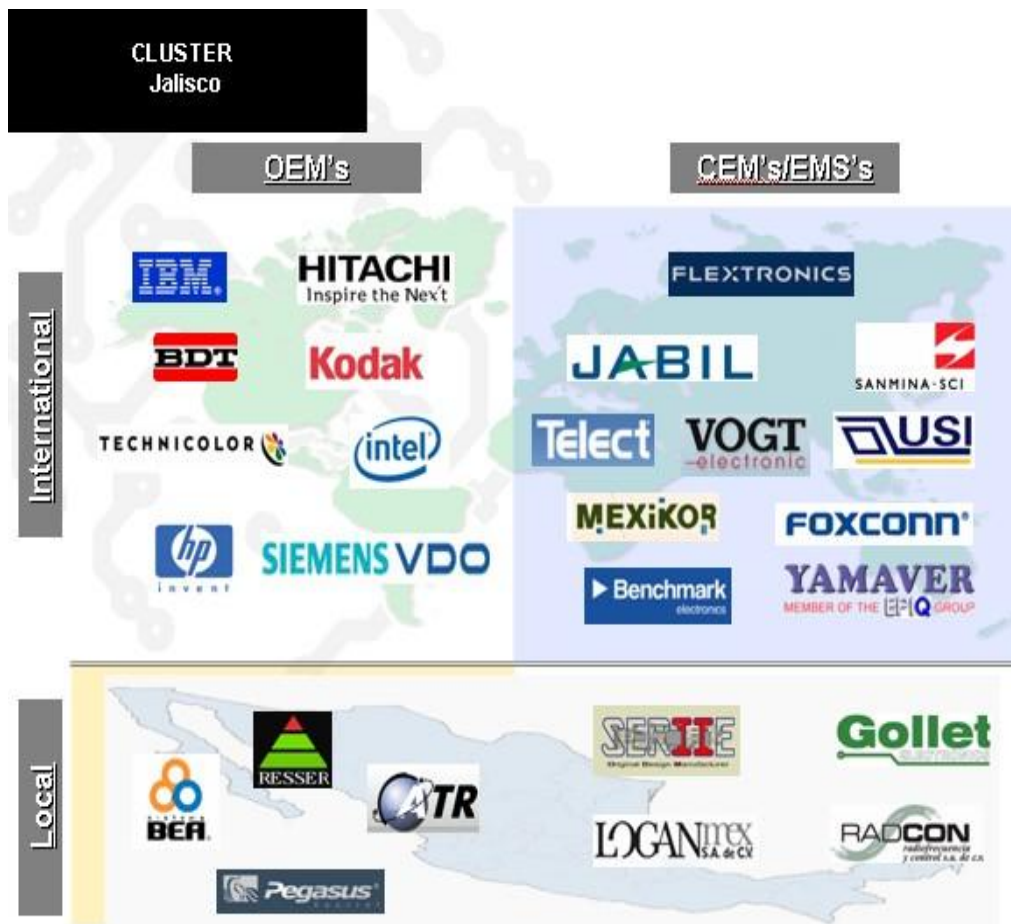
자료: BANCOMEXT

전기전자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멕시코의 제조업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과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들의 미주 생산기지이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주요 전기전자 업체는 그림과 같다. 멕시코의 전기전자산업 클러스터는 다국적기업들의 공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서부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와 소노라 주의 미국접경도시, 북부 치와와 주의 씨우다드 후아레스, 북동부 누에보레온 주 몬테레이와 꼬아우일라 주 살띠요, 따마울리빠스 주의 레이노사와 라뻬꼬, 중부 멕시코 주와 께레따로 주, 모렐로스 주, 뷔에블라 주, 베라끄루스 주, 서부 할리스꼬 주의 과달라하라와 아구아스칼리엔떼스 주가 주요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이다.

특히 할리스꼬 주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EMS 산업의 중심지로, 90년대 말부터 소품종 대량 생산 EMS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EMS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여 고전을 겪기는 하였지만 실리컨밸리와 의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2005년에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멕시코의 EMS 비즈니스는 다품종 중간 불륨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할리스꼬 주에 진출한 주요 OEM/EMS 기업들



그러나 멕시코 내 관련산업이 취약하여 국내 부품조달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과달라하라 주 EMS 클러스터의 경우,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자재의 15%만을 멕시코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NAFTA 발효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폭발적 증가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다른 국가들처럼 법인소득세 감면이나 캐시그랜트(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제도, 투자금액 중 일부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실제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44개국과 12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가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멕시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국의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의 80%, 수입의 48%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 대미의존도가 심각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이 미국의 경제동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4년 NAFTA 발효 이후 2001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2004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간 180억~200억 달러 수준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07년 297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08년 10월 이후의 세계경기침체와 신종플루('09년 4월 이후)의 영향으로 '08년은 259억달러, '09년은 152억달러를 기록하였고 '10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소폭 상승 17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외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멕시코의 주된 투자국가이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대 멕시코 2, 3위 투자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캐나다, 영국 등이 잇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대 멕시코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한국은 전체 대(對)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 대비 0.4%로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멕시코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2007~2010)

(단위: US\$ 백만)

		2007	2008	2009	2010	'99~'10	비중
	TOTAL	29,714.2	25,864.5	15,205.7	17,725.9	259,142.4	100
1	미국	12,372.3	10,592.6	6,750.4	4,891.6	132,045.4	51.0
2	스페인	5,379.9	4,880.1	2,639.2	1,305.3	39,067.7	15.1
3	네덜란드	5,687.3	1,750.7	2,046.9	8,658.8	37,119.2	14.3
4	캐나다	290.9	3,041.9	1,600.4	755.9	10,328.5	4.0
5	영국	600.7	1,100.4	330.6	471.3	7,655.0	3.0
6	버진아일랜드	1,100.7	1,455.6	23.7	7.2	5,266.3	2.0
7	독일	622.5	524.8	21.6	240.5	4,838.6	1.9
8	스위스	605.5	407.6	78.1	226.9	4,225.6	1.6
9	일본	394.5	141.7	223.0	168.3	2,260.8	0.9
10	룩셈부르크	539.6	348.7	127.8	232.7	1,869.1	0.7
11	벨기에	230.0	95.2	332.3	35.9	1,402.8	0.5
12	덴마크	87.9	46.0	-10.1	-35.4	1,394.0	0.5
13	스위스	25.3	65.8	12.6	-52.4	1,096.9	0.4
14	싱가포르	123.6	108.6	173.2	47.8	1,029.7	0.4
15	한국	45.9	370.9	75.5	-26.1	918.1	0.4
16	브라질	25.0	87.7	123.7	351.1	825.0	0.3
17	버뮤다	590.5	13.0	-27.8	-11.7	715.8	0.3
18	핀란드	46.8	79.4	50.4	25.5	667.2	0.3
19	아르헨티나	21.4	32.7	2.1	-12.6	652.5	0.3
20	파나마	248.7	137.5	29.5	12.6	612.7	0.2

자료: 멕시코경제부 (도착액 기준) 2010.12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

2010년까지 대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43.8%, 금융 및 부동산업의 비중이 24.9%, 호텔, 식당 등 기타 서비스업이 10.1%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지로 멕시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NAFTA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 하는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 정부가 제조수출업체에 대해 제공 하는 각종 혜택들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IMMEX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혜택을 주고 있으며, 22개 산업군에 속한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PROSEC)

멕시코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2007~2010)

(단위: US\$ 백만)

연도	2007	2008	2009	2010		1999~2010	
					비중		비중
합계	29,714.2	25,864.5	15,205.7	17,725.9	100.0	259,142.4	100.0
제조업(마킬라도라 포함)	13,524.4	7,776.6	5,493.7	10,585.4	59.7	113,507.7	43.8
금융 및 동산, 부동산	7,321.4	5,306.8	3,292.0	2,451.6	13.8	64,498.9	24.9
기타 서비스	2,677.6	3,302.2	3,518.8	1,346.7	7.6	26,281.5	10.1
상업	1,542.5	1,843.4	1,372.5	2,513.8	14.2	21,746.2	8.4
교통 및 통신	766.7	1,515.9	146.9	88.6	0.5	15,159.9	5.9
광업 및 원유채취	1,671.0	4,656.2	740.3	587.0	3.3	9,370.8	3.6
건설업	1,897.2	972.6	576.0	143.4	0.8	5,524.7	2.1
전기 및 수도	179.6	458.1	56.1	2.0	0.01	2,471.0	1.0
1차 산업	133.8	32.7	9.6	7.4	0.04	581.7	0.2

자료: 멕시코 경제부 (도착액 기준), 2010.12

라. 2010년 주요 외국 투자기업 현황

회사명	국가	분야	프로젝트	투자액(백만불)
Gold Corp	캐나다	광업	Peñasquito 광산	1,500
Ford	미국	자동차	Cuautitlan 공장 리모델링	1,000
Walmart	미국	소매	신규 매장 건축	958
Tenaris-Tamsa	이탈리아	제철/철강	철제 파이프 생산 공장	850
Nissan Mexicana	일본	자동차	March(Micra)생산공장	600
Acciona Energia	스페인	전력	풍력발전건설	600
Chrysler	미국	자동차	엔진공장	570
Volkswagen	독일	자동차	엔진공장	550
OHL	스페인	건설	Viaducto 고가건설	513
GM	미국	자동차	공장 현대화	499

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2010년 말까지 멕시코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멕시코 시티에 전체 투자의 55.6%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북동부 산업의 중심지인 누에보레온 주(州)(주요 투자지: 몬테레이)에 대한 투자가 11.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도인 톨루카 시를 비롯해 많은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주(州), 마킬라도라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하칼리 포르니아 주(州)(주요 투자지: 띠후아나, 멕시코칼리)와 치와와 주(州)(주요 투자지: 씨우다드 후아레스), IT산업이 발달한 할리스코 주(州)가 뒤를 따르고 있다.

멕시코 주(州)별 투자유치 현황(2007-2010)

(단위: 백만 달러)

주명	2007	2008	2009	2010		1999~2010	
					비중		비중
합계	29,714.2	25,864.5	15,205.7	17,725.9	100	259,142.4	100
Distrito Federal	16,267.1	12,974.1	8,425.3	6,985.7	39.4	144,165.6	55.6
Nuevo León	3,317.4	1,604.8	1,290.0	5,096.8	28.8	29,665.3	11.4
Estado de México	733.0	1,547.4	1,526.8	916.6	5.2	14,633.9	5.6
Chihuahua	1,699.8	1,449.7	1,001.1	1,413.6	8.0	13,074.8	5.0
Baja California	883.5	1,453.9	510.9	725.0	4.1	11,435.1	4.4
Jalisco	471.8	174.9	635.1	1,153.5	6.5	7,952.8	3.1
Tamaulipas	467.3	368.4	187.4	230.8	1.3	4,381.4	1.7
Puebla	344.5	260.9	63.4	153.2	0.9	4,166.5	1.6
Sonora	461.0	1,279.7	264.9	109.0	0.6	4,130.5	1.6
Coahuila	129.5	1,137.9	126.0	75.4	0.4	3,252.1	1.3
Zacatecas	796.7	1,516.6	77.1	120.2	0.7	2,569.1	1.0
Querétaro	136.3	406.4	462.5	280.2	1.6	2,525.5	1.0
Baja California Sur	372.1	164.4	63.4	5.1	0.0	2,260.9	0.9
Guanajuato	260.3	249.7	75.9	85.3	0.5	1,860.1	0.7
Quintana Roo	626.6	93.4	99.8	29.0	0.2	1,824.2	0.7
Michoacán	1,590.3	31.9	28.5	3.0	0.0	1,795.7	0.7
Morelos	453.0	134.0	-55.6	6.5	0.0	1,423.9	0.5
Durango	41.0	576.3	74.3	211.9	1.2	1,420.2	0.5
San Luis Potosí	169.4	88.7	-47.9	-4.0	0.0	1,278.4	0.5
Aguascalientes	204.6	38.2	100.8	19.3	0.1	1,206.8	0.5
Veracruz	71.0	152.3	147.4	77.1	0.4	1,005.4	0.4
Nayarit	81.5	22.9	31.4	3.0	0.0	704.8	0.3
Tabasco	0.9	35.2	2.8	0.4	0.0	503.9	0.2
Yucatán	55.6	32.6	-4.9	3.2	0.0	414.4	0.2
Sinaloa	41.2	44.6	17.0	9.9	0.1	398.7	0.2
Tlaxcala	15.5	10.4	14.0	38.5	0.2	363.7	0.1
Campeche	13.5	-17.1	23.8	13.5	0.1	187.2	0.1
Colima	28.6	-1.3	21.2	0.3	0.0	166.1	0.1
Hidalgo	2.3	40.3	0.3	17.4	0.1	147.8	0.1
Guerrero	-50.7	1.3	12.6	-57.9	-0.3	120.8	0.05
Oaxaca	15.2	17.2	29.2	2.5	0.01	90.8	0.04
Chiapas	14.2	-25.2	1.1	2.0	0.01	15.9	0.01
Quintana Roo	626.6	93.4	99.8	29.0	0.2	1,824.2	0.7

자료: 멕시코경제부(도착 기준), 2010.12

3. 우리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對) 멕시코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되어 1994년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1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 시장 진출, 미국, 캐나다 등 NAFTA 권역 시장 진출, 동일문화권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68~’1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對) 멕시코 총 투자 신고금액은 15억 4,016만 달러(511건), 투자 금액은 9억 9,632만 달러(753건)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제조업 5억 5,627만 달러(546건), 도매 및 소매업 2억 5,439만 달러(76건), 광업 1억 122만 달러(50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92만 달러(13건), 건설업 3,113만 달러(31건)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조업 투자는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 3사와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및 최근 POSCO의 철강생산 관련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진출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 멕시코 업종별 투자 현황(1968~2010)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회수	투자금액
Total	511	184	1,540,166	753	996,324
농림어업	14	7	2,074	7	512
광업	25	1	248,176	50	101,215
제조업	343	116	817,643	546	556,279
건설업	35	18	41,786	31	31,133
도매 및 소매업	54	21	320,723	76	254,394
운수업	2	2	730	2	73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3	49,984	13	49,925
부동산 및 임대업	2	1	484	4	484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15	7	2,934	10	1,3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263	3	90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2	2	17	2	17
금융 및 보험업	4	2	286	4	1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2	65	3	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0.12

최근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라인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가전분야의 투자 동향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SEM)이 '08.5월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냉장고 생산라인 신설 및 협력사 지원을 위해 '13년까지 1억 2,000만 달러를 케레타로(QUERETARO)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드럼 세탁기 라인 신설을 위한 투자 역시 진행 중이다. 또한 LG 전자 몬테레이 생산법인은 '08년 12월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 오븐 생산라인을 몬테레이(MONTERREY) 생산법인에 신설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가스오븐도 생산 중이다.

철강업계의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07. 3 월 POSCO 가 뿌에블라(Puebla)시에 연간생산 17 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서비스 센터를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08년에는 10 만 톤의 가공물을 생산하였다. 산루이스포토시(San Luis Potosi)에도 연간 15 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서비스 센터가 '08. 9 월에 완공되어 가동 중이다. 또한 멕시코만 인근 알따미라(Altamira) 시에 2 억 5 천만 달러를 들여 연간 생산 40 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아연도금 강판 공장이 '09 년 7 월에 완공되었으며 북미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 공장의 설비를 '11 년 중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08 년 5 월 CFE (연방전력공사)로부터 Manzanillo 항에 15 만 ki 용량의 LNG 저장탱크 2 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 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11 년 3 월 현재 공정의 98%를 완료한 상태이다. 완공 이후 20 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 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 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0 년 8 월에는 KST(한국전력공사-삼성물산-테킨트 컨소시엄)가 CFE 의 433MW 급 NORTE II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이 EPC 업체로 선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한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4 억 2000 만 달러이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50%가 넘는 사업비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할 예정이다.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회사명	진출연도	취급분야	지역
삼성전자멕시코생산법인	1988	LCD, PDP, LED 생산	TIJUANA
LG 전자멕시코판매법인	1988	가전	ESTADO MEXICO
현대트랜스리드	1989	트레일러, 컨테이너	TIJUANA
대우일렉트로닉스멕시코 판매법인 (DECOMEX)	1993	가전 판매	ESTADO MEXICO
대우일렉트로닉스멕시코 생산법인 (DEHAMEX)	1995	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생산	QUERETARO
삼성 SDI	199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생산	TIJUANA
삼성전자멕시코법인	1995	가전통신 판매 및 제조	D.F.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	1998	EPC	D.F.
LG 전자 몬테레이생산법인	2000	냉장고, 전기 오븐 생산	MONTERREY
LG 전자 레이노사생산법인	2000	LCD, PDP, LED 생산	REYNOSA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SEM)	2003	가전(냉장고, 세탁기) 생산	QUERETARO
포스코-엠펙피시(POSCO-MPPC)	2006	철강코일가공	PUEBLA, S. L. POTOSI
포스코 멕시코(POSCO-MEXICO)	2007	철강재 (자동차용 아연 도금강판) 생산	ALTAMIRA
KOMEX-GAS(한국가스공사 자회사)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D.F.
KMS(한국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MANZANILLO
대우인터내셔널 판매법인	2009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지사설립 1979, 법인전환 2009)	D.F.
KST(한전, 삼성물산, 테킨트)	2010	열병합 발전소	Chihuahua

자료: 멕시코시티 KBC 조사, 2010.12

4. 주요 투자법 내용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하였으며, 1999.1.16, 2001.6.4, 2006.7.18, 2008.8.20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한편, 1998.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시설을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투자 제한 분야

- 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 조)
 - 석유 및 그 외의 탄화수소물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기
 - 원자력 발전
 - 방사선 광물
 - 전신
 - 무선 전신
 - 우편 업무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 조)
 -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 휘발유 소매 및 천연 가스 유통
 - 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 TV 방송
 - 개발 금융 기관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 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 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 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 기금 경영, 퇴직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 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T 계열 주식, 케이블 TV, 전화서비스, 경제 제한 구역 및 연안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선박의 국내 수로이용 관리 (관광용 크루즈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윤활유 공급, 연방통신법 11 조와 12 조에 의한 회사

-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 하에 49% 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 조)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용 비행장 피 면허자
 -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 서비스
 - 신용정보회사
 - 유가증권 평가기관
 - 보험중개사
 - 이동전화 서비스
 -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 49% 이상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2009 년의 경우 2,756,411,632.00 페소를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금액기준은 매년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지한다(외국인 투자법 9 조)

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 전략지역인 미-멕시코 국경 100 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해안 50 킬로미터 이내 지역 부동산 취득의 경우, 비 거주 목적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동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비 거주 목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일부 거주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 업종
 - 신용기관, 금융 중개업 및 신용 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
 -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 3 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다. 투자 인센티브

1) 기본 방향

-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서 세 가지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비 지원, 2% 대의 PAYROLL TAX(지급 고용주세)감면, 부동산 등록세/취득세/재산세/자산등록 비용/토지 이용세/건축인허비용/각종 인지대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 각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건이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 정부

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건별로 제공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들어 누에보레온 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문의할 때에 A 사가 물어볼 때의 답변이 다르고, B 사가 물어볼 때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진출 시 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혜택이 크지 않고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으므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2) 연방정부 제공 인센티브와 지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멕시코 북동부 5개 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기본 프레임

주(STATE)명	주요 산업도시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 급여세(2%)감면	기타
NUEVO LEON (누에보레온)	MONTERREY (몬테레이)	- 기간: 최장 3개월 - 지원: 최저 임금의 1.5배 - 조건: 훈련 인원의 70% 이상 의무고용	- 기간: 1년, 연장 가능 - 지원: 몬테레이 광역 지구 50% 감면 기타 지역 95% 감면	- 공급업체물색 지원 - 연방 정부 및 시 정부 교섭 지원
TAMAULIPAS (따마울리빠스)	REYNOSA (레이노사) NUEVO LAREDO (누에보라레도) MATAMOROS (마따모로스)	- 기간: 최장 3개월 - 지원: 직위에 따라 최저 임금의 1-3배까지 지원 - 조건: 훈련 인원의 70% 이상 의무고용	(신규 투자 시) - 마따모로스, 알따미라 누에보라레도, 레이노사, · 기간 및 지원: 최초 2년간 최대 100%, 이후 2년 간 50%까지 감면 · 조건: 자동차 부품, 전 기전자, 제조, 의료, 석유 화학, 플라스틱, 폴리머 업종에 한함. · 1차 년도 250명, 2차 년도 15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의무 - 기타지역 · 기간 및 지원: 최장 4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 · 조건: 1차 년도 150명, 2차년도 10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의무 정규직 20명 이상 상 시 고용 시 최대 100%까지 감면 · 레이노사, 알따미라, · 마데로, 땀삐꼬: 최장 2년간 누에보라레도, 마따모로스, 빅도리아 시: 최장3년간	- 법인설립 및 자산 등록 관련 각종 인 지대 최대 75% 까지 감면 - 공장 부지 취득 시 최대 50%까지 토지인수지원 가능
COAHUILA (코아우일라)	SALTILLO (살띠요) TORREON (뜨레온)	- 기간: 1-3개월 - 지원: 최저 임금 지원. 지원액 총액이 회사 지급 명목 임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음.	- 기간: 1년, 연장 가능 - 지원: 최대 100%까지 감면	- 건축인허가 비용100%감면 - 각종인허가 업무 지원 - 시정부 교섭지원

주(STATE)명	주요 산업도시	교육훈련비 지원*	지급 급여세(2%)감면	기타
CHIHUAHUA (치와와)	CHIHUAHUA (치와와) CD. JUAREZ (씨우다드 후아레스)	- 기간: 최장 2개월 - 지원: 최저 임금 지원.	- 치와와, 후아레스 시: 최대 50%까지 감면 - 기타지역: 최대 100% 까지 감면, 감면기간은 건별협상	-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토지용도 변경 비용 등의 일부 지방세 감면. - 감면률은 건별협상 - 공급업체물색 지원
SONORA (소노라)	NOGALES (노갈레스) HERMOSILLO (에르모시오)	- 초기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범위 및 기간은 건별로 협상 필요.	- 감면기간 및 %는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 기본 조건: 정규직 최소 50명 이상 고용 하고 다음 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투자 지역 산업 다양화 기여. 소노라 주 생산 부품 및 소재를 40% 이상 사용할 것. · 소노라 주 소재 업체에 생산품의 50% 이상을 납품할 것 · 가공된 원자재의 50% 이상을 수출할 것 · 종업원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비중이 30%이상 일 것 · 기계 및 장비에 US\$ 1천만 이상 투자 또는 인프라 에 US\$ 500 만 이상 투자 할 것	- 주정부 사무실 무상 사용 가능 - 자산등록 인지대감면 - 기타 투자지역 및 규모에 따라서 인프라 지원 협상 가능

주: 법정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교육 훈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최저 임금만 받고 일할 근로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임금과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임금 간의 차액을 부담 하게 된다.

○ 연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 특정 자산에 한해 자산 취득연도 또는 다음 해에 해당 자산 가치의 96%까지 공제 해주고 있다. 마길라도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최장 10 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컴퓨터 제조용 부품: 최대 96%까지 공제 가능
- 컴퓨터: 최대 94%까지 공제 가능
- R&D 용 기계류: 최대 95%까지 공제 가능
- 기계 부품: 최대 85%까지 공제 가능
- 건설투자비: 최대 74%까지 공제가능
- R&D 비용의 세액공제 혜택: 신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라인, R&D 훈련 프로그램 등의 R&D 프로젝트에 대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 지방정부 제공 인센티브

- 위의 표는 멕시코 북동부 5개 주별로 최대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며, 실제 투자케이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별로 달라지므로 각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를 접촉, 문의 해야 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법상 구분

1)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 S.A.)

- 2 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과 1 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음. 최소설립자본금은 50,000 페소이며 설립 시 최소 20%가 납입되어 있어야 하며 발기인의 경우 1 년 이내에 정관상 기재된 출자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함.
- 주식회사는 주로 가변자본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며, 이 경우 증자 및 감자가 회사정관에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허가 승인 절차는 필요 없으며 자본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외투자 등록처에 신고하기만 하면 됨.
- 주식회사의 경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향후 증권거래소 상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기업형태와 달리 상법에서 그 구성, 주식, 회사경영, 감사, 재무정보, 주주총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2011 년 1 월 현재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50%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일반주주총회는 의결주식의 50%의 찬성으로 소집되나 회사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특별주주총회는 의결주식의 75%의 찬성으로 소집됨.

2)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 de R.L.)

- 2 인 이상 50 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감사위원선임에 대한 의무는 없음. 초기자본금은 3,000 페소 이상으로 설립 시 출자금액의 50%가 납부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음.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은 정관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 50%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기존 출자자들은 15 일 내에 출자우선권을 할 수 있음.

3)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S. en C) 및 주식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 S. en C. Por A)

- 합자회사는 2 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Socio Comanditado)과 유한책임사원(Socio Comanditario)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임.
- 무한책임사원은 실무를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을 지며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하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승인 및 감사권은 보유하고 있음.
-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됨.
- 두 회사 모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음.
- 대부분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전원 합의가 필요함.

4) 합명회사 (Sociedad en Nombre Colectivo / S.N.C)

- 합명회사는 2 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짐.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짐.

5) 협동조합 (Sociedad Cooperativa / S.C.)

-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협동조합 자체의 정관과 내규를 통해 규율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나. 투자형태별

1) 협지법인: 상기 법상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 멕시코 상법(LGSM)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총 6 가지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변자본 (Capital Variable) 회사로 운영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정보 시스템(SI-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함.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가 적용됨.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호투자진흥 및 보장협정 (APPRI)을 맺고 있어 직접투자 관련 최혜국대우가 보장됨.

2) 지점: 지사, 연락사무소

- 외국인의 멕시코 진출방법 중 다른 방법은 지정 설립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들 수 있음.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의 비영업 활동을 수행함.
- 지점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음. 따라서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지게 됨.
-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 본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이중과 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

- 마킬라도라 산업이란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태의 산업을 총칭하며, 보세산업(In-bound Industry) 또는 쌍둥이공장(Twin Plants)이라고도 불림.
- 국경지대 산업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65 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북부 국경지대를 발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모색하게 되었음.
-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초기에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4) 인수합병

-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그리고 2000 년 70 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한 Fox 정권 집권을 기점으로 하여 멕시코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힌 결과 인수합병을 통한 외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 졌음.
- 멕시코에서 인수합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는 빠른 속도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 멕시코에서 인수합병관련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없으며,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업 내부에 전담팀을 꾸려 인수합병 대상기업을 장기간 연구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및 컨설팅 업체는 관련 행정작업 및 회계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며 M&A 대상 기업을 직접 물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고 함.

다. 투자주체별

1) 단독투자

-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법 상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 100%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독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및 지점, 연락사무소의 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제한 분야가 아닌 경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100% 단독투자가 가능함.
- 만약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투자위원회 (CNIE: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1)내국인 고용 및 교육 훈련에 미치는 영향, 2)기술적 기여정도, 3)환경규제와 일치정도, 4)멕시코 국가경쟁력 및 생산력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중요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승인 여부를 결정함. 투자위원회에 대한 투자 신청 후 45 일 이내에 동 위원회의 결정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동 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국(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에 투자승인 내용을 등록해야 함.

2) 합작투자

- 합작투자는 하나의 공동기업 설립으로 그 구성요소인 인적 요소와 자본적 요소 가운데서 그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인적 공동기업·혼합적 공동기업·자본적 공동기업의 3 가지로 분류됨.
- 멕시코에서의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변 자본주식회사(S.A. de C.V.)형태가 일반적으로 채용됨. 그 이유는 자본의 유가증권화, 유한책임제도, 자본 통합 가능, 이사회(Board of Director)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회사 경영의 항구성 등임.
- 또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멕시코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합작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업체와의 합작투자를 실시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임. 이는 한국 투자자가 언어, 문화, 신뢰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 진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실제 합작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제 경영문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경영 방침 및 중대 관심사 등의 시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현물 출자의 경우 현물 자산 또는 기술 등에 대한 감정 평가의 문제, 기술 제공 또는 이전에 대한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투자 기업이 가지고 있던 원천기술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응용 기술에 대한 재산권 문제 등 사실상 합작투자가 진행되면서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합작 투자 파트너 수배에서부터 합작투자 협상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합작투자 기업의 경영을 맡은 임원들은 사실상 모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임. 그래서 대부분의 합작투자의 경우 경영 절차, 분쟁해결, 계약관계 종료 등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있음.

3)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분야

- 1993 년 발표된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기업 대우,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법은 총 704 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656 개 활동은 외국인투자 100%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외국인 지분 취득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함.
- 국가 독점 분야 (외국인 투자법 5 조)
 - 원유 생산 및 정유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력 판매
 - 원자력 발전
 - 전신 및 무선전신 서비스
 - 우편 서비스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외국인 투자지분이 없는)이 독점하는 분야 (외국인 투자법 6 조)
 - 택배 및 소포배달 서비스를 제외한 여객, 관광객, 화물의 내륙 운송
 - 휘발유 소매 및 LPG 유통
 - 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 및 TV 방송 (케이블 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까지 허용)
 - 신용 조합
 - 개발은행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 외국인투자지분이 제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 조)
 - 최대 10% 지분 허용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 허용 사업: 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 허용 사업:
 -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복합 금융기관, 중개소, 증권 거래, 보험회사, 채권회사, 환전소,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 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계열 주식, 케이블 TV, 전화서비스, 경제제한 구역 및 연안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관리, 선박의 국내 수로 이용 관리(관광용 크루즈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윤활유 공급
- 정부 승인 하에 49% 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투자법 8 조)
 - 다음 12 개 부문의 경우, 멕시코 투자위원회(CNIE)의 승인 하에 49% 이상의 해당하는 기업 지분을 획득할 수 있음.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용 비행장 피면허자
 -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및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 서비스
 - 신용정보회사
 - 유가증권 평가기관
 - 보험중개사
 - 이동전화 서비스
 - 석유 및 수송 도관 공사
 -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7.12 억 페소(약 US\$ 6,700 만)를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투자법 9 조)

4)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

- 전략지역인 미-멕시코 국경 100Km 이내 지역 및 해안 50Km 이내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은 비거주 목적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가 상기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신탁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비거주 목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일부 거주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상업 혹은 관광 업종
 - 신용기관, 금융 중개업 및 신용 보조기관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
 - 토지 매매, 주거지화, 건축, 지역 개발과 제 3 자에게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인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영업활동
 - 일반적인 상업, 산업, 농업, 목축, 어업, 임업 및 서비스 활동

라.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형태

1) 진출 선호 형태

- 멕시코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법인설립이 가장 쉬운 국가이며,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주로 법인설립이 선호됨.
- 법인설립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의 수정, 증자 및 감자, 등 법적 제도적 제한사항이 덜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 방법을 선호하며, 2010 년 부터 출자금이 기존의 3,000,000 페소에서 3,000 페소로 바뀜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부담도 적어져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지점의 경우 설립절차가 법인 설립절차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법적 책임이나 세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투자진출을 꾀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별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법인에 비해 정부기관의 인지도가 낮고 부동산 소유제한과 각종 인센티브 수혜 면에서 법인설립에 비해 불리하므로 선호되지 않음.
-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제품을 수출 시 직접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규모 업체에 대한 판매 시 어려움이 있음.

2) 진출 불가 형태

-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진출형태는 없으며, 투자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야만 존재하므로 투자 진출이 불가능한 형태는 없음.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1	설립요건	2 명 이상 주주 최소 자본금 50,000 페소	주식회사 경우		
		2 명 이상 50 명 이하 출자자 최소 자본금 3,000 페소	유한책임회사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회사명 사용신청	상호등록 신청서 원본 및 사본 2 부 수입인지 납부증서	최대 5 개 상호 기재가능	외무부(SRE) 법제국(Direccion General de Asuntos Juridicos)	2 일/640 페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4	정관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법인납세자 등록까지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음	공증사무소	2 일/9,000 페소
5	법인납세자 등록	- 납세자번호 신청서양식 - 회사 정관 공증사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원본		국세청(SAT)	2~3 주/없음
6	부동산 및 상업등기	정관	자산 및 부동산 등기의 경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자산 및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17 일/1,402 페소
7	사회보험(IMSS)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 보험 가입신청 - 정관사본 - 납세자번호(RFC) 등록증 사본 - 법인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 FM3 비자(외국인)	새로운 직원의 채용시 5일 이내에 사회보험에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IMSS)	2-5 일/없음
8	주정부 재무부에 지방세 등록 (Payroll Tax)	- 납세자번호(RFC) - 회사 우편번호(CP)	인터넷을 통해 등록 가능	지방정부 재무부	1 일/없음
9	시·군·구청에 회사 설립신고	납세자번호(RFC)		시·군·구청	1 일
10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에 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등록 신청서	법인설립 후 40 일 이내에 수행해야 함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의 외국인 투자 국가 등록시스템 (RNIE)	1 일/1,755 페소
11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SIEM) 등록			지역관련 업종 상공회의소	1 일/최대 670 페소
12	구좌개설	- 정관 - 납세자등록증(RFC) - 주소지증명서 - 개설의뢰자의 신분증 - 비자		은행	1 일/없음
13	임대차 본계약		본계약 체결		

2) 지사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1	설립요건	정관 및 관련 제출서류	한국본사가 적법하게 설립회사인지 여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여부 확인	주한 멕시코 대사관	
2	지사설립 허가 및 등록	- 지사설립신고서 - 회사(본사) 정관 - 지사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지사 설립 관련 조항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15 일/1,755 페소
3	납세자 등록	- 납세자번호 신청서양식 - 회사 정관 공증사본 - 지사 대표자 신분증 원본		국세청(SAT)	2~3 주/없음
4	부동산 및 상업등기	- 회사(지사)등록 신청서 - 회사(본사) 정관 - 지사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지사 설립 관련 조항		자산 및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17 일/1,402 페소
5	지사개설 신고	납세자번호(RFC)		시·군·구청	1 일
6	멕시코 기업 정보 시스템 (SIEM) 등록			지역관련 업종 상공 회의소	1 일/최대 670 페소
7	사회보험(IMSS) 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 - 근로자 사회 보험 가입신청 - 정관사본 - 납세자번호(RFC) 등록증 사본 - 지사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 FM3 비자(외국인)	새로운 직원의 채용 시 5 일 이내에 사회 보험에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IMSS)	2-5 일/없음
멕시코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스페인어 본 만이 정본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영사 확인 후 제출					

3)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1	설립요건	정관 및 관련 제출서류	한국본사가 적법하게 설립회사인지 여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	주한 멕시코 대사관	
2	지사설립 허가 및 등록	- 연락사무소설립신고서 - 회사(본사) 정관 - 연락사무소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조항		경제부(SE) 외국인 투자국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15 일/없음
3	납세자 등록	- 납세자번호 신청서양식 - 회사 정관 공증사본 - 연락사무소 대표자 신분증 원본		국세청(SAT)	2~3 주/없음
4	부동산 및 상업등기	- 회사(연락사무소)등록 신청서 - 회사(본사) 정관 - 연락사무소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 규정(내규)상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조항		자산 및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	17 일/1,402 페소
5	사회보험(IMSS)에 법인 및 피고용인 등록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용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 보험 가입신청서 - 정관사본 - 납세자번호(RFC) 등록증 사본 - 연락사무소대표자 신분증 - 근로자신분증 -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 FM3 비자(외국인)	급여명부 등록의무는 없으나 직원이 20 명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함	사회보험(IMSS)	2-5 일/없음
멕시코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스페인어 본 만이 정본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영사 확인 후 제출					

바.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OJEDA 로펌
 - 주소: Rio Guadalquivir 94, Col. Cuauhtemoc, Delg.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전화 번호: 52-55) 5207-7708, 5208-0864 Ext. 115
 - 이메일: wcho@ojedaabogados.com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우현 변호사 근무
- Jung & Lawyers, S.C.
 - 주소: Lignacio Ramirez No.20 Piso 1 Desp. 101, Col. Tabacalera CP. 06030, Mexico D.F.
 - 전화 번호: 52-55) 5546-4683, 5264
 - 이메일: t-jung@jungandlaw.com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Tommy Jung 변호사 근무

- 김영곤 변호사 & 회계사
 - 이메일: ygconsulting@hotmail.com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영곤 변호사/회계사 근무

6. 투자입지여건

가. 외국인투자 집중지역

멕시코의 31개 주(州)와 1개 특별시 중 외국인투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멕시코시티(수도)
- 2) 누에보레온주(주요 투자지: 몬테레이)
- 3) 멕시코주
- 4) 바하 캘리포니아(주요 투자지: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 5) 치와와주(주요 투자지: 씨우다드 후아레스, 치와와)
- 6) 할리스꼬주(주요 투자지: 과달라하라)
- 7) 따마울리빠스주(주요 투자지: 레이노사,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
- 8) 뿌에블라주(주요 투자지: 뿌에블라)
- 9) 소노라주(주요 투자지: 에르모시요)
- 10) 꼬아우일라주(주요 투자지: 살띠요, 또레온, 빼에드라스네그라스)

나. 산업단지 현황

멕시코 산업공단협회(AMPIP)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국경 및 내륙지역에 걸쳐 총 336개의 산업 공단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등록 산업공단이 등록 공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국적으로 총 산업공단 수는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내에는 145개 산업개발 공단업체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산업공단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공식 명칭은 AMPIP(ASOCIACION MEXICANA DE PARQUES INDUSTRIALES)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전화: (52-55) 2623-2216
- 팩스: (52-55) 2623-2218
- 주소: Monte Camerún No.54-1, Lomas Barrilaco, Mexico D.F.
- 홈페이지: www.ampip.org.mx

외국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AMPIP 회원사 산업공단에 입주하고 있으며 인프라 설비 등의 면에서 AMPIP 회원사 산업공단이 일반 산업공단보다 입주여건이 유리하다. 참고로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FORTUNE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산업공단협회 회원 공단에 진출해 있다. 산업공단협회(AMPIP)홈페이지에 주요 회원사 공단이 크게 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남부 4개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주요 공단명 및 연락처가 소개되어 있어 산업단지 검색 시 동 사이트 활용이 유리하다.

Tijuana에서 가장 큰 공단중 하나인 티 Florido는 총 면적 43.54ha (=435,400 m²)의 면적을 자랑한다. 공단 내에 수도, 전기, 전화(광통신)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진행 중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교회, 소방서, 주유소, 체육관, 병원, 주택 (36,877채)이 공단 안에 있으며, 도로망과 철도가 배치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가 공단 내를 운행한다.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공단 안에는 Multitenant Building 이라는 다목적 공장건물도 있는데 동 건물은 255,729 ft²(=23,758m²)의 대지에 137,728 ft² (=12,795m²)의 건면적을 가진 빌딩으로서 4개의 모듈(각 3,199m²)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은 내부 높이 28피트(=8.5m)에, 6인치(=15.24m) 두께의 바닥, 철골 천정면적의 3%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장건물 1모듈당 32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임대료 수준은 월 US\$ 0.41/ft² (=US\$ 4.41/m²)이나 협상여지가 있다고 한다. 전기, 수도 요금은 별도임. 원하는 경우 부지만 사거나 임대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Mariangel Perez de Salazar Hanson 공단사무소 세일즈 매니저는 “우리 공단은 Tijuana의 대표적 공단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공단 내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원활한 노동인력 공급도 우리 공단만의 장점이다. 한국기업은 이미 삼성과 현대를 비롯해 9개사가 진출해 있어 우리공단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46개 기업에 22,8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 입주기업은 코카콜라, Smith, Tecate 등이며, 한국기업도 많아 삼성전자, 현대트랜스리드, 대동, 삼성SDI, 세신, 동철, 새한, 도루코, 대원 등 9개사가 입주해 있다.

- 담당자: Mariangel Perez de Salazar Hanson
- 직 책: Sales Manager
- 이메일: marian@florido.com
- 전 화: 52-664-634-6040

□ Los Insurgen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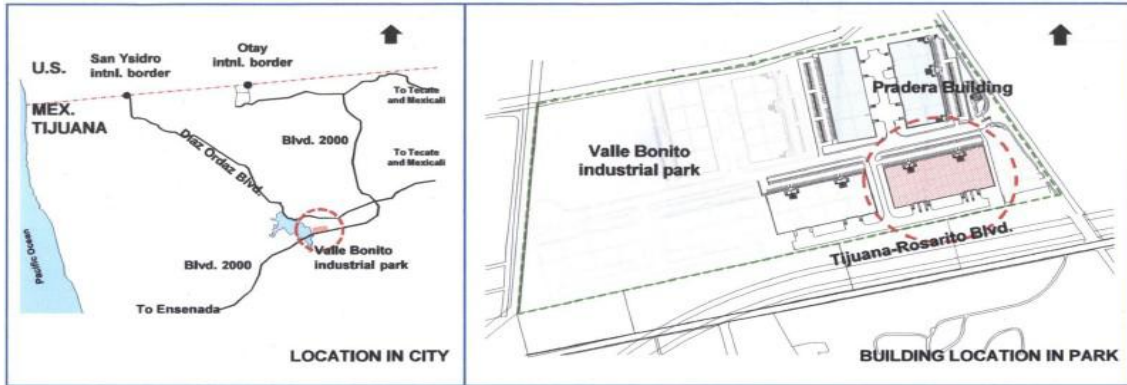
S.C. 그룹이 운영하는 Los Insurgentes 공단은 총 면적 5.7ha (=57,000 m²)의 규모이다. 임대료 수준은 월 US\$ 0.37/ft² (=US\$ 3.98/m²)이라고 함.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별도이다. 공단 세일즈 매니저는 “우리 공단은 Tijuana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노동 공급도 수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4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중 Cyandi America Inc., Camtech, 대영화학, 성주음향 등 한국기업이 4개사 입주해 있다.

- 담당자: Gudalupe Tostada
- 직 책: Sales Manager
- 이메일: oficinasc@hotmail.com
- 전 화: 52-664-608-9117

□ Valle Bonito

Valle Bonito 공단 지도



IAMSA Development Group에서 운영하는 Valle Bonito 공단은 총 면적 124,001 ft² (=11,520 m²)의 작은 규모이다. 철물골조로 지어진 공장건물은, 내부 높이 22피트(=6.7m), 6인치(=15.24m) 두께 콘크리트 외벽, 5인치(=12.7cm) 두께 콘크리트 바닥, 철골 천정 면적의 3%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장건물 부지 1,000 ft²(=92m²) 당 1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되고, 1개사 당 897.5 ft²(=83m²)의 사무실 공간이 제공된다. 임대료 수준은 월 US\$ 0.41/ft² (=US\$ 4.41/m²)이나 협상여지가 있다고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별도이다.

Carlos Cordova 공단사무소 매니저는 “우리 공단의 장점은 안전과 빠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리적 편리성을 들 수 있다. 공단 전체가 언덕과 외벽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24시간 수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공단 규모가 크지 않아 입주기업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이는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교통 또한 사통팔달되어 있어 Tijuana내에서도 매우 편리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5개 기업이 더 입주할 공간이 남아 있는데, 입주 기업 중 2개 기업은 삼성전자 협력 한국기업(J-Cox, 신일)이다.

- 담당자: Carlos Cordova
- 직 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이메일: ccordova@iamsa.com.mx
- 전 화: 52-664-211-0211

□ 기타

이외에도 ICAL (85ha, 월 US\$ 0.44/ft²), La Mesa Reforma (7.4ha, 월 US\$ 0.438/ft²), La Mesa Col. La Jolla (22.6ha, 월 US\$ 0.39/ft²), Luna Park (1ha, 월 US\$ 0.32/ft²), Insurgentes(1ha, 월 US\$ 0.36/ft²), Las Brisas (1ha, 월 US\$ 0.36/ft²), Barranquita (2.2ha, 월 US\$ 0.36/ft²), Arboledas (1.8ha, 월 US\$ 0.36/ft²), Azteca (1.66ha, 월 US\$ 0.35/ft²), Fabricas y Bodegas S.C. (2.75ha, 월 US\$ 0.35/ft²), Fimsa (2.75ha, 월 US\$ 0.35/ft²), Los Pinos I y II (17ha, 월 US\$ 0.38/ft²), Los Pinos I y II (17ha, 월 US\$ 0.38/ft²), Los Pinos III (17ha, 월 US\$ 0.38/ft²), Cerro de las Abejas (19ha, 월 US\$ 0.37-42/ft²)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Baja California 주 제공 자료(www.bajacalifornia.gob.mx/sedeco/estadisticas/directorios/parquesIndBC2009Tijuana.pdf)를 참조 바란다.

외국인 투자 집중 지역



7. 노동관리

가. 기본 개념

멕시코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종업원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회사가 진위여부를 밝힐 책임을 지게 된다. 연방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고용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종업원 스스로 부당한 계약을 이해하고 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판결을 받게 된다.

멕시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보장: 법정 최저임금은 실제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저절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되어 있음.

- 급여삭감 금지: 고용주는 어떤 경우에도 종업원의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음. 종업원이 기본급 삭감에 동의하더라도 후일 소송 제기 시 부당 처우로 간주되어 패소하게 되어 있음.
- 동등대우: 같은 직종, 같은 근로시간과 산출물이 같은 근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함.
- 퇴직금 보장: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 종료의 사유에 대해 법이 규정한 확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근무 연한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2010 년 들어 현 정권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연방노동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 연방 노동법은 멕시코 혁명의 유산으로 PNR 당(PRI 당의 전신)의 탄생과 함께 1931 년에 탄생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총 1010 개의 조항 중 약 300 개의 조항을 노동유연성을 강화 하고 현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여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나. 채용방법

해당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 TV를 통해서 구인 광고 방송을 내기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독자적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졸 이상 사무직 직원은 구인광고를 통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취업사무실에 추천을 의뢰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 또는 과장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력서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인력수급 현황

전국적으로는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주요 거점도시와 미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서 마킬라도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의 띠후아나, 멕시코칼리,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마따모로스, 씨우닷후아레스와 같은 도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전반적으로 공장근로자 임금은 미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 주요 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 능력있는 관리 자급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미국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라.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된다. 개별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간의 계약을 말하며, 단체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단기 프로젝트 수행과 같이 업무 성격상 종료시한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고용계약은 불특정 기간 계약(contrato indefinido)으로 간주한다. 파트타임 고용은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기존 근로자의 휴가나 질병으로 인해 임시로 대체 작업자를 구하는 경우, 예술가나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노동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1일 최대 8시간이며, 야간의 경우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1일 최대 7시간이다. 주야간 혼합근무의 경우 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제한되며 1일 최대 7.5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또한, 주간근무는 주 48시간, 야간 근무는 주 42시간으로 제한되고, 근무일수는 주 6일을 넘지 못한다. 단, 작업장이 있어 해당 지역을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중식시간과 1일 30분씩 부여되는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2010년도의 법정공휴일과 선택공휴일은 'V. Business 참고정보의 8. 출장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바. 급여 체계

1) 급여의 정의

연방노동법 제84조에 따르면, 급여(salario)는 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례금, 수당, 주택 제공, 보너스, 수수료, 현물 지급 및 기타 다른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여(salario base)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고,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은 기본급여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고용주는 기본급여 외에 법정 복리후생비(las prestaciones por la ley)를 부담해야 하고, 법적 복리후생비는 대개 급여의 40% 정도이다. 영업직의 경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기본 급여 외에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comisión)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 급여보다 더 높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 급여 수준

- 최저임금 (2010. 5월 멕시코시티 기준) : 57.46 페소 /일

□ 실제 급여 수준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금수준은 3~4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장 작업자이든 사무직이든 임금수준이 한국 기업들의 기대치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현장 작업자들의 급여가 10% 이상 올랐다고 한다. 현장 작업자들의 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국 기업들이 집중되는 지역, 즉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임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면 된다.

2010.5 기준, 북부 경제중심인 몬테레이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달러 수준이며, 살띠요는 3.5달러 정도이고, 레이노사나 마따모로스 같은 북부 국경지대는 2.5~3.0 달러 정도이다. 북부 주요 지역의 관리자급 급여는 미국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 국경 도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인 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인접한 미국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 법정 복리 후생비(las prestaciones por la ley)

- 휴가 보너스(prima vacacional): 해당 휴가일수에 대해 일일 급여의 25%를 지급함.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일일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 연말보너스(aguardo): 매년 12월 20일 전까지 급여의 최저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회보장세(IMSS):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을 IMSS에 가입시켜야 함. IMSS의 부담률은 기본급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고용주가 70%, 종업원이 25%, 정부가 5%를 부담하고 있다.
-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적정주택마련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에 가입하고 근로자별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 퇴직충당금(SAR): 근로자 별로 퇴직충당금 구좌를 만들어서 매월 급여의 2%를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SAR 구좌도 같이 이관된다.
- 장기근속수당: 정규 근로자는 매년 12월 말 임금을 장기 근속수당으로 지급받는다.
- 종업원 이익배당(profit sharing)
 - 모든 회사는 세전 수익의 10%를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하며, 분배율은 정부 이익분배 위원회가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많은 현지기업은 종업원 이익배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이 산출되는 모기업과는 별도의 종업원 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이사진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을 종업원 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모기업은 종업원 관리회사에 종업원 급여 외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최소한의 이윤을 붙여서 지불함으로써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관리회사의 이윤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서 이익배당을 회피하고 있다.

4) 기타 선택적 복리후생비

많은 현지기업은 법정 복리후생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사설 의료보험: 사무직 근로자 및 관리자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IMSS) 이외에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다.
- 생명보험
- 차량보험
- 각종 상품권: 슈퍼마켓 상품권, 주유 상품권, 식당 상품권 등
- 저축 기금 가입
- 대출: 회사에서 목돈을 선지급한 후,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 교통비
- 교육훈련비 지원
- 주택임차 지원

5) 초과근무수당

주 9시간 범위 내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9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 시에는 시간외 수당 외에도 25%의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가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6) 급여 지급방법

급여 지급장소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되며 현지화로 지급해야 한다. 공장 작업자에 대한 급여 지급주기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근로자들의 경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 휴가제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2일씩 늘어나다가 12일에 달하는 해부터는 5년마다 2일씩 늘어난다.

근무 연수	유급 휴가 일수
1년	6일
2년	8일
3년	10일
4년	12일
5~9년	14일
10~14년	16일
15~19년	18일
20~24년	20일
25~29년	22일

자료: 멕시코 연방노동법, 2010.5.

- 법정 휴가 수당 (PRIMA VACACIONAL): 노동법에 따라서 휴가기간 임금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가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현지기업들은 업무로 인해 부득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아. 해고 절차와 조건

1) 해고 절차

멕시코에서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해고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사건 경위 조서 (Acta Administrativa)를 작성하여 문제의 종업원 본인과 증인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고용계약 종료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문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다른 한 부에는 근로자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종업원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고용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노동 분쟁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 등록된 종업원의 주소지로 동일한 통지문을 발송하며,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통고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향후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를 대비 하여 근거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연방노동법이 규정하는 “동시에 종업원이 납득하고 합의하는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종업원 해고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근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가짜 증명서나 신원 보증서로 사용자를 속인 사실이 적발된 경우
- 2) 근로자가 사용자, 그의 가족,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 인사담당자에게 부정직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폭력·위협·학대를 가한 경우. 단 상대가 화나게 만들었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는 예외
- 3) 근로자가 상기항에 언급된 행동을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여 직장내의 규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
- 4)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일로 제2항의 행위를 범하여 고용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 5) 근로자가 고의로 건물, 작업 도구, 원자재, 기타 사물들에 피해를 가한 경우
- 6) 부당한 의도는 아니지만 피해의 유일한 원인이 부주의로 5번과 같은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 7)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회사 내의 안전과 직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 8) 회사나 작업장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경우
- 9)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기밀이나 극비 사항을 타인에게 알린 경우
- 10) 사용자의 허락 또는 충분한 사유 없이 30일의 기간 중 3번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 11)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유 없이 사용자나 상관의 말에 불복종한 경우
- 12) 근로자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설정해 놓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3) 만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로 출근한 경우
- 14)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고형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 15) 상기 항목들의 내용과 유사한 이유들로서 중차대하고 또 유사한 결론을 유발하는 경우

2) 법정 퇴직금

- 자진 사직의 경우
 - 자진사직의 경우에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uardo)를 산출하여 지급하면 된다.
 -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하면서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진사직서와 법정 퇴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서명과 지문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불특정기간 계약(contrato indefinido): 3개월치 급여에 근무연수 1년당 20일치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밖에도 자진 사직의 경우와 같이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uardo)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한다.
 - 1년 이하의 특정 기간 계약: 3개월치 급여의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하여 전체 근무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1년 이상의 특정 기간 계약: 3개월치 급여의 법정 체불 임금에 더하여 근무 1년차 급여 6개월치와 근무연수별로 20일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자. 노동조합

1) 노조 결성 조건

20명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연방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회사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단체 노동 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업원 수가 20명이 넘는에도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노조의 성향

멕시코 전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노조에는 CROC, CTM 등이 있는데, 정치적 노조라고 해서 모두 강성인 것이 아니라, 같은 CROC, CTM이더라도 지역별로 성향이 다르다. 마길라도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레이노사나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에서는 CTM이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성향은 백색노조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몬테레이를 포함한 멕시코 북동부 지역의 공업도시에서는 회사에서 먼저 백색노조를 선택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채용하는 종업원들이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백색노조에 가입 하도록 하기도 한다.

차. 노무관리 기본 요령

- 한국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현지 문화와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인들을 이해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평가와 보상 제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말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종업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 현지인 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사내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다.
- 업무 지시는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다면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완료시한을 부여하고 중간 진도를 확인해야 한다.
- 유능한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두어서 전체 현지 직원들을 통솔하게 하는 것도 직원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직원들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직원을 나무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업무 과실만을 냉정하게 질책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 연봉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8. 조세제도

과세권이 연방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는 지금 급여세,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등 일부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세금이 연방세이다.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1994년 10월 6일 체결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2011년 4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가.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이다. '11. 4월 기준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은 30%이다.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25% 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인 및 개인의 투자 대상 및 주거지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Estimulo fiscal)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에서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은 광범위하다. 총 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 및 법인의 과세기간 중 얻은 소득 중 금전, 유가물(주식, 부동산 등), 서비스,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비롯하여, 은행 이자 소득도 포함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세 산출 방법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통상 법인의 소득세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 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다음, 동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 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 법 14조에 의하여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연말 세금 신고(Declaración An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법인의 월간 소득세 산출 예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득세(ISR)는 총 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 및 손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에 법인세율(30%)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이는 연말 정산 시 납부하는 방법이며 매월 소득세 납부 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적용하여 예납한다.

‘11년 4월 소득세 납부 예시

구분	내용	금액
	총 매출액	500,000
x	소득계수	이전 연도 이윤율(Ex. 0.1333)
x	법인세율	30%
=	산출세액	19,995
-	잠정 예납금	5,000
=	납부세액	14,995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소득계수는 이전 회계연도 세전 순이익 (Utilidad Fiscal)을 총 매출액(Ingreso nominal) 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예를들어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60만 달러이고 판매원가와 관리비가 각각 40만 달러, 12만 달러였다면 세전 순이익 8만 달러를 총 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때 소득계수는 0.1333이다. 소득계수의 경우 명목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주의할 것은 본 소득계수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09년도 소득계수는 '10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17일까지 전월의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출하여 부가세액 등 기타 세금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재무부 내규(Resolución Miscelánea Fiscal)에 의하여, 연방 세금(Impuesto Federal, 예를 들면, 소득세ISR, 부가세IVA, 단 일세율법인세 IETU 등)의 경우 납세자 번호(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의 6번째 숫자에 따라 납부 날짜 연기가 가능하다. (2002년 대통령령이 추후 폐지되지 않는한 계속하여 적용되며, 의무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 대기업(Grandes contribuyentes), 다국적 기업(Controladora y controlado) 및 멕시코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예외) 2010년 기준, 자신의 RFC 번호가 GOKP 590810 GK4라면, 벌금 없이 5일간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0년 5월 기준, 재무부의 결정에 의하여, 숫자가 1, 2로 끝나는 경우-->1일 연장, 3, 4로 끝나는 경우-->2일 연장, 5, 6으로 끝나는 경우-->3일 연장, 7, 8로 끝나는 경우-->4일 연장, 9,0으로 끝나는 경우 -->5일 연장 가능. 다만, 이렇게 연장 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룰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자신의 추가 기간을 사용하여 22일에 세금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정확히 매달 22일에만 납부를 할 수 있고, 그 전이나 후에 납부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일과 관련하여, 연방 조세법 12조(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는 납부일(소득세의 경우 17일)이 금~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 소득계수 적용 예외(소득세법LISR 14조, 15조)

직전 연도의 소득 계수를 당해 연도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10년에 히트 상품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겼지만 '11년에는 매출이 줄어 이윤도 대폭 줄었음에도 '10년 소득계수를 '11년에 적용하게 되면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7월부터는 당해년도 소득계수를 정정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직전 연도 회사 회계가 적자인 경우 당해년도 소득계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소득 계수가 이론적으로는 음수(-)가 되므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뿐이며, 다음해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설립 연도에는 소득 계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잠정 예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 회기후 결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며, 설립 연도(2009)에 적자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회기년도(2010)에도 소득 계수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잠정 예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 납부한다.

다만, '08년부터 자산세를 대체하는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신설되어 소득세를 납부후, 납부된 소득세를 단일 세율 법인세에 적용하여 차액을 납부한다.

- 주요 공제대상(소득세법LISR 29조)
 - 환불 및 할인 금액
 - 매출원가
 - 회사운영비용

- 투자금액(감가상각 방식에 의해 매년 일정부분 공제)
-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실액 또는 회수불능채권
- 퇴직연금 적립액
- 사회보장기금 회사부담분
- 부채 이자 지불액
- 인플레이션 조정금액
- 선수금 지불액
-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이익배당금, 사회보장기금
- 차량 구입비(175,000페소 한도)
- 부가세 납부액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비공제 대상)
- 회수불능채권

법인의 경우,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할 지라도, 영수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혹은, 물건이 법인의 영업 장소를 벗어남에 동시에 소득(Ingreso)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소득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대금 지불이 안된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공제가 되는 지 알아보자.

첫번째 가정으로서, 법에서 정한 시효가 만료가 된 경우(Prescripcion)라고 할 수 있다. 법정 시효에 대한 정의는 DF 민법 1135조에 기록되어있다

해당 서류	법정 시효 기간	관계법
소매상에게 받은 서류 (Facturas, remisiones)	1 년	상법(CCO, Código de comercio) 1043조 1항
일반 소비자로 부터의 서류 (Facturas, remisiones)	2 년	DF 민법 1161조 2항
도매상에게 받은 서류 (Facturas, remisiones, contrarecibo)	10 년	상법 1047조
Letra de cambio	3 년	채권법 (LTOC) 93조, 128조, 165조
Pagare	3 년	채권법 (LTOC) 165조, 174조
수표 (Cheque)	6 개월	채권법 192조

해당 표의 첫번째 3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소매상에게 물건을 외상(Credito)으로 들어간 날짜로부터 1년(2008년 3월 4일 물건 출고 하였을 경우, 2009년 3월 4일이 1년이 된다. 물론, 정확하게 하자면, 2009년 3월 3일이 정확히 일년이 지난것으로 간주하나, 연방 세법에 의거하여 2009년 3월 4일이 1년이 되는 해임)이 흘렀을 경우, 2009년 3월달에 공제를 할 수가 있다. 만약, 공제를 하지 않고, 해당 달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못한다.

마지막 3개의 경우에는 3년, 3년, 6개월로 법정 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채권 소송에 관련 하여서이다. 상사 소송에는 두가지 소송 방법이 있다. 일반 소송(via normal mercantil)과 채권 소송 (via ejecutiva mercantil)이며,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물건을 초기에 압류를 하고 들어가는지에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 소송이 전자보다 훨씬 더 소송 기간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기간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상사 소송의 시효가 지난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시킨다고 하였을 때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즉, 10년안에 소송 제기 가능).

수표의 예를 들자면, 6개월이 지나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면, 법인은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인이 민사 소송(Juicio Civil)을 통하여, 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20조 6항에 의거하여, 소득(Ingreso)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두번째 가정으로서, 비록 법정 시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주변 환경에 의하여 못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외상 거래를 한 시점으로 부터, 1 년이 경과 되었을 시, 외상 거래 대금이 30,000 UDI (Unidades De Inversion)를 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해당 정보를 세무서(SAT)의 방침에 의거, 신용 정보 회사법(LSIC, Ley de Sociedades de Informacion Crediticia)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용 정보 회사(Sociedades de informacion crediticia)에 제공 하여야 하며, 외상을 받은 측에게 해당 사실을 서류(Informe por escrito)로써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해당 상대방은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소득(Ingreso)으로써 계산을 하여야만 한다. 법인은 해당 외상 공제액에 대하여, 회기가 끝나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하여야만 한다.
- 만약, 외상 거래 대금이 1 년 후, 30,000 UDI 를 초과하지만, 채권자가 해당 대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경우에도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로써, 해당 법원의 판결문이 존재할 때, 혹은, 채무자가 어떠한 유산도 없이 사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정과 동일하게, 만약이라도, 채권자가 차후에 외상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으로써 계산된다.

- 로열티 및 기술지원 비용
- 기부금(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7% 한도) 등

○ 주요 공제불가대상(소득세법LISR 32조)

- 벌금(자연 재해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손해배상금액
-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광고캠페인 등)
-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 단일세율법인세(IETU), 소득세(ISR), 부가세(IVA), 특별 소비세(IEPS)
- 현금예금세(IDE)등(구체적인 공제 대상 및 조건은 소득세법 32조를 참조 바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0페소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추적이 가능한 지불 수단을 이용하고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 산서 (Factura)를 함께 첨부하여 증빙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31조 3항) 그리고 회사 운영비용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출장 시 식비의 경우 국내에선 1인당 750 페소 이하, 국외에선 1,500 페소 이하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숙박비의 경우 1박에 국외의 경우 3,850 페소까지, 국내의 경우 무제한, 육상 교통수단의 경우 국내외 850페소까지 인정되며, 해당 지출에 대하여 교통 혹은 숙박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이는 회사 경영자나 오너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기준이므로 운영비 지출 시 이를 회계사와 확인 하고 지출하도록 한다.

나. 단일세율법인세(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única)

□ 단일세율법인세(IETU) 개요 및 산출 방법

단일세율법인세는 2008년 1월1일부로 자산세를 대체하여 신설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징세와 이전 소득세 체제에서 가능한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첫 납세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단일세율법인세에서는 공제범위 설정이 중요하나 그 공제범위를 투자, 재고,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및 임차에 한정하고 있다.

단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산정되지만, 일단 과세대상자는 산출된 세액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실제 과세액보다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 세율은 '08년에는 16.5%, '09년에는 17%가 적용되었으며, '10년부터는 17.5%가 적용된다. (단일세율 법인세법 LIETU 1조, 부칙 4조)

긍정적인 것은 직접 설비 투자 및 구입 물품에 대하여 당해에 전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R의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는 감가상각 방식으로 매년 일정 비율씩을 지출로 인정하여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 비용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봉급(Salario) 및 사회 보장세(IMSS)와 근로자 주택 기금(INFONAVIT)에 대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제가 아닌 세제 혜택 (Credito Fiscal)이란 항목으로 간접적인 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대부분 동일한 결론이 산출되지만,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 과세대상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3조)
 - 개인 (Persona Fisica): 개인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 포함)
 - 법인 (Persona Moral o Juridica Colectiva): 소득세 납세 대상기업
- 과세 면제자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4조)
 - 봉급생활자, 정부산하기관, 정당 및 노동조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기부금 수취자, 비영리 법인(상업, 산업, 전문직), 납세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면제대상으로 인정된 농축 수산업, 임업 종사자 (소득세법에서 정한 제한된 금액한에서 면제)
- 동 세금의 목적상 과세표준 계상 시 포함되는 경제 활동은 아래와 같다.
(단일세율 법인세법 LIETU 1조)

- ① 재화의 판매
- ② 독립된 서비스 제공
- ③ 유무형 자산에 대한 사용 및 임대

- 즉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파생금융거래, 로열티는 기업단일세율법인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이득이나 지출은 과세대상도 공제대상도 아니다.

- 단일세율법인세(IETU) 산출방법

단일세율법인세(IETU) 산출 예시

구분	내 용	금 액
	단일세율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총 매출액	50,000
-	세법상 인정된 공제액	15,000
=	과세표준	35,000
x	세율	17.5%
=	산출세액	6,125
-	① IETU 환급액(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아래 표 참조)	879.99
-	②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아래 표 참조)	4,900
-	'98 - '07년까지 직접투자로 인한 세금환급액	0
-	기타 환급액(Ex. 구 자산세 등)	0
-	동월 소득세(ISR) 납부액	200
-	이전 회계연도 소득세 예납액 중 환급액	0
=	납부세액	145.01
-	동일 회계연도 내에 IETU 예납액	20
=	최종 납부세액	125.01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총 매출액에서 공제액을 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IETU 환급액, 소득세 상계액,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등을 따로 산출 후 공제한다. 나머지 소득세 등은 당월 예납액에 준하여 공제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1.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세금환급'과 '2.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세금환급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는 신규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시행한 이후 당해 회계연도에 총 매출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IETU 환급액

	내 용	금 액
	총 매출액	65,000
-	공제금액	70,000
=	과세표준	- 5,000
x	세율	17.5%
=	IETU 잠정 환급액	- 875
x	해당 회계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	1.0057
=	IETU 환급액	- 879.99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② 임금 및 사회 보장 기금 공제액

임금 및 사회 보장 기금 공제액의 회사 부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제 계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계정 (Credito Fiscal)을 만들어 계산한 후 공제한다. 임금에 사회보장기금 납입금을 더한 후 이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과 곱하여 산출한다.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예시

	내용	금액
	임금	20,000
+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8,000
=	합계	28,000
x	세율	17.5%
=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4,900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주요 지출항목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5조) 회사운동을 위한 제품 장비의 구입, 서비스의 이용, 유무형자산의 임차 비용
 - 부가세 (IVA)와 생산 및 서비스 특별세(IEPS)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기금 (소득세 단일세율법인세는 제외)
 - 환불 및 할인해준 금액
 - 불가항력 및 재난, 제3자에 의한 손실액
 -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 이익금의 7%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기부금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가액
- 주요 비공제 대상 지출로는 급여 및 각종 수당, 로열티 지급, 은행 이자지급, 주식구매 등이 있으며, 급여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제를 하고 있으나, 이전에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제공되었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와 단일세율법인세 간 납부 관계

경우의 수	소득세 산정액	단일세율법인세 산정액	실제 소득세 납부액	실제 단일세율법인세 납부액
1	150	130	150	0
2	130	150	130	20
3	0	150	0	150
4	100	0	100	0
5	100	100	100	0
6	0	0	0	0

자료: 멕시코 재무부

소득세와 단일세율법인세 비교

소득세(ISR)	구분	단일세율법인세(IETU)
개인, 모든 개인 사업자, 법인	납세의무자	일부 개인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봉급생활자, 공무원, 정당 및 노동조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기부금 수혜자, 각종 협회(상업, 산업, 전문직), 농축수산업, 임업 종사자는 해당 안됨)
포괄적인 소득 행위:(총소득)-(총지출)	대상 행위 (과세 표준)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재화와 부동산의 임대 에 의한 소득행위 (재화 및 용역의 판매 및 임대 에 의해 얻은 소득) - (투자, 재고,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및 임차에 지출한 금액)
매출원가, 회사운영비용, 투자 금액(감가상각방식), 환불 및 할인금액, 회수 불능 채권 가액, 부채 이자 지불액, 인플레이션 조정 금액, 선수금 지불액, 노동자 지급 임금 및 이익배당금, 차량 구입비, 로열티 및 기술 지원 비용, 세금 납부액(특수한 경우에만 해당), 연기금 납부액(퇴직 연금, 사회 보장 기금), 기부금	주요 공제 인정 대상	직접 설비 투자금액(전액공제), 환불 및 할인 금액, 회수불능채권가액, 구입 물품 금액, 회사 물품 구입, 서비스 이용, 유무형자산 임대 비용,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액, 세금 납부액 (부가세IVA, 특별세 IEPS,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 연기금 납부액(생명보험, 퇴직연금, 사회보장 기금), 기부금
벌금, 손해배상금액,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광고캠페인 등),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단일세율 법인세(IETU), 현금예금세(IDE), 소득세(ISR), 특별 소비세 (IEPS), 부가세(IVA)	주요 비공제 대상	급여 지급, 각종 수당 지급, 로열티 지급, 은행 이자 지급, 주식 구매 비용(급여의 경우 간접 공제) 법인세(IETU), 현금 예금세(IDE), 소득세(ISR), 특별 소비세(IEPS), 부가세(IVA)
법인: 30%, 개인: 1.92% ~ 30% 법인은 직전회계년도의 소득계수를 적용 하여 매달 예납 후 연말 정산, 개인은 매월 소득 금액에 따라 납세 후 연말 정산함.	세율 및 계산 방법	16.5%('08), 17%('09), 17.5%('10~) 매달 국세청에서 지정한 계산 Table에 따라 계산하여 예납하고 연말 정산함.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양도, 이자, 퇴직, 기타 소득세 등 모두 포함)	한국의 유사 세금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양도 소득세에 한정)

자료: KBC 종합

다. 부가가치세(VAT/IVA:Impuesto sobre el Valor Agregado)

- 세율: 16%, 11%, 0%
- 식품, 약품, 의사 면허증 소유 의사 진료, 농수산물축업 장비, 비료, 토지 및 주택, 서적 및 정기 간행물, 대중 교통요금, 교육비, 수출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부과된다.

라. 현금예금세(IDE: Impuesto a los Depósitos en Efectivo)

동 세금은 직접세로서 현금유통을 규제하여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비제도권(지하) 경제부문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전 소득세의 흠결을 보완하고 탈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동 세금은 소득세 및 기타 연방 세금과 상계가능하며, '08년 7월 1일부터 징수되었다.

세율은 3%이며 매월 15,000페소 이상(입금 횟수는 상관없음) 현금으로 입금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동 금액 이하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동 세금은 매월 말일 각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국세청으로 이체하며, 동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 정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한다.

현금 예금세 산출 예

	Case 1	Case 2	Case 3
월현금입금액	145,000	35,000	14,000
면제금액	15,000	15,000	15,000
과세표준	130,000	20,000	0
세율	3%	3%	3%
부과세액	3,900	600	0

자료: 멕시코시티 KBC 정리

- 과세 면제 대상
 - 연방 시, 군, 구 정부 기관 및 공기업 등 소득세 면제 대상기관.
 - 비 영리기관
 - 은행 및 금융기관
 - 대사관 및 영사관
 -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수표, 계좌이체, 전산입금 금액
- 타 세금과의 관계
 - 납부한 현금 예금세(IDE)금액은 매월 또는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ISR)가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 납부된 현찰 입금 과세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상계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다른 연방세로 상계할 수 있다.
 - 상계 이후에도 남을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고용 관련 세금

- 지급 급여세(payroll tax/Impuesto sobre las Nóminas): 2.5% (D.F, Estado de Mexico), 2% (Jalisco, Nuevo Leon), 1.8%(Baja California), 1.6%(Queretaro), 등등 각주마다 차등 적용
- 고용주세: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premiums/IMSS), 퇴직충당금(mandatory retirement savings system/SAR),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등으로 직원의 급여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나, 대략 25~37% 정도이다.

바. 기타 세금

-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4.9~30% 과세
- 부동산 취득 시 자산가격의 2% 부과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멕시코 금융부분 동향

멕시코의 금융분야는 1994년 폐소화 위기 이후 기반이 탄탄해졌다.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는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파산 및 대부법 개정, 연금펀드의 민영화, 외국 금융기업의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2000년과 2003년에 이루어진 파산과 대부에 관한 개혁은 채권자의 채무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연금가입자가 연금관리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은행과 지주 회사가 연금펀드를 운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경쟁이 확대되었고 이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 졌다.

현재 금융분야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80%에 이르는데 외국계 은행의 참여는 멕시코 금융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거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은행의 재정상태가 튼튼해졌으며 선진 금융권의 경영방식, 위기관리기법 도입으로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 은행대출중 소비자대출 및 주택대출은 2005~2006년간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이자율 인하 및 낮은 인플레이션이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대출 규모는 GDP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출의 장애요소로 높은 이자율을 꼽는 반면, 은행은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신용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많은 기업은 자신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거대기업은 납품기업에 자금을 대부해 주고 납품기업은 제품으로 되갚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현지 자금 조달 (은행 계좌 개설)

투자진출기업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한다. 일단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멕시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을 위한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요건

-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 및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취업비자(FM3) 및 영주권(FM2)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출상품 및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은행, 혹은 거래처의 추천서 5매가 필요하다.

2)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법인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사업자등록증(Acta Constitutiva), 소유권 및 영업 등록증(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y del Comercio) 사본. 상기 등록증의 변경시 변경내용 사본 포함
 - 위임자 지정서류 사본. 위임자는 대출계약서에 사인함.
 - 법인대표, 위임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FM2, FM3 비자 사본 제출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금융정보 제출
 - 재무재표를 포함한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대출은행에 따라 3년간의 내역서, 혹은 최근 90일 이내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의 연간 세무신고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개좌 개설 시 개인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신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FM2, FM3 비자 사본 제출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최근 연간 세무신고내역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사본인 경우는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하는 것이 편리하다.

3) 대출 금리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높은 편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보다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금리는 대출은행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액 및 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담보 조건에 따라 변동하기도 함.
- 2010년 5월 기준 멕시코 시중은행의 법인대상 대출상품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BANAMEX 은행 대출 금리

상품명	대출 한도	기간	연 이율	수수료
기업 리볼빙 대출 Crédito Revolvente Impulso Empresarial	350만 페소 (27만 달러)	12개월	TIE + 14.2%	1%~
일반 대출 Crédito simple Banamex	1천만 페소 (77만 달러)	12개월	TIE + 5%	없음
자동 대출 Línea Automática Banamex	3백5십만 페소 (27만 달러)	12개월	TIE + 22.33%	1%~
담보 대출 Crédito con Garantía Hipotecaria	5천5백만 페소 (423만 달러)	5년	변동: TIE + 3~10% 고정: 12.5~16%	0.5%~

주1: TIE- 중앙은행 지정 은행간 대출금리. '10. 5. 27 기준 4.9491%

주2: 적용환율- 1달러 = 13페소

자료: BANAMEX (2010.5)

다. 외환 관리

멕시코 연방 재무부는 달러 현금의 입금 및 환전등의 거래에 관한 규제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의 달러 현금 거래 규모의 제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달러 현금의 유입 정상화 및 달러 현금 입금으로 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 15일 발표된 연방 관보에는 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 현금의 입금 및 환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관광지, 국경, 항구지역에서는 월 7000달러에 한해 달러 현금 입금이 가능하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티후아나의 경우 약국, 상점, 주유소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이 가능하나 달러를 받아도 환전이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나, 이를 폐소화로 바꾸면서 각종 수수료가 들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및 특성

1) 시장 규모면: 중남미 최대의 수입품 소비시장

연간 수입 시장 3,015억 달러('10년)인 중남미 최대 교역시장으로, 대한민국수입은 128억 달러('10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9,242달러, 인구 1억 1,234만 명의 대형 소비시장('10년)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51.8%의 인구가 한달에 약 430불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빈부격차가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하다.

2) 시장 구조면: 대미 의존형 시장, 상권 지방 분산

- 대미 교역이 전체교역의 64%로 압도적 비중 점유 및 의존도 높음('10년)
- 총 수출액 중 대미 수출비중은 2010년 말 기준 79.9%, 총 수입액 중 대미 수입비중은 48.1%에 달하고 있다.
- 미국과 3,300 Km의 국경 인접 및 NAFTA 이후 미국의 생산·판매 기지화
 - 미국이 멕시코 내 외국인투자 총액의 약 51%를 차지한다. ('1999~'2010년 누계 기준)
- 상권의 3대 도시 집중
 - 멕시코시티(41%), 과달라하라(22%), 몬테레이(21%) 등 3대도시에 상권의 84%가 집중되어 있다.

3) 시장 수요면: 방대한 원부자재, 부품시장, 대형 프로젝트 시장

- 대형 국제입찰 프로젝트 시장 발달
 - 특히 석유화학 및 발전 등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거대시장 형성되어 있다.

4) 시장 형태(관행)면: 가격시장, D/A 보편화 시장

- 뚜렷한 가격 우선 소비 패턴
 - 멕시코 소비자 80% 이상이 제품구입 시 가격요인을 최우선 고려한다.
- D/A, D/P 방식 상거래 보편화
 - L/C 방식보다 D/A, D/P 선호하며, 통상 60~90 일의 D/A 요구가 상거래 관행이다.

나. 소비 특성

1) 빈부격차로 인한 소비 시장 양극화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은 전반적으로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하는 “가격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수입품도 고급품과 저급품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고급품들은 주로 일류 백화점들 이나 부유층 거주지역의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데 브랜드가 가장 큰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

고급품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상표가 거의 다 진출해 있으나 이 같은 상품의 소비는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이며 대부분의 서민은 일반 슈퍼 및 재래시장에서 값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2) 연말, 연초가 대규모 구매 시즌

일반 소비재의 경우 가장 큰 구매시즌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인데,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선에게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 외에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 가장 어린이용 선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이며, 기타 주요한 날들을 살펴보면 발레타인 데이 또는 연인의 날(DIA DE VALENTIN 또는 DIA DE AMOR Y DE AMISTAD, 2월 14일), 어머니 날(5월 10일), 아버지 날(6월 16일), 어린이 날(6월 30일) 및 3월 말 내지 4월 초순경의 부활절(SEMANA SANTA) 등이 구매가 높아지는 날이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인데 여름보다는 겨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용품의 구매시즌은 통상 12월경이다. 또한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 말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가 통상 구매시즌이다.

3) 상권 유태인, 레바논계가 지배

멕시코 경제는 전체 인구의 약 9% 정도인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유태인들의 상권 진출이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특히 섬유류 수입의 경우 이들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많다. 멕시코 대기업 및 유통시장은 주로 레바논계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신기업 TELMEX, TELCEL, 유통기업 CHEDRAUI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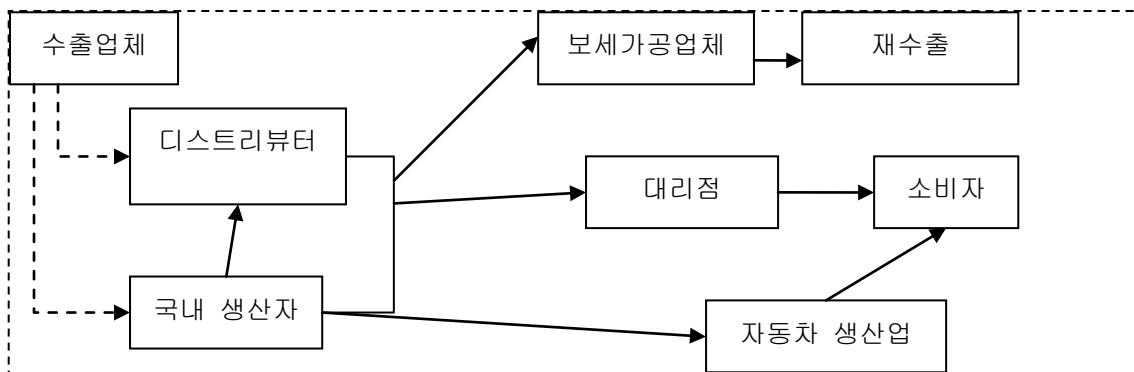
다. 한국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식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약 64%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몇 개 업체에 카탈로그 몇 부를 보냈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조바심내서는 안 되며, 금방이라도 주문을 할 것 같은 바이어도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는 데 심지어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라. 유통채널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유력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용 휠 품목을 통해 본 상품의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다.



자료: KBC 종합

마. 유망상품

멕시코는 수입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시장동향을 반영하여 KBC에서 선정한 유망상품은 아래와 같다.

멕시코시티 KBC 선정 유망상품

	품목명	선정사유
보안 산업 제품	디지털 도어락	도난사태가 증가하면서 점차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기업고객 및 고급주택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무선 항법 장치	GPS시장은 금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 시장으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단순히 길을 찾기위한 기능에서부터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장비로써의 수요가 적지 않음.
	안전 금고	2010년부터 현금 15000페소(약1000불)이상 예금시, 이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의 현금예금세(IDE)를 부과하기로 세율이 강화되면서 안전 금고의 2009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40%정도 급증하였음. 또한 치안 악화가 금고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

	품목명	선정사유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기	2009년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우리기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스페코의 풍력발전타워 생산라인이 준공되어 가동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풍력 발전기 이외에도 소형풍력발전기 수요도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재 멕시코 바이어들의 공급선 문의도 종종 들어오고 있어 한국업체들의 멕시코 소형풍력발전기 시장진출에 관심이 필요함.
	태양광 모듈	태양광모듈은 정부의 격조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통해 자가발전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태양광발전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임.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인은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관심가지고 진출을 꾀해야 할 것임.
에너지 절약 제품	LED 조명	그동안 전광판 등에 집중되어 있던 LED가 조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GE등의 대기업들도 멕시코에 LED램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절약기금(FIDE)에서는 LED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LED조명 시장은 향후 몇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절약형 전구	2009년 1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에너지절약형전구교체 프로그램을 CD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 우선 시범적으로 50만개의 에너지절약형 전구 교체에 보조금 지급예정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모든 백열 전구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백열전구의 유통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PVC창호	동 제품 역시 건설경기와 동행하는 제품으로 현재는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임. 멕시코의 샤시분야에는 고층 빌딩이나 가정 집 모두 PVC 샤시 보다는 알루미늄 창호가 사용되고 있음. 이는 아직까지 멕시코 창호 시장에서 PVC를 이용한 샤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알루미늄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임. 하지만 PVC창문의 단열효과와 소음 차단 효과가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고급주택 및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의료 기기	혈당 측정기	멕시코에서는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연간 7만명일 정도로 심장 질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위한 혈당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환자용 모니터	국내산은 품질이 떨어져, 기능, 기술, 디자인 면에서 우수한 수입품이 인기가 있음. 주방용품의 경우 기능성이나 아이디어 제품 시장성 큼
	치과용품	치과용품 시장은 계속하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현지바이어들과 면담한 결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도리어 한국업체중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는 의견을 보임. 멕시코의 치과 시장은 향후 성장이 유망하며 바이어들도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멕시코 시장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 KBC 2011. 3

2. 물가정보

가. 멕시코시티(멕시코) 기초 통계 자료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목 1인당 GDP(USD)	8,867	9,433	9,892	7,744	9,242
명목 물가상승률(%)	4.05	3.8	6.53	3.5	4.4
최저 임금상승률(%)	4.0	3.9	4.0	4.6	4.85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10.90	10.93	11.13	13.51	12.64

나. 멕시코(멕시코시티) 물가정보 (1 US\$ = 11.9084 Pesos / 2011년 4월 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Pesos)
식품류	쌀 1kg	20
	계란 12개	21.50
	쇠고기 등심 1kg	184
	돼지고기 등심 1kg	85
	우유 1L	12.2
	식용유 1L	28.6
	생수 1L	6.9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85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8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2
	김치찌개 1인분	12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7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900
	병원진료비 (공공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Toyota Camry, 기본사양)	360,000
	무연휘발유 1L	9
	자동차 등록비	차가격의2%(매년)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의무아님, 13,826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2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3
	시내버스 기본요금	5
	택시 기본요금	22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3.48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4.41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3.2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99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0,8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4,65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7,83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USD 259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570
임금/노무	대출 초임(중상급 대출,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6,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4,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3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90
	연간 국경일수	법정공휴일 7일
	주5일 근무 여부	Yes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70

자료: KBC 자체 조사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활용

멕시코는 산업 별 전시회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작은 편이나,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포장 전시회 등 주요 전시회의 경우 행사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 멕시코 주요 전시회 내역은 멕시코시티 KBC홈페이지(www.kotra.or.kr/mexico) 전시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2) 주요 디렉터리 활용

디렉터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 de Fabricante de autopartes (자동차부품 디렉터리)	INA (자동차부품협회)	Av. Col. Del Valle No. 607, Col. Del Valle, México, D.F. C.P. 03100	(5255) 5682-5862	(5255) 5669-3842
Directorio de exportadores (수출기업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Importadores (수입기업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grandes compradores (대형구매업체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empresas mexicanas (멕시코 기업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s de consultorios (컨설팅회사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l gobierno (정부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s de proveedores (공급업체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asociaciones (협회 디렉터리)	IBCON	Gutenberg 224 Col. Anzures C.P 11590 México D.F	(5255) 5255-4577	(5255) 5255-4577
Directorio de tiendas De autoservicio y departamentales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 디렉터리)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협회(ANTAD)	Horacio 1855, Piso 6, Col. Chapultepec Morales, Mexico D.F.	(5255) 5580-1772	(5255) 5580-1772

디렉터리명	출판사	주소	Tel	Fax
Directorio de asociados (회원사 디렉터리)	향수, 화장품, 위생제품협회 (CANIPEC)	Gabriel Mancera No. 1134, Col. Del Valle México, DF 03100	(5255) 5575-3108	(5255) 5559-9018
Trade Directory of Mexico (멕시코 무역 디렉터리)	Bancomext	Periferico Sur 4333, Col. Jardines de la Montana, Mexico D.F.	(5255) 5449-9008	(5255) 5449-9028
Directorio de plástico (플라스틱 산업 디렉터리)	CamSolution	Periferico Sur 3453, Col. San Jeronimo, México D.F.	(5255) 5668-6887, 5668-6889	(5255) 5668-6890
Directorio Nacional de Calzado (신발 산업 디렉터리)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Calzado / Editorial Lair	Bld. Adolfo Lopez Mateos 3401 Ote, Fraccionamiento Julich de Obregon, Leon, Guanajuato	(52477) 711-5210	(52477) 711-4120
DIRECTORIO DE EMPRESAS (유류, 비누, 세제 협회 회사 디렉터리)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ACEITES, GRASAS, JABONESY DETERGENTES	CORDOBA No. 10 COL. ROMA DELEGACION CUAUHTEMOC C.P.06700 MEXICO, D.F.	(5255) 5511-5263	(5255) 5511-9218
Directorio nacional de la industria papeleray de computación (문구류및 컴퓨터산업 디렉터리)	PUBLITEC	Arquímedes # 199 piso 4 despacho 400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5255) 5250-4125 5250-4135	(5255) 5250-4125
Directorio de Socios (의류협회회원사디렉터리)	CNIV (의류협회)	Manuel Tolsá 54, Col. Centro, CP 06040 México, D.F.	(5255) 5588-7822	(5255) 5578-6210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번호	자료원명	홈페이지	참고사항
1	Cosmos	www.cosmos.com.mx	산업전반
2	Thomas Global	www.thomasglobal.com	산업전반
3	Quiminet	www.quiminet.com	화학산업
4	ANIPAC	www.anipac.com	포장산업
5	Seccion amarilla(전화번호부)	www.seccionamarilla.com.mx	산업전반
6	건설 디렉터리	www.construye.com	건설
7	Reportero Industrial	www.reporteroindustrial.com.mx	산업전반
8	신발산업 디렉터리	www.directorionacionaldelcalzado.com.mx	신발 및 원자재
9	Guía NEI en México	www.guianei.com.mx	산업전반
10	Conexión Industrial	www.conexionindustrial.com	산업전반
11	Todo en plastico	www.todoenplastico.com	플라스틱산업
12	Sistema de Información Empresarial(기업정보시스템)	www.siem.gob.mx	산업전반
13	Concamin(멕시코산업협회연합)	www.concamin.org	산업전반

주: 대부분의 사이트가 스페인어로만 정보가 제공됨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시 유의사항

1) 악수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 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을 가진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꼭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해야 한다.

2) 유머 상술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 유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이다.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라든지 문화 유적,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 멕시코인의 친절성, 데킬라와 코로나 맥주의 한국 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스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할인 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 인들은 값을 깎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터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값을 깎는 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감안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 인하를 요구 받으면 못 이기는척 할인해 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놓으면 아예 깎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

4) 신뢰도

멕시코 인들은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기분이 상해 대화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약속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 시에는 곧 거래를 할 것 같이 말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또한 멕시코 인들은 NO라는 대답을 별로 안 하는 편이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기보다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화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전화하면 항상 자리에 없으며, 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연락이 없는 경우는 대답이 NO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아울러 거래 시작을 위한 교신에 있어서도 당장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회신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급한 성격을 보유한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나. 멕시코 비즈니스 문화

1) 멕시코시티 인은 타산적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기질은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상당히 타산적이며 이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모습을 보인다.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멕시코 인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전통적인 원주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지나치게 셈이 밝고, 평소에 친분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지방사람들은 멕시코시티 사람들을 칠랑고(CHILANG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소 경멸하는 뜻이 있다.

2) LADY FIRST 일반화

멕시코는 남성우월주의인 마치스모(Machismo)가 지배적인 사회이나, 매너에 있어서는 서양식의 여성 존중 예절이 발달하여 LADY FIRST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3) 선물 주고받는 문화 일상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은 경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선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현지인들이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인삼차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토속적인 장식품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 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 확보 중요

멕시코 진출 시 전국적인 배급망을 지닌 안정적인 대형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 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 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수출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5) 시장관리와 제품관리 필요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 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6) 출장 시기 조절 필요

7~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이며, 부활절 기간도 대표적인 휴가기간이므로 현지 출장 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7) 스페인어 습득 필수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 외로 영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에 비해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상호 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와 거래 시 간단한 회화라도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면 한결 상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므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멕시코 인들은 여간 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민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 바이어와의 거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도록 심히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9) 불분명한 시간 개념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따(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측 수출 상의 오퍼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따 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면 또 아오리따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따라서 아오리따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다간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내인지, 1시간 내인지, 오늘 중인지, 또는 몇 월 며칠까지인지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0) 기타 일반적 에티켓

멕시코 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인사치레의 말을 매우 즐겨 한다. 하찮은 도움에도 "Muchas gracias"(Thank you very much)를 연발한다. 이는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며,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극히 꺼리는 문화에서 나온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여간해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 동양인들이 무례한 사람들로 비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멕시코 인뿐만 아니라 서양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다.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교양 없는 행위로 여긴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소리를 내면서 그것도 재빨리 먹어 치우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는 하나 식사 시간만큼은 매우 느긋하다. 음식을 찬찬히 맛 보며 "즐거는" 멕시코 문화와 서둘러 한끼 "때우는" 한국의 문화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겠 지만 상담을 성사시키거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호칭 관련 에티켓

1) 학위 호칭

멕시코에 첫 출장 오는 우리 세일즈맨들이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한 뒤 이름 앞에 붙은 릭(Lic.) 또는 잉(Ing.)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는 호칭을 중시하는 사회로 호칭은 곧 사회적 신분이며 자존심의 표상이다. 우리의 경우 박사가 아닌 이상 이름 앞에 또는 뒤에 석사나 학사나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반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나 스페인 등에서는 이름 앞에 반드시 학위를 붙여서 명함을 파며,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학위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문사 회계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이름 앞에 LIC. 라는 표시를 하며,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ING. 라는 표기를 한다. LIC.이란 LICENCIADO의 약자이며, ING.은 INGENIERO의 약자인데,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할 때 명함에 LIC.가 있으면 상대방을 "리쎬씨야도"(여성인 경우에는 리쎬씨야다)라고 호칭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ING. 이 찍혀 있으면 "잉헤니에로"(여성인 경우에도 동일)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석사의 경우 MAESTRO라는 호칭이 있긴 하나 일반적이지 않으며 보통 LIC. 나 ING. 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름 앞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경우 또는 상대방의 호칭을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SEÑOR(세뇨르/SIR 또는 MR.의 의미) 또는 CABAL-LERO(까바예로/GENTLEMAN의 의미)라고 칭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SEÑORITA(세뇨리따)라고 칭하는 것이 좋다. 원래 세뇨리따는 영어의 MISS 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MISS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경우라도 영어의 MRS.에 해당하는 SEÑORA(세뇨라)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세뇨리따라고 불러주는 것이 무난하다. 기혼자라 할지라도 세뇨라로 부르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뇨라로 불러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MIDDLE NAME과 LAST NAME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인들과 스페인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만을 쓰거나 두개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성은 반드시 두개를 쓴다. (물론 기혼여성인 경우에는 남편 성까지 세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종종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미국식 관점에서 흔히들 LAST NAME이 곧 성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으나 스페인어권에서는 LAST NAME은 모계 성을 의미하며 LAST NAME 직전의 것 곧 MIDDLE NAME이 부계 성, 즉 진짜 성이다.

이들의 성명은 보통 3단어 또는 4단어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개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뒤에서 두 번째가 성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전 멕시코 대통령 이름인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에서 에르네스토는 이름, 세디요가 부계 성, 쎬세델레온이 모계 성이다. 그런데 모계 성이 세 단어로 떨어져 있어 어느것이 진짜 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름 사이에 DE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것이 성인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 뒤집어보면 이해가 한결 쉬워진다. 예컨대 홍길동의 경우 영문 표기 시 '길동 홍'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MR. 동 또는 MR. 동 홍으로 부르는 경우를 왕왕 접하게 된다. 이는 결국 뒤에서 두 번째를 성으로 파악하는 이들의 관습 때문이다. (모계 성만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라. 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1) 소량 주문 위주

멕시코 시장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시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2) T/T 송금 방식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함.

멕시코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L/C방식보다 D/A, D/P거래 방식을 선호하며, 통상 60~90일의 D/A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 시 50%, 선적 시 50% 등 T/T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노무관리 어려움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합법적인 해고가 힘들어 노동 유연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사퇴서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용 계약이나 사회 보험 등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여 이후에 직원의 회사 상대 소송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해 있어 멕시코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높은 반면 의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아 적합한 능력을 지닌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다.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도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수동적이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일 처리 및 대처가 어렵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구체적 상황별 대처 방안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한다.

공장 노동자의 경우 무단 결근 등 근무가 태만하여 생산성이 낮는데 비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근 및 조퇴, 결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 두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 비숙련 단순 노동자의 경우 1인당 임금이 미국의 1/3~1/4 수준이라고 하나 잦은 이직 및 인력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만큼 싸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임금 인상률이 높은 편이어서 쓸만한 고급인력은 연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월급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상사와 직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퇴근 후 회식을 하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멕시코에선 회사 내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는 업무상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사를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업무에 있어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멕시코 직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좋으며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나. 비 효율적인 행정처리

관공서 및 은행 등의 업무 처리가 매우 느려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 시 공장용 전력을 끌어오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식이다. 일반적인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업무의 정확도도 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처리 기한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지 않고 마냥 기다리면 더욱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말(주로 12월 10일 이후)에는 많은 관공서가 익년 초까지 업무를 중단하기 때문에 연말 중 행정 업무는 거의 불가능하다.

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인해 단순 행정 업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관공서 또는 은행 등 공공 기관에서 동일한 일을 다른 기관에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 처리 시 규정에 의한 처리보다는 담당자 임의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내부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능한 한 결정권자인 사장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교신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이 관련 실무자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정권자와 실무자에게 함께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화 또는 메일로 자주 연락하고, 메일을 보냈어도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줄 수 있는지도 정확히 물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언어 장벽

미국과 인접해 있지만 유명 호텔이나 전문직업 종사자를 제외하곤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통관 서류 등 주요 서류 또한 원칙적으로는 영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통용되지 않아 스페인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영어를 조금 익힌 사람들은 서투르더라도 영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므로 그런 사람에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라. 금융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금융 서비스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인데 멕시코에선 한국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의 질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며, 담당자와 지점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고객이 은행의 업무 처리 미숙 및 실수로 금융 사고를 당해도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각 지점별로 책임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멕시코 바이어와 거래 시, 멕시코 은행의 L/C관련 규정이 까다로운 등 한국과 달리 L/C를 여는 비율이 낮다. 멕시코 수입상들은 L/C보다는 D/A나 D/P를 선호하며, 대개 60~90일 짜리 D/A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멕시코 기업들의 신용도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거래부터 D/A나 D/P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 그러므로 T/T 분할 납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마. 통관 서비스

통관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통관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 내지는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리어 비리 가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능한 한 확실한 통관사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통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뛰어난 품질과 끈기 있는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열세 극복

□ 회사 개요

- T 사는 배낭, 여행 등 각종 가방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2 년 멕시코 한국 상품 전에 참가하면서 처음 멕시코와 인연을 맺었다. 전시회 참가 이후 멕시코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곧바로 멕시코시티 KBC 에 지사화 사업을 신청, 시장공략에 나섰다. 멕시코 시티 KBC 는 초기에는 스포츠용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동사 제품이 비록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는 없으나 디자인, 가격 등 품질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멕시코 대형유통망 시장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 멕시코의 한국상품 인지도

- 멕시코 대형 유통체인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 중국 수입산과 국내산이었다. 한국산 제품이라고는 삼성, LG, 대우 등 세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고 멕시코에 투자 진출 기반을 둔 한국 기업들의 가전 제품뿐이었다. 이러한 시장에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T 사는 장기적으로 펼친 꾸준한 마케팅 활동으로 멕시코 대형 유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성약 과정

- 처음으로 진출한 대형 유통체인은 Sam's Club 이었다. 첫 주문까지의 준비 과정은 무려 1 년이나 걸렸다. 멕시코시티 KBC 는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공과 전화, e-메일 교신을 통해 구매 담당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밀착 지원을 했으며, T 사는 샘플 제공과 가격 조정으로 바이어의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3 년 말에 Sam's Club 으로부터 첫 주문을 받으면서 T 사는 멕시코 대형 유통 시장에 첫 발을 딛게 되었다.
- 한 유통업체에 공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지만 멕시코시티 KBC 와 T 사의 꾸준한 마케팅 활동 끝에 좋은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그 동안 상담을 진행해 왔던 Walmart, Sears, Marti 등 5 개 대형 유통체인과도 거래하기 시작했으며, 한창 시장 확장 중이다.

□ 성공요인

-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뛰어난 품질과 시장진출을 위한 끈기이다. T 사의 제품인 가방은 EASTPAK, JANSPORT 등 국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난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더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Sam's Club 등 대규모 유통 체인에 진출할 수 있었다.
- 거래가 성사되기 1 년 까지 T 사는 한 건의 주문 성사에 목 메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 끝에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면밀한 시장조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성공의 지름길

□ 회사 개요

- 서울의 D 사는 방진복 원단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국제적으로 미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업체이다.

□ 품질, 가격, 밀착지원

- 방진복 원단생산업체 D 사는 품질과 가격 그리고 KBC 의 밀착지원으로 방진복원단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동 사는 방진복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사화 사업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였다.
- 멕시코 전체 방진복 원단 시장 규모는 5 백만불 내외이다. 동 제품은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다른 원단시장과 달리 중국산제품은 거의 진출하고 있지 못하다.



- 동 제품의 경우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경제침체의 영향이 적은 편으로 현재도 일정 수준의 시장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 현재 D 사는 연 100 만불~150 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기존 강자인 미국계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주요이유는 품질이 우수하여 미국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가격 또한 약 10%가량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폐소화 환율인상으로 인해 미국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시장점유율 25% 달성: 점유율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자료는 없으나 바이어 면담을 통해 입수한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Burlington (미) 40%, Chenstat(미) 25%, Allkey(대만) 10%, D 사(한국)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최근 대만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시장점유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중국산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진출이 매우 미미한 편이다.

□ 성공요인

- KBC 지사화 담당자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지원의 성과: 멕시코 바이어의 일반적인 특성은 보수적이고 조심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제품의 경우는 이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됨. 멕시코 바이어는 초기 동 제품 수입을 결정하고 멕시코 국내 공급선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사화사업 및 시장개척단 참여 등을 통해 적절한 바이어들을 발굴하여 밀착 지원하고, 코트라를 통해 바이어들의 신규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현재는 동 업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브랜드로 통하고 있다.

나. 실패 사례

1) 자기 제품에 대한 과신 및 현지 트렌드 파악 미숙으로 인한 협상 실패 사례

□ 멕시코 시장 트렌드

- 품질보다는 가격 우선 시장
 - 멕시코는 1 억 1000 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44 개국과 FTA 를 체결하고 있는 등 내수 및 수출기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쟁 또한 치열하여 값싼 중국산 섬유 및 소비재 등이 많이 진출해 있어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현지 바이어 또한 구매협상 시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가격이다.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 해도 가격이 적당하지 않으면 거래는 성사되기 힘들다.

□ 회사 개요 및 바이어 발굴 경로

- 서울의 S 사는 지붕 방수를 위한 지붕 방수 보강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동 제품은 건물 건축 시 방수액보다 나은 방수효과를 지녀 가옥,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 때 필수 원 부자재로 꼽힌다. 동 사는 기존 제품보다 방수효과 및 수명이 긴 신제품을 개발, 해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였다.
- 동사는 오래 전부터 멕시코 건축자재 시장을 계속 두드려 온 업체로, 일전에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멕시코 업체와 1 차례 거래를 추진한 바 있었으나 중단된 적이 있어 진출 타깃을 멕시코시티로 옮기고 바이어 발굴을 지속,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를 통해 멕시코시티 KBC 가 소개한 6 개 바이어와 접촉을 하였다.

□ 협상 진행 과정

- 건축자재 취급 업체와 방수용 부자재 취급 전문업체들을 물색하고 멕시코 건축자재 전시회를 통해 발굴한 디스트리뷰터들을 대상으로 직접 세일즈하여 제품 성능을 집중 홍보하였다. P 사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나 경쟁제품 대비 30%나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 진입조차 어려웠다. S 사(신양)에서는 가격을 20% 정도 더 낮추었으나 그 이상은 어려워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제시한 가격을 맞추지 못했다. 5 개월 동안 집요하게 기존 바이어를 설득하고 새로운 바이어를 물색하였으나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좌절하였다.
- 멕시코 시장에서는 건축 단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초저가 방수용 부직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방수효과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큰 하자가 없으면 1 센트라도 더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업계의 생리이다. 방수용 부직포라는 제품의 특성상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는 가격이었다.

□ 협상 실패 요인

- 멕시코 바이어의 제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경쟁력이다. 어떤 제품들은 경쟁제품 대비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특수 기능을 포함시켜 좋은 품질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수용 부직포 제품의 경우 아무리 품질이 좋다하더라도 멕시코 바이어의 구매의사결정에 가격만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점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했다.

□ 시사점

- 세계 각 시장별로 특색이 있으며 바이어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을 개척하려 하면 심중팔구는 실패한다.
- 먼저 현지시장의 제품 및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협상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거 환경 및 주요 거주 지역

1)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의 주거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해발 2,308m의 고지이며 공해가 심한데다 지진 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 선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공해 사정은 호전되었지만 건기에는 여전히 좋지 않다.

멕시코의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은 TECAMACHALCO, POLANCO, PEDREGAL 등과 신흥 주택 지역인 BOSQUE, SANTA FE, INTERLOMAS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각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TECAMACHALCO & HERRADURA: LOMAS에 인접한 신흥 주택 지역. LOMAS와 환경이 비슷하며, 고급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단점으로는 출근 시간 일정 구역에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 POLANCO: 시내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1985년 멕시코 대지진 시 피해를 입지 않아 거주 지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유명 식당 및 샵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 BOSQUE: 시내 중심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곳으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보다 공해가 덜하며 시티 중심지까지 약 30~40분이면 연결된다. 지반이 암반이어서 지진 안전 지대이다.
- INTERLOMAS: BOSQUE 이후에 개발된 신흥 주택 지역으로 상권이 완비되어 있어 최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도심으로의 도로망이 제한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교외로 나가면 좋은 거주 지역이 있으나 멕시코시티는 인구 2,000만명의 대도시이고 시내에만 차량이 500만대 가까이 되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 하다.

2) 몬테레이

몬테레이는 멕시코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며, 고도도 해발 600m로 높지 않으므로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흔히 몬테레이시와 아쁘다까, 산베드로가르시아, 산니콜라스, 과달루베, 산따까따리나, 에스꼬베도 등 7개시를 통틀어서 몬테레이라고 총칭하며,

몬테레 이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 최근 마피아간의 전쟁으로 몬테레이에서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몬테레이 시의 CUMBRES, CONTRY LAS AMERICAS, LAS TORRES, LAS BRISAS 등이며, 산베드로 가르시아는 멕시코 전국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부유층 지역으로 외국기업들의 간부급 이상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주택 임차

멕시코시티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치안이 좋은 부유층지역의 임차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가항에서 언급된 지역의 월 임차료는 월 2,000~4,000달러 정도이다. 아파트 크기는 보통 150~300m²이며, 우리나라 평수로 약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부 침실 및 화장실, 세탁실, 창고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침실 2~3개, 거실 겸 DINING ROOM 1개, 부엌 1개, 화장실 2~3개 규모이다.

멕시코에는 치안이 불안한 서민 거주지 지역을 빼면 대부분 주택 규모가 커서 500 m² 규모의 주택도 많다. 주택 임차시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전액 임대주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개비로 보통 1개월 분 임차료를 지급한다. 주택 임차료의 인상은 통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라 주로 인상되며, 미화 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미국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 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개월 치의 임차료를 내며(2개월 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 해지 시에는 반환토록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가구가 없는 주택이 대부분이며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10~20% 이상 임차료가 올라간다. 계약 해지 시 가구 손상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항상 시비가 일어난다.

주택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계절 평균의 기온차보다 일교차가 더 심하고, 별도의 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밤의 추위를 염두에 두고, 낮 동안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이 남이나 서로 향한 집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절벽에 접하는 면에서 느끼는 냉기를 피하고, 계곡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는 전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상 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교육 환경

정식 한인학교는 없으나 한국어 교육 양성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말 한인 사업가의 성금 쾌척으로 한글 학교 건물 매입을 위한 한인 사회의 모금운동에 불씨가 지펴져 현재는 한글 학교 소유의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료는 1인당 월 U\$35(400페소) 수준이며, 등록비가 300페소이다. 외국인 학교로는 미국계인 AMERICAN SCHOOL, 영국계인 GREEN GATE와 기타 WEST HILL, ETON SCHOOL 등이 있다.

AMERICAN SCHOOL FOUNDATION과 GREENGATES SCHOOL은 각각 미국계와 영국계를 대표하는 학교로 역사가 깊으며, 입학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 멕시코 대사관이나 주 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과거 외국인 학교에 재학을 한 경우 동 학교에서의 생활 기록부 각종 포상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된다. GREEN GATE SCHOOL이나 AMERICAN SCHOOL의 경우 일단 서류심사를 한 후 WAITING LIST에 올려놓고 결원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면접 시험을 치며 합격자에게만 입학할 허용한다. 영어 내지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학교 측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을 쓰도록 한다. 한편, WEST HILL, HAMILTON 및 ETON SCHOOL은 최근에 생긴 학교로 정원에 여유가 있어 입학에 큰 어려움은 없다. AMERICAN SCHOOL FOUNDATION은 12학년제이고 GREEN GATE는 11학년제이다. GREEN GATE 스쿨의 경우 성적 관리가 매우 엄격해 "수" 특점이 힘든 반면 AMERICAN SCHOOL의 경우 성적 관리가 관대해 비교적 "수" 특점이 용이하다.

라. 한인 사회

멕시코의 한인 사회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에네켁(HENEQUEN)은 1900년경 메리다(Merida)를 중심으로 선인장 농장에 취업한 한인들의 후손으로 현재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1 세대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 2~4세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멕시코인화되어 한국어도 모르나 해외 한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 최근에 이주해 온 교민들로 대부분이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교민으로는 분류하지 않으나 주재 상사, 투자 업체 직원 및 가족, 유학생들까지 합해 전체 한인이 약 12,000명 정도(멕시코 시티 7,000명, 기타 도시 5,000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많은 교민이 멕시코로 이주해 왔다가 2003년 중반부터 아르헨티나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아르헨티나로 대거 재이주하였다.

마. 한국식품 조달여건

최근 교민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식품점이 많이 개점하고 있으나 가격은 여전히 한국보다 2~3배로 비싼 편이다.

□ 멕시코 시티 내 주요 한국 식품점

- 식품점 명: 코리아 타운
 - 전화: 5514-6062
 - 주소: HAMBURGO No. 238,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M 마트
 - 전화: 5511-1747
 - 주소: HAMBURGO #244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한국 식품
 - 전화: 5514-8693
 - 주소: Liverpool no.185,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좋은 사람들
 - 전화: 5525-6144
 - 주소: HAMBURGO No. 214,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우리식품
 - 전화: 5207-5252
 - 주소: LONDRES No. 242,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 식품점 명: 서울마트
 - 전화: 5208-3508
 - 주소: HAMBURGO No. 206, COL. JUAREZ, MEXICO, D.F. (ZONA ROSA)

일본 식품점이 멕시코시티에 3곳 있어 일본 식품 가운데 배추, 무 같은 채소류와 간장 등 우리에게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일부 미국 출장시 한국 식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이 멕시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미국에서 수입된 식품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식품류의 통관은 세관에서 문제가 되며, 검역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가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녹색등이 커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바. 생필품 구입 용이성

생필품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물자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공산품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나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은 한국보다 싼 편이다. 특히, 소 꼬리, 사골 등은 현지인들이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값이 싸며, 고기류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좀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시장인 CENTRAL DE ABASTO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여러 가구가 나눠 사용하기도 하며, 공산품은 회원제 스토어인 COST COL나 SAM'S CLUB 을 비롯하여 Walmart, Chedraui, Comercial Mexicana, Gigante, Super -ama 등 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 의료보험, 병원, 약국

1) 의료보험

일반 국민은 대부분이 IMSS라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 진료비가 무료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 시설 면이나 기술수준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유층은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현지법인 직원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십자 병원과 같이 외국인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시설 면에서 떨어지고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가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의약품 등은 직접 구입해서 가져가야 한다.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공제가 낮은 상품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4,600달러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2) 병원

일류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이다. 이러한 병원으로는 HOSPITAL ABC, HOSPITAL ESPANOL, HOSPITAL DE MEXICO 등이 있다. 진료비는 매우 비싸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U\$80~100 수준이다. 예컨대 위에 장애가 있어 병원에 가는 경우 최초 진찰에 U\$100, 위 X-RAY 촬영에 U\$150, X-RAY 결과를 가지고 의사 면담하는 데 U\$100, 총 U\$350가 소요된다.

입원의 경우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등 포함 1일 U\$1,000 정도 소요되며, 치과의 경우도 총치 1개 치료에 100\$ 정도이다. 일반 병원은 사전 예약제이며 급한 경우와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부를 수 있으며, 왕진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3) 약 국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나 통상 감기와 같이 가벼운 병의 경우, 증세를 말하면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다. 약품에는 복용 방법이 외에는 어떠한 증상에 복용한다든지 하는 문구나 설명서가 전혀 없으므로 복용 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약국은 시내 곳곳에 있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에도 위치하고 있다.

아. 레저 여건

멕시코시티에서 2~3시간 정도 나가면 온천 등 휴양시설이 많이 있다. 멕시코시티가 고지이고 공해가 심해 가능하면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고 월 1회 정도는 저지에 내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숙면하는 것이 좋다. 1박 2일 정도면 2시간 거리에 있고 해발 1,500m 정도인 CUERNAVACA나 COCOYOC에서 휴양을 하며, 3박 4일 정도면 4~5시간 거리인 ACAPULCO로 휴가를 많이 간다. 그러나 휴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 우리나라 장급 정도의 호텔도 1박에 U\$80~100 정도이며, ACAPULCO 휴가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 U\$100으로 비싼 편이다. (편도 430km거리)

골프장은 멕시코시티 주위에 10 여 개가 있으나 다수가 PRIVATE CLUB이며 1년 회비도 가장 저렴한 것이 U\$2,500~3,000 수준이다. GREEN FEE도 비싸 보통 휴일에 150달러 수준이다.

음악회는 국립극장인 BELLAS ARTES나 Auditorio Nacional에서 수시로 열리며 세계 유명 음악인이나 오페라 공연 등도 자주 열리는 편이다.

자. 치안 상태

멕시코시티의 치안상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95년 중남미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말에는 치안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도심지를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의 경우 강도가 침입하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지방에는 치안이 허술한 곳이 많아 무장 강도가 시외버스를 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야간에 한적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차를 습격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밤 중에 한적한 길을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반 시내 택시에는 택시 강도가 운전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 택시보다는 콜택시(SITIO/씨띠오)나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항에서는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이발소

이발소는 시내 곳곳에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장원(ZONA ROSA에 6~7개소 정도)도 이용 가능하다. 이발료는 한국 미용실의 경우 커트만 하는 경우 80~140페소 요금을 받고 있다. 멕시코에 한국과 같은 공중 목욕탕은 없으며, 구두닦이는 시내 곳곳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20페소 선이다.

카. 쇼핑

1) 물가

멕시코 물가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나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과일이나 육류의 경우 서울의 60~80% 선이며, 의류 및 가전 제품의 경우 서울의 130~300%선, 한국 식품은 서울의 200~300% 정도로 비싼 편이다. 즉, 과일, 야채 등 1차 상품은 싸지만 공산품이나, 외식비 등은 매우 비싼 편이다.

2) 쇼핑 장소

멕시코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곳은 ①백화점, ②전문점, ③슈퍼 체인, ④재래 시장, ⑤노점상, ⑥약국 슈퍼점, ⑦도깨비 시장(일명 TEPITO시장으로 멕시코시티에만 존재)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백화점은 Palacio de Hierro, Liverpool, Sears, Sanborns 등이 있으며, 주로 고급품을 취급하며 상품 가격이 비교적 높다.

전문점은 명품 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청담동과 같은 POLANCO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 고급품을 취급하며 가격이 비싸다.

멕시코에는 슈퍼 체인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인 체인으로는 Comercial Mexicana, Superama, Wal-Mart, Soriana, COSTCO 등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은 각 개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혼재해 있는데 멕시코시티의 경우 구시가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시장은 직물 거리, 액세서리 거리, 문구류 거리, 의류, 신발류 거리 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곳은 주로 저가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범죄 방지를 위해서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점상들은 주로 시장 거리를 따라 발달해 있는데 값싼 제품을 더욱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 슈퍼점은 일반적으로 FARMACIA라는 점포로 의약품과 일반 식품, 완구 등 잡화류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나 점포 수 면에서는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도깨비 시장은 멕시코 내에서도 멕시코시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TEPITO 시장을 지칭한다. 기본적으로는 재래 시장과 성격이 유사하나 판매물품이 밀수품 또는 도난물품인 경우가 많아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거나 정상가의 2/3 또는 1/2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100% 현금 거래이고 A/S는 보장되지 않는다.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다.

3) 특산품

멕시코의 특산품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데킬라와 은 세공품 등인데 데킬라는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타 특산품은 다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MERCADO ARTESANAL BUENAVISTA(Aldama Frente Ferrocarriles): 은, 오닉스, 가죽제품
- MERCADO INSURGENTE(Calle Londres en Zona Rosa): 화산석 조각품, 가죽제품, 토속그림

8. 출장 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반면 고지대는 온난건조하며 전 국토의 93%가 평균 최저 10도 최고 26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5~9월 기간 중 많은 비가 내린다. 최근 들어 티후아나 등 북부지방에 홍수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멕시코 남부지역의 경우 최근 태풍 및 홍수가 빈발한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 수도: 멕시코 시티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8m의 고지이기 때문에 고산기후를 보이고 있어 연중기후가 비슷하나 겨울(11~1월)에는 밤에 기온이 낮아지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않도록 복장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멕시코의 겨울엔 심각한 대기 오염에 급격한 온도 변화로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멕시코시티의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 건기는 11~5월 정도이며 6~10월은 우기에 해당한다.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이 멕시코 기후의 한 특징으로서 Guadalajara나 Acapulco의 경우 건기가 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우기에는 보통 오후에 한 차례씩 소나기가 오지만 우리나라의 장마철과 같은 기후는 아니며 봄, 가을 같은 서늘한 날씨이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때문에 우기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은 최근 신규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오래된 자동차가 폐차되어 예전보다는 상당부분 향상되긴 하였지만 건기에는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도시의 기후표

(단위: 섭씨)

Mexico D.F.(2308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14.3	15.7	17.6	19.8	20.1	19.8	18.5	19.3	18.3	18.4	15.6	15.4
최고 기온	21.7	23.9	25.7	27.6	26.9	26.1	24.8	25.3	23.1	23.8	22.2	21.9
최저 기온	6.9	7.5	9.4	12.2	13.2	13.5	12.2	13.3	13.5	12.9	9.1	8.9
강수량(mm)	13.2	6.8	8.6	5.9	41.7	86.3	103.6	143.0	227.8	72.1	0.7	3.4

Monterrey(512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15.7	18.1	19.8	24.3	26.7	28.7	28.6	29.6	25.2	22.7	17.5	13.1
최고기온	23.4	26.7	27.7	32.9	34.1	36.3	36.5	37.5	30.8	28.3	25.2	19.0
최저기온	7.9	9.6	11.8	15.7	19.4	21.1	20.4	21.7	19.7	17.0	9.8	7.2
강수량(mm)	13.5	12.3	7.9	16.5	43.9	21.5	32.2	37.5	167.1	61.9	48.1	20.7

Guadalajara(1551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17.8	16.6	20.9	22.0	23.6	24.4	22.3	23.3	22.8	21.8	18.3	17.5
최고 기온	26.9	25.6	30.4	32.0	32.0	31.5	28.9	29.8	28.8	28.2	27.0	25.3
최저 기온	9.0	9.8	11.3	11.9	15.3	17.2	15.4	16.7	16.9	15.4	9.7	10.1
강수량(mm)	4.2	0.0	1.0	1.3	40.0	129.4	147.4	142.8	155.2	66.3	6.9	9.2

Acapulco(28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23.7	23.9	25.3	26.6	27.1	27.0	25.2	26.4	26.0	25.8	24.5	24.1
최고 기온	31.1	31.8	33.2	34.6	34.3	33.3	31.3	32.8	31.9	31.4	31.5	31.0
최저 기온	16.4	16.4	17.4	18.7	20.0	20.6	18.7	20.2	20.2	20.1	17.8	17.3
강수량(mm)	0.6	3.3	0.1	2.1	60.1	240.9	158.1	166.7	214.3	137.8	6.3	0.8

자료: Servicio Meteorológico Nacional, México; Comisión Nacional del Agua, Mexico, 2010.5

3) 출장 시 추천복장

멕시코시티의 경우 연교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일교차는 큰 편이므로 복장에 주의가 필요하다. 맑은 날은 낮에 우리나라의 늦봄 내지 초여름 날씨로 약간 덥고 조석으로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반소매 셔츠와 함께 스웨터가 항상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봄·가을 옷을 준비하면 되지만 12~1월 사이는 조석으로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멕시코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5시간으로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15시간이 느리다.

동계 기준 시 한국시간 자정은 멕시코 시간으로 전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아침 9시면 멕시코 시간으로 전일 오후 6시가 된다. 그러나 4~10월(하계)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KST-14시간의 차가 발생한다. 즉, 하계에는 한 국 시간으로 자정이면 멕시코는 전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아침 9시면 멕시코는 전일 오후 7시가 된다.

멕시코의 서머타임 제도는 4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2:00가 03:00로 조정되면서 1시간 빨라지며, 서머타임 해제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 02:00가 01:00로 조정되면서 1시간 늦춰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2) 회계 연도

정부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3) 근무 시간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보통 09:00~14:00시까지 오전근무, 14:00~16:00까지 중식시간, 16:00~18:00까지 오후 근무로 되어있는데 중식시간이 우리나라와 크게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우체국이나 세관, 연방전력공사 등 일부 관청은 오전 중에만 대민 업무를 보는 곳 이 많고 일부 기관은 오전 8시나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한편,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우 1시 또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금요일 오후는 중식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한 다음 퇴근해 주말 파티문화를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일을 오후 2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4:00시까지 오전근무를 하고, 16:00부터 18:00까지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중식시간은 보통 14:00~16:00인 점에 주의해야 하며, 회사에 따라서 중식시간이 1~2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 09:00에 문을 열며 중식 휴무 없이 16:00까지 업무를 보는데, HSBC은행은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00 시까지 대민업무를 보며, 일부 특정부서만 16:00까지 근무한다. 토요일 휴무제로 토요일에는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으나, HSBC은행만 1시까지 오전 영업을 한다.

끝으로 연말에는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 특히, 책임 자급은 연말휴가 기간이므로 출장 시 이점에 참고해야 한다.

다. 도량형

종류	단위
거리	m, km
무게	g, kg
온도	섭씨
전기 규격	110v, 60hz

라. 출입국/비자

1) 비 자

한국-멕시코 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4.3.1 부로 관광 목적인 경우 멕시코 입국 시 180 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항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일, 90일의 체류허가 기간을 입국 수속 시 내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지역 이민국에서 총 180 일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멕시코 입국 시 아예 180일간의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상용 비자인 경우 비자 신청 시 멕시코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 멕시코 기업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관용 여권은 '97년부터 비자가 면제되었다.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 상용 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입국 카드에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상용 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하면 상용 비자를 준비해 오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최근 중국인이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공항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이민국은 그 동안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비자발급 및 연장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비자수속절차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2010년 1월 29일 연방관보에 새로운 비자수속절차 및 내부건해를 통일하는 매뉴얼 (Manual de Criterios y Tramites Migratorios)를 공고하였다. 본 매뉴얼은 동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혼동이 있었던 비자발급기준 견해 및 해석의 차이를 단일화하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로운 형식의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민국은 SIOM (Sistema Integral de Operación Migratoria)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비자발급에 대한 이민국의 독단적/단독 권한을 축소시키고 멕시코를 방문하고 체류/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정보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 될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다른 업종 및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을 뜻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통제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2. 그동안 사용되었던 FM3, FM2 수첩형식의 비자가 사라지고 면허증크기/플라스틱재질의 바코드가 부착된 신분증 Fotocredencial (비자신분증) 형식으로 비자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용지를 출력하여 코팅해서 발급한 영주권증 (Credencial de Inmigrado) 역시 비자신분증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이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정보를 일률적으로 전산화하여 세밀하게 관리/통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FM3, FM2 는 비자 만기일까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을 할때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도 비자신분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비자를 상기 신분증으로 교체 할 때 이민국에 직접 출두하여 디카로 사진을 찍고 자필서명/지문등록을 해야 한다.

3. 새 이민국 전자시스템 (SETRAM/Sistema Electrónico de Tramite Migratorios)을 통해 비자발급 및 연장과 관련하여 이민국 내부 부서 간 행정절차를 전산화/간소화 할 것이다. 본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날짜 및 장소, 비자 종류, 유효기간 및 이민국으로 허가받은 활동내역까지 자세히 정보화 될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비자신청 및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체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종류 및 성격에 상관없이 비자신분증을 발급 받을때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및 Numero Único de Extranjero (외국인 번호)를 발급 받게 된다.

4. 기존에 멕시코 공항 이민국에 제출했던 입국비자신청서 FMT 가 FMM (Forma Migratoria Multiple) 란 이름으로 바뀐다. 외국인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멕시코에

방문 할 때 최대 180 일까지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국적자가 (예: 북한, 중국인) 아닌 외국인과 미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최대 180 일까지 체류 비자를 줄 것이다. 예전 FMT 는 관광, 통과여객, 사업 출장자란 밖에 없었으나 새로 나온 FMM 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자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입국 시 비자성격에 맞게 비자수수료 (Pago de Derecho)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관광비자나 출장자 비자로 180 일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한국인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제한받는 국적자가 아님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혹은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단기간으로 받게 되면 기존처럼 이민국에 가서 관광비자 연장료를 내고 6 개월까지 연장하면 된다.

5. 최근 이민법규정이 바뀌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비자성격변경이 안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처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도 취업비자로 변경 (Cambio de Caracteristica Migratoria)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나 통과여객은 성격변경을 제한한다.

6. 기존에 초청장 (Carta de Invitacion)을 통해 각국의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Internacion (사전허가 입국비자)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입국했던 절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나, 역시 수첩형태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미국관광비자처럼 Internacion (영사비자)를 부착하여 멕시코에 입국하고 입국일로부터 30 일내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서 새로운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7. 부양가족 (Dependiente Economico) 비자와 관련하여서는 부양가족 중 학생인 미성년자는 매년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5 년에 한번 비자를 연장한다 라고 명시하나 어린이 유괴 및 기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그동안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동거 (Union Libre)로도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그를 증명할 공식문서를 요구할 것이며 동거 중 자녀가 갖은 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로 부양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8. 그동안 바자를 갱신 (Prorroga o Refrendo) 할 때 이민법 변호사 혹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이 직접 이민국에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연장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연장비자를 받기 전에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야한다. 이밖에 기존의 비자 연장 절차는 동일하다.

9. 기존에는 외국인이 허가받은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바꾸게 되면 (Cambio de Actividad o Empleador)라는 절차를 통해 30 일내에 이민국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 기존 비자에 기재하는데 3-4 주가 소요됐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단지 통지 (Aviso)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다. 단 이때도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은 동일하다.

10. 퇴사한 외국인 및 외국인을 채용했던 기업은 외국인이 퇴사한 후 15 일 내에 이민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1. 외국인이 비자신청/발급기간 혹은 연장기간에 외국을 다녀와야 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Permiso de Entrada y Salida 라는 출입국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90 일내에 돌아와야 했으나 새로 바뀐 규정은 외국 체류기간을 60 일로 줄였다.

12. 이민비자 (FM2) 를 소지한 외국인 뿐만아니라 이민비자/잠정체류자 (FM3) 중 과학자, 학생, 종교인, 정치적 망명자, 난민 등은 외국인등록국 (RN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13. 그동안 이민국에서 긴 줄을 서며 각종서류를 원본대조 (Cotejo) 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류제출시 단순히 원본만 보여 주는 것으로 대체하며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요구했던 스페인어 번역도 사라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보에 공고된 새 매뉴얼이 몇가지 비자발급시스템을 변경하였으나 실제 이민법 법규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비자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을 관리/통제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민국 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비자 발급처

- 주한 멕시코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33-6
 - 홈페이지: <http://portal.sre.gob.mx>
 - 전화: 02-798-1694/5
 - 대리인 접수 불가(우편 접수 불가)
 - 발급 시간 14:00~15:00
 - 접수 시간 8:00 ~12: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한국 및 공휴일)
 - 처리 기간 72시간(급행 처리 되는 서류 없음)

3) 멕시코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안내

□ 관광

- 무(NO) 비자(15일 에서 180 일 사이, 입국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결정)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카드 (FMM)

□ 상용(FM3)

- 사진 2매 (여권용크기)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유효 기간 1년 이상)
- 출장 증명서 (신청인 인적 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근로소득 (월급비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
- 갑근세 (국문서류 제출 가능)
- 소득금액 증명서 (국문 서류 제출 가능)
- 회사법인 인감 증명서 (국문서류 제출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국문서류 제출 가능)
-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 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 업체인 한국기업에 있음을 기재)
- 투자 비자 신청일 경우 : 투자 준비 서류 (투자목적, 투자비용, 투자부분 상세히 설명)
- 주민등록증 (현 주소지)
- 명함
- 수수료: \$ 98.00 DLS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지불)

- 신청시간 월~금 오전 9:00 ~ 12:00
- 필요시 인터뷰 진행

□ 기술자(FMVC)

- 사진 2매,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출장 증명서 (신청인 인적 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근로소득 (월급비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
- 갑근세 (국문서류 제출 가능)
- 소득금액 증명서 (국문 서류 제출 가능)
- 회사법인 인감 증명서 (국문서류 제출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국문서류 제출 가능)
-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 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 업체인 한국기업에 있음을 기재)
- 원 소속 회사와 멕시코 회사간의 맺은 계약서 사본 (근로계약, 특히 기술이전, 기계설비, 판매, 구입, 기술자 연수, 멕시코 업체의 외국인 기술자 지원요구)
- 주민 등록증 (현 주소지)
- 명함

□ 선원(경유 VISA)

- 사진 1매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선원 수첩 OR 여권
- 항해 일정표(멕시코 입국일, 출국일, 입국항 반드시 기재)
- 출장 증명서(TRAVEL ORDER)영문

□ 관용

-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VISA 면제

□ 기타

- 친지 방문, 경유 시 관광과 동일

□ 서류 영사 확인

- 건당 \$ 36.00 (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하여 접수 시 지불)

□ 입국세 안내

- 멕시코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표에 입국세 USD \$20.00 포함되며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 멕시코 입국 지점에서 입국세 USD \$20.00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입국세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4) 출입국 절차

관광의 경우 입국 비행 기내에서 배부하는 입국 카드를 작성하여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물어보고 입국 카드에 기간을 적는다. (통상 30일) 입국 카드는 두 장으로 구성되며 사본은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데 동 사본은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항공사에서 보딩 패스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는 출국 시 별도의 출국 심사를 하지 않고 입국 시 받은 입국 카드 사본을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한다. 따라서, 동 카드 분실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상용 비자나 관용 여권을 가진 경우 먹지가 있는 빨간색 종이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기내에서 배포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착 후 입국 심사장에 비치된 안내 데스크에서 양식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동 양식 사본 1부(먹지)는 입국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받아서 여권과 함께 보관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관광객은 흰 카드에 기입하며 일부분을 절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제출하면 된다.

5) 세관 검사 방식

멕시코 공항의 통관 시에는 자발적인 신고와 무작위 검사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발적 신고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품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무작위 검사는 특별히 신고할 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 세관 검사대 앞에 놓인 신호등을 본인 이 직접 누르는 경우(제2터미널)와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제1터미널)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직접 신호등을 누르는 경우, 녹색 불이 켜지면 검사 없이 그대로 통과하며 적색불이 켜지면 반입물을 전부 검사하게 된다. 적색불이 들어올 확률은 20% 미만이나 검사에서 과세 물품이 나올 경우 물품 가격 4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멕시코에 도착 전 비행 기내에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작성하여 세관 통과 시 제출해야 한다.

6) 출입국 유의 사항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의 화물 검색이 심하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을 절대 삼가야 하며, 음식류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 중남미인 및 중남미 거주 아시아 계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중남미를 경유해 오는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7) 공항-시내 교통편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락시)에서 쿠폰을 구입한다. 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공항에서 KBC 인근 호텔간은 대략 18~20달러 선이다. 하지만 공항 택시 중에서 Suburban(짐칸이 있는 대형차종)을 이용한 대형택시는 요금이 50% 이상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항 건물 밖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등록된 택시로 안전함)를 이용해 호텔이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멕시코시티는 택시 강도가 가끔 있는 편이므로, 길거리 택시를 타지 말고 공인된 공항 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마.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멕시코 화폐 단위는 페소(peso)이며, 단위는 미 달러와 표시와 같은 “\$”로 표기되므로 단위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화폐 단위를 M.N.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MONEDA NACIONAL의 약자로 '국민 화폐'라는 의미이다. \$는 숫자 앞에 쓰는데 반해 MN은 숫자 다음에 쓴다.

현재 유통 중인 지폐는 20 페소, 50 페소, 100 페소, 200 페소, 500 페소, 1000 페소 등 6종이 있다. 주화로는 10 페소, 5 페소, 2 페소, 1 페소, 50 센따보, 20 센따보, 10 센따보 등 7종이 있다.

2) 지폐 도안의 내용 및 의미

□ 20 페소

- 가장 널리 쓰이는 지폐로서 멕시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유일무이한 인디오 출신 대통령인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를 담고 있다. 현 멕시코시티 공항도 그의 이름을 따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멕시코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대의 대로인 레포르마(REFORMA) 거리도 후아레스 대통령의 치적인 혁신적 개혁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혁이란 의미의 레포르마 거리로 명명되었다. 또한 3.21일은 후아레스 대통령 탄신일(NATALICIO)로서 국경일이기도 하다.
- 20 페소 지폐 중심부에 나타나있는 독수리상은 선인장 위에서 뱀을 발톱으로 움켜쥐고 또 부리로 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국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뒷면에는 후아레스 대통령의 동상이 새겨 있다.

□ 50 페소

- 앞면에는 1810년 멕시코 독립운동의 기수이자 공화정 제창자인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JOSE MARIA MORELOS) 신부와 독립전쟁 당시의 대포가 인쇄되어 있다.

□ 100 페소

- 15세기 신대륙 발견기 아즈텍 시대에 떼스꼬꼬 지역을 다스리던 성군 네싸왈꼬요틀(NEZAHUAL COYOTL) 왕과 동 왕국의 상징인 태양이 형상화되어 있고, (시인으로서) 네싸왈꼬요틀 왕이 남긴 시구도 인쇄되어 있다.

□ 200 페소

- 멕시코 문학사에 길이 빛나는 17세기 천재 문학가이자 수녀였던 후아나 데 아스바헤(JUANA DE ASBAJE: 세례명 SOR JUANA INES DE LA CRUZ 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와 그녀가 집필한 책과 펜, 잉크 등이 나타나 있다. 뒷면은 소르 후아나 수녀가 몸 담았던 SAN JERONIMO 교단 수도원이다. 고액권으로 위폐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500 페소

- 멕시코의 국경일인 뿌에블라 전투 대불 전승 기념일(1862. 5. 5일 / 5 DE MAYO)의 영웅 이그나시오 사라고사(IGNACIO ZARAGOZA) 장군과 프랑스 군과의 뿌에블라 전투

당시 로레또 격전장 모습이 앞면에 실려 있고, 뒷면에는 PUEBLA 대성당과 동상징물인 천사상이 새겨 있다. 사라고사 장군은 후아레스 대통령을 도와 개혁전쟁(GUERRA DE REFORMA)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고액권으로 위폐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1000 페소

- 멕시코 독립의 영웅 미겔 이달고 신부(Miguel Hidalgo y Costilla)가 인쇄되어 있다. 고액권으로 위폐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환전 방법

멕시코는 1994. 12. 22일에 환율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환전이 자유로워졌으며 은행 및 환전소에 따라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다.

환전 장소는 은행(BANCO), 환전소(CASA DE CAMBIO), 호텔 등이 있는데 호텔보다는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 중에서는 HSBC 은행이 가장 환율이 좋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 공항 도착 시 공항 환전소에서 일부 필요한 금액을 환전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는 현금보다 환율이 좋은 것이 보통이며, 환전 시 반드시 여권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한쪽에 서명을 해야 한다.

멕시코는 달러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게나 식당에서는 달러를 잘 받지 않고, 달러 여행자 수표는 더욱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페소화 현금을 휴대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칸쿤(CANCUN)이나 아카풀코(ACAPULCO) 등 유명 휴양지에서는 달러화로 거래가 가능하나 적용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토요일에는 오전까지 환전소나 HSBS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공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멕시코시티는 교통의 요지이나 한국과의 직항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L.A를 경유하여 멕시코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2003. 9월부터 테러 위험 때문에 미국 비자 없는 사람은 미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미국 비자가 없을 경우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를 경유해야 한다. 일반적인 캐나다 경유 노선은 KAL을 이용한 '인천-밴쿠버-멕시코 시티' 또는 JAL을 이용한 '인천-도쿄-밴쿠버-멕시코 시티'이다.

멕시코 취항 항공편으로는 멕시코 항공사로 AEROMEXICO(AM)와 MEXICANA DE AVIACION(MX) 2개사와 미국의 AMERICAN AIRLINE(AA), UNITED AIRLINE(UA), CONTINENTAL AIRLINE(CA), DELTA AIRLINE(DL) 등이 있고 기타 편수는 많지 않으나 브라질의 VARIG, 콜롬비아의 AVIANCA, 칠레의 LANCHILE, 아르헨티나의 LINEA AEREA ARGENTINA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JAL도 주2회 멕시코 시티에 취항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 SEATTLE 을 경유하는 직항을 취항 추진이다.

L.A에서의 비행기편은 일일 다수 편수가 운행되고 있다. 미국 항공사와 멕시코 항공사는 주로 낮 시간에 멕시코에 도착하는 반면 중남미 항공사 비행기는 밤 또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결항의 경우에도 미국, 멕시코 비행기는 멕시코시티에 자주 운항하므로 바로 그 다음 비행기 연결이 가능하나 중남미 비행기는 주 1~2회가 보통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멕시코까지의 여행 시간은 서울-L.A구간이 약 10~11시간, L.A-멕시코시티 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 선편

멕시코는 유일한 국적선사였던 TMM(TRANSPORTACION MARITIMA MEXICANA)이 해상운송 분야를 1998년 캐나다 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더 이상 국적 선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Hapag Lloyd (독일), MAERSK (덴마크), MSC (스위스), APL (싱가포르), CMA (캐나다) 등 주요 선사들이 주 1~2회 간격으로 한국에 취항하고 있으며 한진 해운도 1998년부터 주 1회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적 항구는 부산이며, 멕시코 항구는 태평양 연안의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 까르데나스 및 살리나 꾸르스 항구 등이다.

동아시아-멕시코간을 운항하는 주요 선사들의 취항 지역은 중국의 상하이, 홍콩, 대만, 한국의 부산, 인천, 일본의 오사카, 요코하마, 미국의 롱비치, 멕시코의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까르데나스, 살리나꾸르스 등이며, 소요 기간은 부산에서 엔세나다까지 약 17 일, 만사니요까지 21일, 라사로 까르데나스까지 22 일, 살리나 꾸르스까지 24일이 소요된다.

주요 협회로는 1987년에 설립된 멕시코 선사대리점 협회(AMANAC, Asociacion Mexicana de Agentes Navieros A.C.)가 있다. 동 협회는 소속 선사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Hapag Lloyd, MAERSK, APL 등 대형 선사를 비롯해 약 90여개의 선사 및 포워딩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www.amanac.org.mx 이고, 이메일은 amanac@amanac.org.mx 이다.

운송 요금은 한국(부산)-멕시코(Manzanillo) 간 40" 컨테이너 순 운임이 약 미화 3,500달러,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 항구 - 멕시코시티까지 트럭운임이 1,800달러 수준이다. (한진 해운, 2010. 5월 기준) 순 운임과 별도로 성수기별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국내 교통

□ 택시

일반 택시는 두 가지 차량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요금(Banderazo)이 6.30페소(약 0.48달러, 적용 환율 US\$1=MX\$13)인 Volkswagen 구형(일명 딱정벌레/Two Door)이 있으며, Four Door 택시는 기본 요금이 6.80페소(약 0.52 달러)이다. 야간 할증은 20%가 더 붙는다.

일반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250M 또는 45초당 0.9페소)로 미터 요금대로 지불하면 되나 간혹 미터기가 고장났거나 고장인 것으로 조작해 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택시를 타자마자 확인이 필요하다. 콜택시는 미터기 없이 택시 내에 구비된 거리 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받으나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시내 곳곳에 SITIO(시띠오)라 불리는 CALL 대기소가 있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된다. 멕시코는 시내 택시가 위험하므로 콜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멕시코시티 내 어디에서나 24시간 운행되는 콜택시 전화 번호는 5660-1122(스페인어만 통용)이다.

공항 택시는 노란색으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데 입국장에 있는 택시 티켓 판매소에서 택시 티켓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때 멕시코 시내를 여러 군의 구역으로 나누어놓고 구역에 따라 요금을 책정,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을 강요받거나,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공항 택시 중에서 Suburban(짐칸이 있는 대형차종)을 이용한 대형택시는 요금이 30% 가량 더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광 택시는 주로 호텔 앞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데 행선지와 시간 별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미터기가 없으므로 사전에 요금을 정해야 한다. 시간 당으로 계약할 경우 통상 시간당 20달러 정도 받고 있으며, 대형차가 많아 관광이나 비즈니스, 공항 왕래에 주로 이용된다.

요약하면 일반 택시 요금의 두 배가 콜택시(Sitio), 콜택시 요금의 두 배가 관광 택시라 할 수 있다.

□ 시내대중 교통

- 버스
 - 시내 버스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시내 곳곳으로 연결된다. 시내 버스 유형은 대형 버스(RTP, Red de Transportes de Pasajeros), 소형버스(Microbus), 전기버스(Trolebus) 등이 있다. 기본 요금은 RTP버스와 전기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 없이 2페소이며, 소형 버스는 0~5km 2.5페소, 5~12km 3.5페소, 12km 이상 4페소를 징수한다.
- 지하철
 - 멕시코 내의 지하철 노선은 총 11개선으로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 지하철 12호선 건설계획이 논의중이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 구분 없이 3페소이다. 일반적으로 시내 버스나 지하철은 관광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메트로 버스
 - 멕시코시티 남북을 가로지르는 인수르헨테스(Insurgentes)에 운행하는 버스로 요금은 5페소이다.

□ 국내 교통

- 항공
 -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몬테레이, 띠후아나 등 지방을 여행할 때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한다. 그러나 비행기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접경 지대인 띠후아나까지의 국내 왕복 항공료가 멕시코시티에서 LA까지의 국제선 요금보다 더 비싸다.

- 도로
 - 현재 계속 확장 중에 있으며 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단히 비싸 멕시코시티에서 430Km거리에 있는 휴양지 아카풀코(ACAPULCO)까지의 왕복 통행료가 미화 100달러를 상회한다. 연방통신교통부는 2010년에 총 14억불 규모의 고속도로 54곳을 양허(concesion) 방식에 의해 건설하고, 65개 고속도로 현대화, 15개 지방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교통통신부 차관은 2010년 예산은 작년보다 8.7% 증액된 40억불이 책정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 5월 현재 진행중인 도로 공사는 48개 (건설중 21개, 입찰진행중 5개, 양허 및 추가 공사중 18개 등)로서 총 연장 2,500km의 도로 개설에 민간자금 70억불이 투입되고 있다.
- 지방 버스
 - 지방 버스는 다양한 종류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고급은 우리나라 우등 버스 이상의 수준으로 편리한데다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사람이 지방 여행 시 이용하고 있다.
- 철도
 - 멕시코시티와 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나 기차 성능이 노후하고 서비스가 나쁜 편이어서 일반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현재 치와와 주 CHEPE, 메리다 주 관광 철도, 데킬라 지역 TEQUILA EXPRESS 등 3개 선의 관광선만 운행된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 통신

장거리 통신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멕시코 전화 회사(TELMEX)"의 독점 상태에 있었으나 '96. 8월부터 미국 등 외국 통신 회사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고 '97. 1월에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거리 전화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팩시밀리는 거의 모든 회사에 보급되어 있으나 전화 1대로 전화와 팩스를 돌려가며 쓰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 업체들에게 낮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전화를 건 후 팩스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밤인 경우 자동으로 팩스 수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 시차 관계로 항상 이곳 밤시간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한국 업체들이 팩스를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팩스를 전화로 받았을 때에는 TONO, POR FAVOR(또노, 뽀르 파보르)라고 얘기하면 팩스 신호를 넣어준다.

멕시코에서 다른 나라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는 먼저 00을 돌린 후 국가 코드, 지역 번호와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컨대 미국 내 지역 번호 213에 전화번호 795-6789인 경우 00-1-213-795-6789를 돌리면 된다.

멕시코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이 대단히 비싸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 몇 통화 보내면 호텔 요금보다 전화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텔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가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에서는 COLLECT CALL 방식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와의 통화

-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TELMEX의 경우 할인대와 비 할인대 시간이 있는데 할인대의 경우(월~금 05:00~16:59, 토~일 24시간) 분당 U\$1이며 비 할인대(월/금 17:00~04:59)는 분당 U\$1.50이 소요된다.

- 멕시코의 국가코드는 "52"이므로 한국에서 전화 시 국가 코드, 지역 코드,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 멕시코의 3대 도시인 멕시코시티(MEXICO D.F.), 과달라하라(GUADALAJARA), 몬테레이(MONTERREY)의 경우 지역 코드는 2자리, 그리고 전화번호는 8자리이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는 지역 코드 3자리, 전화번호 7자리이다.
- 참고로 멕시코 현지의 한국 교포업체인 피닉스 텔레콤에서는 국제전화용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동 카드를 이용하면 한국 일반전화 통화 시 분당 약 0.5페소, 휴대전화 통화 시 약 1페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카드는 한국 음식점, 슈퍼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멕시코 일반전화로 거는 경우

- 한국에서 멕시코로 전화를 거는 경우 국제전화 코드인 001/002 등과 국가 코드, 지역 코드, 전화번호를 차례대로 누르면 된다.
- 사용 예) 001(또는 002, 00700 등) - 52 - 55 - 5514 - 3173
(국제전화코드) (멕시코) (멕시코시티) (KBC)

□ 멕시코 핸드폰으로 거는 경우

- 멕시코시티 내 핸드폰 번호가 04455-1234-5678인 경우 한국에서 거는 방법은 국가 번호와 핸드폰 번호 사이에 1을 삽입해야 하고 핸드폰 표시 앞 번호 5자리(멕시코시티 핸드폰일 경우 04455) 중 뒤의 2자리(55)만 눌러야 한다.
- 사용 예) 001(또는 002 등) - 52 - 1 - 55 - 1234 - 5678
(국제전화코드) (멕시코) (1) (핸드폰번호)

□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전화 거는 방법

- 서울 3460-7114에 전화하는 경우(00)(82)(2)3460-7114(국제전화)(한국) (서울)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 한국과 멕시코의 시차는 15시간으로 한국의 아침 9시가 멕시코의 전날 오후 6시므로 통상 한국에서 출근하자마자 멕시코로 전화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 하계(4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2시~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2시)에는 서머 타임이 적용되므로 1시간이 빨라져 한국과 14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 참고로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또는 국제 팩스를 보낼 경우 지역번호 첫 자리 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통화 또는 송신이 안 되어 포기하는 바이어가 부지기수인 바 전화나 팩스번호 소개를 (82-2, 서울의 경우), (82-51, 부산의 경우)와 같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국내 통신

전화 1회선 설치 비용은 회선당 가정 또는 상업용이든 1,330페소(약 121달러)이며, 설치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7일 정도이다. 전화 요금은 상업 지역과 가정 요금이 다른데 상업 지역

은 기본 요금이 198페소(약 U\$18달러), 가정 요금은 156.55페소(약 U\$14.2달러) 정도 이다. 가정용 기본 요금에는 100통화가 포함되어 추가 통화 시 통화당 1.48페소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상업용의 경우 기본 요금에 무료 통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당 1.48 페소이다. 단, 1통화의 통화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반 전화로 휴대폰 과 통화 시에는 분당 2.5페소가 들며 공중전화를 통해 시내 통화할 경우 분당 2페소이며 핸드폰으로 통화는 4페소이다.

□ 공중전화

- 공중전화의 경우 모두 카드식으로, 카드는 30, 50, 100 페소짜리 카드가 있는데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카드식 공중전화는 시외 전화 및 국제 전화 사용에도 전혀 불편이 없다. 참고로 약 50페소짜리 카드면 한국까지 3분 정도 통화가 가능하다.

□ 시외 전화 거는 요령

- 먼저 시외 전화 코드인 '01'을 돌리고 다음 걸고자 하는 도시의 지역 번호와 전화 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번호 33인 과달라하라의 3623-6543을 걸고자 할 때는 01-33-3623-6543을 돌리면 된다.

마. 우편

멕시코 우체국은 서비스가 매우 나쁘며 분실이 잦기 때문에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일반 우체국이 아닌 국제 특송 운송(DHL, FEDEX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특송 우편을 취급하는 PAKMAIL 이용도 가능하다.

- FEDEX MEXICO
 - 홈페이지: <http://www.fedex.com/mx/>
 - 전화: (52-55) 5228-9904
- DHL MEXICO
 - 홈페이지: <http://www.dhl.com.mx/publish/mx/es.high.html>
 - Multipack
 - 홈페이지: <http://www.multipack.com.mx/>
- UPS
 - 홈페이지: <http://www.ups.com.mx>

사. 호텔/식당

1) 호텔

멕시코의 호텔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패키지 상품이나 여행사를 통하면 1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요금은 2010. 1월 기준 호텔 정상 요금 기준 자료이다.

□ 특급 호텔: 멕시코시티

- 호텔명: HOTEL CAMINO REAL
 - 주소: MARIANO ESCOBEDO NO.700, COL. ANZUREZ
 - 전화: (52-55)5263-8887
 - 요금: 190달러(세금,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PRESIDENDE INTERCONTINENTAL
 - 주소: CAMPOS ELISEOS 218 COL. POLANCO C.P.11560
 - 전화: (52-55)5327-7777 FAX:(52-55)5327-7787
 - 요금: 싱글 210달러, 트윈 324달러(세금,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NIKKO
 - 주소: Campos Eliseos No. 204, Col. Polanco, C.P. 11560, Mexico
 - 전화: (52-55) 5280-1111, 팩스: (52-55) 5280-9191
 - 요금: 210달러(세금 및 조식 미포함) (*싱글/트윈 동일)
 - 특징: 동 호텔의 아침식사는 한국인 입맛에 비교적 맞는 편임

- 호텔명: HOTEL FOUR SEASON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500 COL. JUAREZ
 - 전화: (52-55)230-1818 FAX:(52-55)230-1817
 - 요금: 싱글 320달러, 트윈 380달러(세금 및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MARIA ISABEL SHERATON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325, COL. CUAUHEMOC
 - 전화: (52-55)5207-3933 FAX:(52-55)5207-0684
 - 홈페이지: www.sheraton.com
 - 요금: Standard Room USD\$ 305+17% tax(조식별도)
Suite Room: USD\$ 350+17% tax (조식별도)

- KOTRA 할인가격
 - 별관 건물 (Danubio)
 - 싱글 110 달러 * 17% tax = 128.70 달러(조식 포함)
 - 트윈 120 달러 * 17% tax = 140.40 달러(조식 포함)
 - 본관 건물 (Reforma)
 - 싱글 125 달러 * 17% tax = 146.24 달러(조식 포함)
 - 트윈 135 달러 * 17% tax = 157.95 달러(조식 포함)

(별관과 본관 객실 차이: 본관 일부(50%)객실 천사탑 전망 가능 및 LCD TV 구비)
 * 멕시코시티 KBC를 통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멕시코시티 KBC 담당- 임준희 Tel: (52-55) 5514-3172

- 특급 호텔: 몬테레이
 - 호텔명: HOTEL SHERATON AMBASSADOR
 - 주소: HIDALGO 310 OTE. CENTRO 64000 MONTERREY, N.L.(시내 중심)
 - 전화: (52-81)8380-7000 FAX:(52-81)8345-1984
 - 요금: 싱글 약 130달러, 트윈 약 140달러(세금, 조식 포함. 인터넷 예약 시 할인 제공)

 - 호텔명: HOTEL SAFI
 - 주소: DIEGO RIBERA 555,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
 - 전화: (52-81)8100-7054
 - 홈페이지: www.safihotel.com
 - 요금: 싱글 약 100달러, 트윈 약 106달러(세금 포함, 조식 불 포함)

□ 1급 호텔: 멕시코시티

- 호텔명: HOTEL GRAN MELIA MEXICO REFORMA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1, COL. TABACALERA DEL CUAUHTEMOC
 - 전화: (52-55)5128-5000
 - 요금: 130달러(싱글/트윈, 세금, 조식 미 포함)

- 호텔명: HOTEL GALERIA PLAZA HOTEL
 - 주소: Hamburgo No.195 Col. Juarez Mexico D.F
 - 전화: 52-55-5230-1717, 팩스: 52-55-5208-0334
 - 홈페이지: www.brisas.com.mx
 - 요금: Standard Room USD\$ 130+17% tax(조식별도)
Suite Room: USD\$ 230+17% tax(조식별도)
(싱글 및 트윈요금 동일)

□ KOTRA 할인가격

- Standard Room: USD\$ 91+17%(조식별도) = USD 106.47 (세금, 조식 포함)
- 싱글 및 트윈요금 동일
 - * 멕시코시티 KBC를 통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멕시코시티 KBC 담당- 임준희 Tel: (52-55) 5514-3172

- 호텔명: Hotel Suite Amberes
 - 주소: Amberes No.64 Col. Juarez Mexico D.F C.P. 06500
 - 전화: 52-55-5533-1306~10, 팩스: 52-55-5533-1306 (Tone)
 - 홈페이지: www.suiteamberes.com.mx
 - 요금: USD 106 (싱글, 트윈 동일 /세금 포함)

□ KOTRA 할인가격

- USD 86 (싱글, 트윈 동일 / 세금, 조식포함)
 - * 멕시코시티 KBC를 통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멕시코시티 KBC 담당- 임준희 Tel: (52-55) 5514-3172

□ 중급 호텔

- 호텔명: HOTEL BRISTOL
 - 주소: PLAZA NECAXA 17, ESQ. PANUCO Y SENA MEXICO
 - 전화: (52-55) 5208-1717
 - 팩스: (52-55) 5533-0245
 - 요금: 트윈: U\$ 70(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싱글: U\$ 60(세금 포함, 조식 미포함)

- 호텔명: HOTEL FONTAIN(3성)
 - 주소: COLON 27, ESQ. PASEO DE LA REFORMA
 - 전화:(52-55)5518-5460/9
 - 팩스:(52-55)5521-9240
 - 요금: 73

- 호텔명: HOTEL SUITES ESTOCOLMO 30
- 주소: ESTOCOLMO NO. 30, COL. JUAREZ
- 전화: (52-55) 5511-4545
- 팩스: (52-55) 5208-3609
- 요율: 방1개 135~150달러(세금 포함, 방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
- 특징: 간단한 취사가 가능함.

2) 식당

□ 한국식당: 멕시코 시티 소재 주요 식당

- 영빈관
 - 주소: Florencia 15, Col. Juarez(Zona Rosa)
 - 전화: (52-55) 5208-9399
 - 특징: 숯불갈비 전문 식당임. 연중 무휴로 일요일도 영업한다.
- 비원
 - 주소: Florencia 20, Col. Juarez(Zona Rosa)
 - 전화: (52-55) 5514-3994
 - 특징: 한식 및 고기류식사 전문 식당, 냉면이 맛있음.
- 청하
 - 주소: Londres 177 Piso1 Zona Rosa
 - 전화: (52-55) 5208-2734
 - 특징: 보쌈, 생선회, 복요리, 각종 찌개류 및 칼국수 등
- 송림
 - 주소: Liverpool 158 (Zona Rosa)
 - 전화: (52-55) 5207-4490
 - 특징: 숯불갈비, 한국식 중화요리 등, 회식장소로 적당하다.
- 민속촌
 - 주소: Florencia 45(Zona Rosa)
 - 전화: (52-55) 5255-8558
 - 특징: 순대국, 해장국, 곱창볶음 등

□ 일본식당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 식당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 벤케이(BENKAY)
 - 주소: CAMPOS ELISEOS 204 (NIKKO HOTEL내)
 - 전화: (52-55) 5283-8700 ext. 8600
 - 특색: 멕시코 내 최고급 일식집으로 가격이 비싼 편임. Hotel Nikko 1층에 있으며, 중요한 손님 접대에 좋은 식당이다. 음식값은 약간의 주류를 포함 1인당 약 50~80달러 선이다.

- 순토리(SUNTORY)
 - 주소: Montes Urales 535,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52-55) 5202-4711
 - 특색: Benkay와 함께 최고급 일식당으로 바닷가재 요리와 철판구이 요리로 유명하다. 음식 맛과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중요한 손님 접대에 적당하다. 가격은 약간의 주류와 함께 1인당 약 50~80달러선이다.
 -
- 후지(FUJI)
 - 주소: RIO PANUCO 128,COL CUAHUTEMOC
 - 전화: (52-55) 5514-6814
 - 특색: 초밥이나 생선회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안주에 적합한 구이 또는 꼬치 종류는 괜찮은 편이다(3층). 음식값은 중간 수준이다.
- 나가오까(NAGAOKA)
 - 주소: ARKANSAS CO. 38, COL. NAPOLES
 - 전화: (52-55) 5548-9530
 - 특색: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분위기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만 깔끔하다. 음식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특히 우동이 유명하다. 위치는 WTC(WORLD TRADE CENTER) 뒷골목에 있다.
- 사무라이(Restaurante El Samurai)
 - 주 소: Nueva york No.85, Col. Napoles 03810, Mexico, D.F.
 - 전 화: (52-55)5523-1469
 - 특색: 일본식 꼬치 요리 및 대판야끼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규모도 크고 깨끗하다. 음식 맛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위치는 WTC (World Trade Center) 뒤편이다.

□ 중국 식당(멕시코시티 한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식당 기준)

- HUNAN
 - 주소: Paseo de la Reforma 2210, Col. Lomas de Chapultepe
 - 전화:(52-55) 5596-5011
 - 특색: 멕시코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중식당 중 하나로 분위기가 매우 고급스럽고 전반적으로 음식맛도 훌륭하다.
- BLOSSOM
 - 주소: Paseo de las Palmas 890,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52-55) 5202-2442
 - 특색: 음식 맛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편으로 북경 오리 요리가 유명하다. Del Valle에도 분점이 있으며 Del Valle 분점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다.
 -
- EXCELENCY (가빈)
 - 주소: Prado Sur No.110, Col. Lomas de Chapultepec (Paseo de la Reforma 코너)
 - 전화: (52-55) 5520-7446
 - 특징: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편한 분위기의 중국집으로 대만인이 주인이다. 북경 오리가 맛있는 편이다.

□ 멕시코 식당: 멕시코시티

- HACIENDA DE LOS MORALES
 - 주소: VAZQUEZ DE MELLA NO.525
 - 전화: (52-55) 5281-4569 / 5281-4703
 - 특색: 멕시코의 전통 식당이라기보다는 국제화된 서양식당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고급 식당이다. 식사비는 통상 1인당 U\$50~80 정도이다. 큰 저택을 개조한 식당으로 실내와 정원 분위기가 고급스럽다.
- SAN ANGEL INN
 - 주소: DIEGO RIVERA NO.50 ESQ. CON ALTAVISTA, SAN ANGEL INN
 - 전화:(52-55) 5616-1402 / 5616-1527
 - 특색: 멕시코시티 남쪽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고급스런 분위기에 정원이 인상적이다.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한번 정도 가볼 만한 식당이며, 동 식당 주변에는 주말에 전통 공예품 베품 시장이 열린다.
- EL LAGO DE LOS CISNEROS
 - 주소: PRADO NORTE NO. 391, COL. LOMAS DE CHAPULTEPEC
 - 전화: (52-55) 5202-4244
 - 특색: 멕시코 서민요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요리인 따꼬(TACO) 전문 식당으로, 비교적 깔끔한 분위기이며, 다른 TACO 음식점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조식으로 다른 요리와 함께 베라크루스식으로 마시는 커피(CAFÉ CON LECHE)가 권장할 만하다.
- ANTIGUA HACIENDA DE TLALPAN
 - 주소: CALZADA DE TLALPAN 4619
 - 전화: (52-55) 5655-7496
- LA VALENTINA
 - 주소: Masaryk 393, Col. Polanco
 - 전화: (52-55) 5282-2297
- Villa Maria
 - 주소: Homero No. 704, Col. Polanco
 - 전화: (52-55)52.03.03.06
 - <http://www.villamaria.com.mx/restaurantes.html>
 - 특색: 멕시코 전통식당으로 저녁에 마리아치 공연이 있다.

□ 멕시코 식당: 몬테레이

- LA VALENTINA
 - 주소: Ave. Lazaro Cardenas 2660-B, Col. Valle Oriente, San Pedro, N.L.
 - 전화: (52-81) 8363-2612
 - 특징: 멕시코시티 LA VALENTINA의 자매식당으로 멕시코 전통요리 및 스테이크를 전문으로한다. 주말 밤에는 마리아치 공연이 있다. 몬테레이 NOVOTEL VALLE 호텔에서 가깝다.

- EL GRANERO GRILL
 - 주소: Calzada del Valle 333 Ote. San Pedro, N.L.
 - 전화: (52-81) 1257-3950 / 8378-4408
 - 특색: INTERNATIONAL MENU에 멕시코풍을 가미한 음식을 제공한다. 몬테레이 비즈니스맨들의 상담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 LUISIANA
 - 주소: Miguel Hidalgo 530 Ote. Centro Monterrey, N.L.
 - 전화: (52-81) 8344-4550
 - 특색: INTERNATIONAL MENU에 멕시코풍을 가미한 음식을 제공한다. 몬테레이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식당 중의 하나이다. SHERATON AMBASSADOR HOTEL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

□ 프랑스 식당

- AU PIED DE COCHON
 -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1층에 위치함)
 - 전화: (52-55) 5327-7756
 - 특징: 멕시코 최고의 프랑스 식당 가운데 하나이다. 가격은 비싼 편이다.
- MOUSTACHE
 - 주소: RIO SENA NO.88, COL. CUAUHTEMOC
 - 전화:(52-55) 5533-3390
 - 특징: 정통 프랑스 고급 식당으로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며 식사 중 상의를 벗을 수 없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당 가운데 하나이다.
- Champs Elysees
 - 주소: Paseo de la Reforma 316 (Amberes y Estocolmo), Juarez
 - 전화: (52-55) 5525-7259, 5514-0450
 - 특징: 멕시코 유명 프랑스 식당 중 하나이며 가격은 비싼 편이다.

□ 이탈리아 식당

- ALFREDO DI ROMA
 - 주소: CAMPOS ELISEOS NO. 218, COL. POLANCO
(* HOTEL PRESIDENTE INTERCONTINENTAL 2층에 위치함)
 - 전화:(52-55) 5327-7766
 - 특징: 비교적 고급스런 분위기이며, 음식맛이 깔끔한 편이며 한국사람들이 손님접대를 위해 많이 찾는 식당이다.
- L'Osteria de Becco
 - 주소: Goldsmith 103, Col. Polanco
 - 전화:(52-55) 5282-1059
 - 특징: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와인리스트의 100%가 이탈리아산임.

□ 스페인 식당

○ TORRE DE CASTILLA -

- 주소: Escopo No. 31, Esq. Mazaryk, Col. Polanco
- Tel: (52-55) 5282-3540
- 특징: 비교적 정통 스페인 음식 맛에 가까운 식당으로 본점은 Hotel Camino Real에 있다. 돼지 뒷다리 오븐구이 요리가 대표적이다.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 Denominacion de Origen

- 주소: Hegel 406, Col. Polanco
- Tel: (52-55) 5255-0912
- 특징: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Jamon de Bellota가 매우 훌륭하며 고기류 역시 훌륭하다는 평이다.

□ 기타

○ RESTAURANTE DE LAGO DEL CHAPULTEPEC

- 주소: LAGO MAYOR 2DA SECCION, BOSQUE DEL CHAPULTEPEC
- 전화: (52-55) 5515-9588
- 특색: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공원인 차뿔테펙(CHAPULTEPEC) 공원의 호수 옆에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의 전망이 좋아 분위기가 좋은 식당으로 유명하다.

○ RINCÓN ARGENTINO

- 주소: MASARIK NO.177, COL. POLANCO
- 전화: (52-55) 5254-8775
-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으로 독특한 실내 인테리어 및 고기 맛과 서비스가 훌륭하다.

○ CAMBALACHE

- 주소: COL. POLANCO
- 전화: (52-55) 5280-2080
- 특징: 아르헨티나 고기 요리 전문 식당으로 상기 RINCÓN ARGENTINO와 비슷한 느낌이다.

○ Fisher's

- 주소: Av. Dovali Jaime 75-L1, Santa Fe
- 전화: 5292-4884
- 특징: 해산물 전문점으로 점심식사 시간에만 영업.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가격은 인당 30~40달러 수준이다.

아. 관공서 관행

최근까지도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관공서의 부패문제라 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속칭 CORBATA(꼬르바따, 벡타이)라고 하여 벡타이만 매고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VICENTE FOX 정권을 거쳐 FELIPE CALDERON 정권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 운동으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 관련하여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한 신고 전화번호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관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일일이 정식 레터를 요구한다거나 간단한 사안 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소모적인 일 처리 관행이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멕시코 공무원들과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간단한 업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자. 공휴일

2011년도의 법정공휴일과 선택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선택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명	비고
1	1	신년 공휴일(Año Nuevo)	
2	7	제헌절 (Aniversario de la Constitución Mexicana)	원래 2월 5일이나 2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무
3	21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Natalicio de Benito Juarez)	원래 3월 21일이나 3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무
4	21~22	부활절 휴일(Semana Santa)	매년 3~4월 중 목, 금요일이나 자세한 날짜는 변동
5	1	노동절(Día del Trabajo)	
9	16	독립기념일 (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1810)	
11	21	혁명기념일 (Aniversario de la Revolución Mexicana)	원래 11월 20일이나 11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무
12	25	성탄절(Navidad)	

상기 법정공휴일은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74조에 의거한 의무 공휴일이다. 제헌절, 베니토후아레스 탄생일, 혁명기념일 등 3개 공휴일은 주중에 위치할 경우 해당 주의 월요일로 앞당겨 휴무한다. 부활절 주간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관행적으로 모든 관공서 및 기업이 휴무하고 있으므로 법정공휴일 목록에 포함시켰다.

선택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명
1	6	동박박사의 날(Día de Reyes)
5	5	대불전승기념일(Batalla de Puebla 1862)
5	10	어머니의 날(Día de las Madres)
10	12	인종의 날(Día de la Raza)
11	1	만성절(Todos los Santos)
11	2	망자의 날(Día de los Fieles Difuntos)
12	12	성모출현 기념일(Día de Nuestra Señora de Guadalupe)
12	24	성탄절 이브(Noche Buena)
12	31	연말(Visperas del Año Nuevo)

상기 선택공휴일은 많은 회사가 반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은행이나 관공서는 정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은행이나 관공서는 특정한 선택공휴일에 반일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연말(12.20일경~1.10일경)에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2~3주의 연말 휴가를 갖기 때문에 동 기간 대부분의 업무가 마비된다. 부활절 휴가시작 전날도 반일 근무가 관행이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 준비

간단한 약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한국에서 쓰던 약들을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감기약, 진통제, 지사제 등) 특히 장기 체류인 경우 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청심환, 유아용 기응환, 정로환, 물파스, 기타 한방 의약품)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

2) 여행 여건

멕시코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정수된 물을 마셔야 하며 호텔에서라도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한다. 멕시코의 기후는 건조한 편으로서 자다가 갈증이 나는 수가 있으므로 취침 전에 마실 물을 준비하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젖은 수건 등을 걸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건기) 호흡 곤란 등 고지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알맞은 장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인근 병원에 연락, 산소 공급을 받는 것이 좋다.

멕시코는 택시, 시내 버스,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택시 요금이 그다지 비싸지 않으므로 단기 여행자는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다만 일반 택시는 가끔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는 수가 있으므로 비싸더라도 콜 택시(스페인어로 "SITIO/시띠오" 또는 "RADIO TAXI/라디오택시")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한 편이므로 다음과 같은 출장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일반 시내택시는 가급적 타지 말 것
 -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택시 티켓을 구입, 공항택시 이용
 - 호텔에서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는 콜택시(Sitio/씨띠오)를 요청
 - 각 지역마다 콜택시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부를 수 있는 전화 번호는 5660-1122임.
- 호텔에서 상담 또는 관광에 나설 경우 귀중품은 프런트나 금고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금만 소지하고 약간의 비상금을 별도 소지하고 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야간 중 시내 배회 절대 금지
- 안전지대 호텔 투숙
 - 시내 골목길 근처 호텔 투숙 자제, 안전지대 대로변 호텔 투숙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을 내보이지 말 것

3) 팁

식후 팁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서 금액의 약10% 정도면 무난하다. 그러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저녁식사의 경우 금액의 15%까지 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부 식당에서는 팁이 포함되어 계산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호텔 방 청소 및 개별 심부름 등의 경우 1불 정도 지불하며, 포터에게는 큰 짐의 경우 개당 1~1.5달러(고급호텔의 경우)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VALET PARKING의 경우 주차요금 외에 팁으로 10페소(약 1달러)를 잔돈으로 지불 한다.

4) 위험 지역

멕시코 중심가인 소칼로(ZOCALO) 지역은 밤에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밤에는 소칼로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마리아치로 유명한 가리발디 광장도 치안 부재 지역이므로 동 지역 방문 시 반드시 그룹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외에 멕시코시티 내 재래시장인 TEPITO 시장은 밀수품, 도난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므로 단기 여행자들이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주요 긴급 연락처

- 기동 경찰: 066
- 모든 자문 및 실종신고: 5658-1111
- 긴급사태 구조: 5683-1154
- 소방서: 5768-3700
- 시간 안내: 030
- 전화번호 안내: 040
- 전화고장신고: 050

2) 주요 병원

- ABC 병원 / HOSPITAL ABC
 - ☎ (52-55) 5230-8000 Observatorio 지점
 - ☎ (52-55) 1103-1600 Santa Fe 지점
- 스페인 병원 / HOSPITAL ESPANOL
 - ☎ (52-55) 5255-9600 Polanco 지점
- ANGEL 병원 / HOSPITAL LOS ANGELES
 - ☎ (52-55)5449-5599 Pedregal 지점
 - ☎ (52-55)5246-5000 Lomas 지점

멕시코 최고의 의료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로 안심할 만하지만 그 대신 비용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1일 입원 시 1,000달러 이상 소요된다.

3) 주요 한국기관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LOPE DIAZ DE ARMENDARIZ 110, LOMAS DE CHAPULTEPEC, MEXICO, D.F., MEXICO

- TEL: (52-55) 5202-9866
- 주요인사: 대사 조환복, 상무관 장수철, 영사 이명훈
- KOTRA 중남미 총괄센터 겸 멕시코시티 KBC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EDIF. AXTEL, COL. CUAUHT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514-3173, FAX: (52-55) 5514-3170
 - KBC 직원 현황(총 5명)
 - 중미지역 총괄센터장: 이규남 처장
 - 인큐베이팅 센터: 김지엽 팀장
 - 멕시코시티 KBC 관원 - 한연희 부센터장, 김형일 차장, 안성희 과장
 - *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또는 CENTRO BURSATIL이라 함) 바로 옆 건물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Hamburgo 213 Torre Summa piso 12 Col. Cuauhtemoc, C.P.06500, Mexico D.F.
 - TEL: (52-55) 5511-8445, FAX: (52-55) 5511-8472
 - 소장: 정은모 소장
- 멕시코 한인회
 - TEL: (52-55) 5533-0456, FAX: (52-55) 5533-0457
 - 주소: Liverpool 17, Col. Juarez
 - 회장: 조성필
- 멕시코시티 한글학교
 - TEL: (52-155) 3720-4032
 - 주소: Liverpool 17, Col. Juarez
 - 교장 : 김혜경 선생님
- 과달라하라 한인회
 - 회장: 류호근
 - 주소: Av. Americas 889, Int. 108, Col. Ladron de Guevara, Guadalajara
 - TEL: (52-33) 3614-1027

4) 주요 항공사

- Aeromexico: (52-55) 5133 4000
- Delta Airline: (52-55) 5279 0909
- Continental: (52-55) 5283 5500
- American Air: (52-55) 5209 1400
- Air Canada: (52-55) 9138 0280
- United Airline: (52-55) 5627 0222

5) 주요 정부 기관

- 기관명: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공공 정책부/ 감사원 기능 편입)
 - 주소: Insurgentes Sur No.1735,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 TEL : (52-55)1454-3000

- <http://www.funcionpublica.gob.mx/index1.html>
- * 국제 입찰정보 WEB SITE: <http://compranet.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SHCP / 재무부)
 - 주소: Palacio Nacional, Patio Central, Piso 3, Oficina 2010, CP. 06066, Mexico, D.F.
 - TEL: (52-55)9158-1100
 - WEB SITE: <http://www.shcp.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Turismo(SECTUR / 관광부)
 - 주소: Presidente Mazarik 172, Col. Polanco, CP. 11587, Mexico, D.F.
 - TEL: (52-55)3003-1600
 - WEB SITE: <http://www.sectur.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SRE / 외무부)
 - 주소: Av. Ricardo Flores Magon No.1, TlaTEL: olco, CP.06905, Mexico, D.F.
 - TEL: (52-55)5782-4144 /255-0988
 - FAX: (52-55)5782-4109 /327-3003
 - WEB SITE: <http://www.sre.gob.mx>
- 기관명: Secretaria de Economia(SE / 경제부)
 - 주소: Alfonso Reyes No.30 Piso 17, Col. Condesa, CP.06140, Mexico, D.F.
 - TEL: (52-55)5729-9100
 - FAX: (52-55)5729-9313
 - WEB SITE: <http://www.economia.gob.mx>
- 기관명: Banco de Mexico (BANXICO/ 중앙은행)
 - 주소: 5 de Mayo No.2, Col. Centro, CP.06059, Mexico, D.F.
 - TEL: (52-55)5237-2000
 - FAX: (52-55)5237-2380 /237-2370.
 - WEB SITE: <http://banxico.org.mx>
- 기관명: ProMexico(멕시코무역투자진흥공사)
 - 주소: Camino a Santa Teresa 1679, Col. Jardines del Pedregal, CP.01900, Mexico, D.F.
 - TEL: (52-55)5449-9000
 - FAX: (52-55)2587-7855
 - WEB SITE: <http://www.promexico.gob.mx>

6) 주요 일반시중 은행(BANCO COMERCIAL)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Mexico, S.A.(Banamex)
 - 주소: Venustiano Carranza No.64 Mezzanie, Centro, CP. 06000, Mexico, D.F.
 - TEL: (52-55)5512-2665, 5512-2650
 - WEB SITE: <http://www.banamex.com>
 - 특징: 멕시코 내 최대 규모의 은행/2001년 CITI GROUP에서 인수하였음
- 기관명: BBVA – Bancomer, S.A.
 - 주소: Universidad No.1200, Col. Xoco, CP.03339, Mexico, D.F.

- TEL: (52-55)5621-3434
 - WEB SITE: <http://www.bancomer.com.mx>
 - 특징: 멕시코 내 제2위 규모 스페인계 은행
- 기관명: HSBC, S.A.
 - 주소: Reforma No.156, Col. Juarez, CP.06600, Mexico, D.F.
 - TEL: (52-55)5721-2222 /721-2719 / FAX : (52-55)5721-2060
 - WEB SITE: <http://www.hsbc.com.mx>
 - 특징: 영국계, 점포 수가 가장 많고, 일부 지점은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영업함.
- 기관명: Banco Inverlat, S.A.
 - 주소: Blvd. Manuel Avila Camacho No.1, Col. Polanco, Del. Miguel Hidalgo CP. 11560, Mexico, D.F.
 - TEL: (52-55)5229-2929
 - WEB SITE: <http://www.inverlat.com.mx>

7) 개발 은행(BANCA DE DESARROLLO)

- 기관명: Nacional Financiera, S.N.C.(NAFIN / 산업은행)
 - 주소: Insurgentes Sur No.1971, Col. Guadalupe Inn, CP.01020, Mexico, D.F.
 - TEL: (52-55)5325-6000 /325-7367 / FAX: (52-55)5325-7568
 - 사장: Mario Laborin Gomez
 - WEB SITE: <http://www.nafin.gob.mx>
 - 성격: 멕시코 국립 산업은행. 중소기업의 투자 금융 지원, 외국기업의 대 멕시코 합작 또는 직접투자 지원

8) 공공서비스 은행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Publicos, S.N.C.(BANOBRAS/ 공공서비스 은행)
 - 주소: Av. Javier Barros Sierra 515, Col. Lomas de Santa Fe, Mexico, D.F.
 - TEL: (52-55)5270-1200
 - WEB SITE: <http://www.banobras.gob.mx>

9) 수출입은행

- 기관명: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N.C.(BANCOMEXT / 수출입은행)
 - 주소: Periferico Sur No.4333, Col. Jardines en la Montana, C.P.14210, Mexico, D.F.
 - TEL: (52-55)5449-9000 / FAX: (52-55)5449-9070
 - WEB SITE: <http://www.bancomext.com.mx>
 - 사장: MR. HECTOR FEDERICO REYES R.
 - 성격: 한국 수출입 은행 기능 수행

10) 경제 단체

- CONSEJO MEXICANO DE COMERCIO EXTERIO(COMCE / 꿈세 / 대외무역협회)
 - 주소: LANCASTER NO 15, COL.JUAREZ, PISO 2. C.P.06600 MEXICO D.F.

- TEL: (52-55) 5231-7112 / 3 / FAX: (52-55) 5514-4978
- 사장: ARTURO ELIZAGA MARTINEZ
- 성격: CEMAI (세마이/대외경제협력위원회) 후신, 한-멕시코 경제협력 위원회 사무국 운영. 대한상공회의소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여 매년 양국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 CONFEDERACION PATRONAL DE LA REPUBLICA MEXICANA(COPARMEX/ 꼬빠르 멕스 / 멕시코 경영자 총회)
 - 주소: INSURGENTES SUR. 950 PISO 1, COL. DEL VALLE, C.P. 03100, MEXICO,D.F.
 - TEL: (52-55) 5682-5547 / FAX: (52-55) 5687-2821 / 5536-1698
 - 사장: GERARDO GUTIERREZ CANDIANI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 (CANACINTRA / 까나썬뜨라 / 공업회의소)
 - 주소: AV. SAN ANTONIO NO. 256 COL. AMPLIACION, NAPOLES, C.P.03849, MEXICO, D.F.
 - TEL: (52-55) 5563-3400 / 5482-3000 / FAX: (52-55) 5598-8044
 - 회장: SERGIO CERVANTEZ
 - 성격: 멕시코시티 공업회의소
- CAMARA NACIONAL DE COMERCIO DE LA CIUDAD DE MEXICO (CANACO / 까나꼬 / 상업회의소)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42 PISO 5,COL.CENTRO, C.P.06048 MEXICO D.F.
 - TEL: (52-55) 5592-2677 / FAX: (52-55) 5705-4194
 - 회장: ARTURO MENDICUTI NARRO
 - 성격: 멕시코시티 상업회의소
- CAMARA DE LA INDUSTRIA DEL CALZADO DEL ESTADO DE JALISCO(할리스코 신발공업 협회)
 - 주소: PROLONGACIONAV. ALCALDENO.1918, SECTORHIDALGOC.P. 44270, GUADALAJARA, JAL. MEXICO
 - TEL: (52-33) 3824-6040 / 6615 / 9596 / FAX: (52-33) 3853-4983
 - 회장: MR. JUAN ALONSO NINO COTA
 - 성격: 멕시코 신발업체의 80%이상 집중되어있는 JALISCO주 신발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CANACERO / 까나세로 / 철강공업 협회)
 - 주소: AMORES NO.338 COL. DEL VALLE DELEGS. BENITO JUAREZ C.P. 03100 , MEXICO D.F.
 - TEL: (52-55) 5543-4443 / FAX: (52-55) 5687-0517
 - 회장: ING. RAUL M. GUTIERREZ
 - 성격: 멕시코 철강협회
- 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 DEL PLASTICO (ANIPAC / 플라스틱 공업협회)
 - 주소: AV. PARQUE CHAPULTEPEC 66-301, COL. EL PARQUE, C.P. 53390, NAUCA LPAN EDO. DE MEXICO, MEXICO
 - TEL: (52-55) 5576-5547/ 358 1488 / FAX : (52-55) 5576 5548
 - 회장: ING. EDUARDO MARTINEZ HERNANDEZ
 - 성격: 멕시코 플라스틱 산업 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VESTIDO (CNIV / 의류공업협회)
 - 주소: TOLSA NO.54, COL. CENTRO DELEG.CUAUHEMOC C.P.06040,MEXICO D.F.
 - TEL: (52-55) 5588-7822,588-3934 / FAX: (52-55) 5578-6346
 - 회장: MARCOS CHEREM ENTEBI
 - 성격: 멕시코 의류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DE TECNOLOGIA DE INFORMACION / AMITI (IT협회)
 - 주소: PASEO DE LA REFORMA 295, PISO 6, COL.CUAUHEMOC, MEXICO D.F.
 - TEL: (52-55) 5207-0409 / FAX: (52-55) 5207-6016
 - 회장: MR. JAVIER ALLARD TOBOADA / GENERAL DIRECTOR (상근부회장)
 - IT협회 회장은 멕시코 HP 사장임. (MR. CARLOS GUZMAN)
 - 성격: 멕시코 최대의 IT협회로서 회원 사 160여 개 사로 구성되어 있음.
- CAMARA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ON (CNIC / 건설협회)
 - 주소: PERIFERICO SUR. NO.4839, COL. PARQUES DEL PEDREGAL C.P. 14010 ,MEXICO D.F.
 - TEL: (52-55) 5424-7400 / FAX: (52-55) 5424-7468
 - 회장: ING. JOSE EDUARDO CORREA ABREU
 - 성격: 멕시코 건설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A. C. (AMIA/ 아미아 /자동차
공업협회)
 - 주소: ENSENADA NO.90 COL. CONDESA, C.P.06100,MEXICO D.F.
 - TEL: (52-55) 5272-1144 / FAX: (52-55) 5272-7139
 - 회장: EDUARDO J. SOLIS SANCHEZ
 - 성격: 멕시코 자동차공업협회
- ASOCIACION NACIONAL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UBLICA
MEXICANA (ANIERM / 아니에름 / 수출입 협회)
 - 주소: MONTERREY NO.130 1ER PISO COL. ROMA, C.P.06700,MEXICO D.F.
 - TEL: (52-55) 5584-9668 / 5584-9522 / 5564-8618, FAX: (52-55) 5584-5317
 - 회장: LIC. FERNANDO TAMAZ MURGUIA
 - 성격: 멕시코 수출입 업자 협회
- ASOCIACION MEXICANA DE DISTRIBUIDORES DE MAQUINARIA, A.C. (AMDM/ 기계류
유통업체 협회)
 - 주소: FRANCISCO PETRARCA NO. 232, COL. CHAPULTEPEC MORALES (PONLANCO),
C.P. 11570, MEXICO D.F.
 - TEL: (52-55) 5531-6976 / FAX: (52-55) 5531-6858
 - 회장: LIC. PEDRO FRIAS (전임, 현재 공석)
 - HOMEPAGE : www.amdm.org.mx
 - 성격: 멕시코 기계류 수입상 협회
-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TEXTIL (CANAINTEX /까나인텍스 /섬유 공업협회)
 - 주소: PLINIO 220 COL. POLANCO C.P.11510, MEXCIO, D.F.
 - TEL: (52-55) 5280-8637 / FAX: (52-55) 5280-3973
 - 회장: LIC. NORA AMBIZ GARCIA
 - 성격: 멕시코 섬유산업협회

- CAMARA MINERA DE MEXICO (CAMIME / 까미메 / 광물협회)
 - 주소: SIERRA VERTIENTES 369, LOMAS DE CHAPULTEPEC, C.P.11000, MEXICOD.F.
 - TEL: (52-55) 5540-6788/9 / FAX: (52-55) 5540-6061
 - 회장: ING. MANUEL LUEVANOS SANCHEZ
 - 성격: 멕시코 광물협회
- CONFEDERACION DE CAMARAS NACIONALES DE COMERCIO(CONCANACO/공까나꼬/상업협회 총 연합회)
 - 주소: BALDERAS 144 3er. PISO COL. CENTRO. C.P. 06079, MEXICO, D.F.
 - TEL: (52-55) 5722-9300 / FAX: (52-55) 5722-9300 (EXT. 9401)
 - 회장: ING. JORGE DAVILA FLORES
 - 성격: 멕시코 상업협회 총연합회로 상인 및 수입업자 이익 대변
- 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CONCAMIN / 공까민 / 공업협회 총연합회)
 - 주소: MANUEL MARIA CONTRERAS 133-PB COL. CUAUHEMOC C.P. 06500 MEXICO, D.F.
 - TEL: (52-55) 5140-7800/-19 / FAX: (52-55) 5140-7831
 - 회장: ING. SALOMON PRESBURGER SLOVIK
 - 성격: 멕시코 산별 조합 총연합회로 주로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 이익 대변
-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OSY DEPARTAMENTALES (ANTAD / 안따 / 백화점. 슈퍼마켓 협회)
 - 주소: HORACIO 1855, 6o. PISO, COL. CHAP. MORALES, C.P.11570, MEXICO D.F.
 - TEL: (52-55) 5580 1772 / FAX: (52-55) 5395 2610/11
 - 회장: MR. VICENTE YAÑEZ
 - HOMEPAGE : www.antad.org.mx
 - 성격: 슈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
- 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AC. (CCE / 기업조정회의소)
 - 주소: LANCASTER 15 COL.JUAREZ C.P. 06600, MEXICO D.F.
 - TEL : (52-55) 5229-1100 / FAX : (52-55) 5229-1143
 - 회장: DON MARIO SANCHEZ RUIZ

타. 관광명소

1) 시내 관광

- Zocalo (소칼로): 헌법광장(Plaza de La Constitucion)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며, 주변에 대통령 궁, 대성당, 아스텍 유적지 Templo Mayor가 있음.
 - 대통령 궁에서 멕시코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에고 리베라의 대표적인 벽화를 감상할 수 있음.
 - 아스텍 문명의 Templo Mayor 유적 및 박물관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지를 살펴볼 수 있음.
- 인류학 박물관(Museo Nacional de Antropología)
 - 올멕, 아스텍, 마야 등 멕시코 문명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 국립 예술극장(Palacio de Bellas Artes)
 - 멕시코 전통 민속무용 및 음악 감상
 - 시내 중심가에 위치,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8시(2회) 공연
- 투우장(Plaza de Toros Mexico)
 - 객석 5만석의 세계 최대 투우장
 - 시내에 위치, 건기(11~2월경)중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경기
 - 멕시코시티 남쪽에 위치(Augusto Rodin 241, Col. Ciudad de los deportes, Delg. Benito Juarez, Mexico D.F./Tel. 5611-9306)
- 가리발디 광장(Plaza de Garibaldi)
 - 멕시코 특유의 악단, 마리아치의 연주 및 노래 감상 가능
 - 가리발디 광장은 치안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개인 방문은 삼가고 단체로 행동해야 함.
- Basilica de Guadalupe(La Villa)
 -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가톨릭 성당으로 원주민 성모인 과달루페 성모가 출현해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멕시코의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당이며, 과달루페 성모일 12월 12일에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모이는 곳

2) 멕시코시티 주변(당일 코스)

- Teotihuacan 해와 달의 피라미드(왕복 2시간 소요)
 - "떼오티와칸"은 신의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약 2세기에 건립(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관람)
- Taxco와 Las Grutas de Cacahuamilpa(왕복 4~5시간 소요)
 - 은광도시 따스꼬의 은제품이 유명
 - 그루따는 높이와 폭이 30미터가 넘는 천연 동굴로 각종 기암 괴석이 장관. 매 시간마다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며, 2시간 관광 코스

3) 기타 주요 관광지(2박 3일 코스)

- 칸쿤(Cancun)
 - 카리브 해안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
 - Xcarlet, Xel-Ha 등 각종 천연 물놀이공원은 물론 치첸이사, 톨룸 등 마야유적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곳
 -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로 편도 1시간 반 소요
- 산미겔 데 아엔데(San Miguel de Allende)와 과나후아토(Guanajuato) (왕복 7~8시간)
 - 식민지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도시들
 - 산 미겔 데 아엔데를 잠시 들렀다가 과나후아토로 향할 수도 있음. 산미겔 데 아엔데는 전통 토산품으로 유명
- 아카풀코(Acapulco) (자동차로 왕복 8시간)
 -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 휴양지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관광이 유명
 - 멕시코 시티와 근접해 주말 및 연휴에 인파로 가득

4) 멕시코 기념품

주로 구입하는 기념품은 은제품, 데킬라(Tequila), 토산품(마리아치 모자, 토속 그림 등), 모발 보호 천연 비누, 오닉스 등이다.

□ 데킬라(Tequila)

- 선인장으로 만든 때깎라 술의 경우, Costco, 까르푸 등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거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
- Don Julio, Herradura, 1800, Jose Cuervo Reserva de la Familia 등이 평이 좋은 제품임.

□ 전통 공예품 및 은제품 구입

- Mercado Artesanal Buenavista
 - 위치: Aldama Frente Ferrocarriles
 - 전화번호: 5526-3700
 - 판매품: 은, 가죽제품 등 각종 멕시코 전통 기념품을 판매하는 최대 규모의 토산품 시장
- Talleres de Ballesteros
 - 위치: Zona Rosa
 - 전화번호: 5511-8281
 - 판매품: 은제품

□ 모발보호 천연 비누

- Nutrisa
 - 위치: Zona Rosa
 - 판매품: 노뿔 선인장 액기스, 알약 등 각종 건강식품 및 모발 보호 천연 비누(Verde Natural), 샴푸(Crece) 등 판매
 - 참고로 동 비누 및 샴푸가 한국에서 인기리에 고가로 판매 중임. (멕시코 구입 가격은 비누 2달러, 샴푸 5달러 수준임)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2011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EXPO ANTAD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과달라하라		
개최기간	2011.03.09 ~ 2011.03.11	개최규모	40000
전시장	Expo Guadalajara		
참가국수	14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770 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330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17,500 명
주요참가국	미국,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17500 명	외국참관객수	7500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소비재, 식품, 음료, 운송, 물류		
주최기관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o y Departamentales A.C		
주최기관 담당자	Vicente Yanez Solloa		
주최기관 주소	HORACIO 1855 6TO. PISO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주최기관 TEL	52-55) 5580-9900 ext.222		
주최기관 팩스	52-55) 5395-2610		
주최기관 URL	www.antad.org.mx		
주최기관 e-메일	antadgral@antad.org.mx		
전시품목	대형 유통업체 참여 및 관련 상품 소개		

□ Expo Seguridad Mexico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		
개최기간	20110412 ~ 20110414	개최규모	7000
전시장	Centro Banamex		
참가국수	13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80 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110 업체	개최국참관객수	7000 명
주요참가국	미국, 이스라엘, 남아공, 독일, 캐나다, 프랑스, 한국, 대만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 참가업체 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7000명	외국참관객수	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보안, 안전설비		
주최기관	Giprex Mexico, S.A. de C.V.		
주최기관 담당자	Mrs. Eugenia Santamaria		
주최기관 주소	De los Tzenzontles No. 560, Col. San Jerno, Monterrey, N.L., México C.P.64630		
주최기관 TEL	52-81-8347-8560		
주최기관 팩스	52-81-8346-2597		
주최기관 URL	http://www.giprex.com		
주최기관 e-메일	eugenia.santamaria@giprex.com		
전시품목	CCTV, DVR, 출입문 통제 시스템, 보안 솔루션, 홈네트워크 시스템, 디지털 도어락 등 각종 보안 장비 및 시스템		

□ Alimentaria Mexico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		
개최기간	20110531 ~ 20110602	개최규모	12000
전시장	Centro Banamex		
참가국수	24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287 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123 업체	개최국 참관객수	10850 명
주요참가국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한국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2 개사
전체참관객수	11,000 명	외국참관객수	336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식품, 음료		
주최기관	EJKRAUSE		
주최기관 담당자	Ms.CARMEN REINA		
주최기관 주소	Insurgentes Sur 664 Piso4 Col. Del Valle 03100 Mexico, D.F		
주최기관 TEL	52-55-1087-1650(ext.1157)		
주최기관 팩스	52-55-5523-8276		
주최기관 URL	http://www.alimentaria-mexico.com		
주최기관 e-메일	reina@ejkrause.com		
전시품목	식품, 음료관련 제품 및 기술		

□ Expo Electrica International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		
개최기간	20110601 ~ 20110603	개최규모	12000
전시장	Centro Banamex		
참가국수	112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210 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40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25320명
주요참가국	독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25320명	외국참관객수	332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전기, 전자		
주최기관	Vanguardia en Exposiciones, S.A de C.V		
주최기관 담당자	Mr.Mario Bautista Soto		
주최기관 주소	CERRO DE LAS CAMPANAS 3 DESP. 204, COL. SAN ANDRES ATENCO, TLALNEPNATLA EDO DE MEX C.P. 54040		
주최기관 TEL	(52-55)9113-1040		
주최기관 팩스	(52-55)9113-1040		
주최기관 URL	http://www.expoelctrica.com.mx		
주최기관 e-메일	mbautista@vanexpo.com.mx		
전시품목	▷ Electrical Section- Electrical Equipment, Illumination, Material, Electrical Products Manufacturing, Automative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Cable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s, ▷ Electronic Section - Finished Products. Assembling, Sub Assembling. Parts/ Components.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nufacturing		

□ PAACE Automechanika Mexico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		
개최기간	2010.09.28 ~ 09.30	개최규모	4000
전시장	World Trade Center		
참가국수	9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78 개 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53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5,000 명
주요참가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5,500 명	외국참관객수	5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자동차, 부품
주최기관	E.J.Krause de Mexico
주최기관 담당자	Ms. Rosario Garzon Chavez
주최기관 주소	Insurgentes Sur 664, Piso 4, Col.del Valle, 03100, D.F.
주최기관 TEL	52-55-1087-1650(ext.1145)
주최기관 팩스	52-55-5523-8276
주최기관 URL	http://www.enviro-pro.com.mx
주최기관 e-메일	rgarzon@ejkrause.com
전시품목	석면감소장치, 공기제어, 환경법, 지표수, 소각. 매립, 폐기물 관리, 실내공기조절

□ EXPO CIHAC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		
개최기간	2011.10.18 ~ 2011.10.22	개최규모	30000
전시장	Centro Banamex		
참가국수	15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689 개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60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70,000 명
주요참가국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독일, 중국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71,000 명	외국참관객수	1,0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건축.건설.빌딩		
주최기관	Centro Impulsor de la Construccion y la Habitacion, A.C		
주최기관 담당자	Ms. Dora Luz Hernandez		
주최기관 주소	Av. Minerva 16 Col. Credito Constructor		
주최기관 TEL	52-55-5661-0844		
주최기관 팩스	52-55-5661-3445		
주최기관 URL	www.cihac.com.mx		
주최기관 e-메일	expo@cihac.com.mx		
전시품목	건축 자재		

□ Expo Beauty Show 2011

개최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		
개최기간	2011.10.30 ~ 2011.11.01	개최규모	30000
전시장	Centro Banamex		
참가국수	15 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689 개업체
외국 참가업체 수	60 업체	개최국참관객수	70,000 명
주요참가국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독일, 중국		
한국업체참가여부	NO	한국 참가업체 수	0 개사
전체참관객수	71,000 명	외국참관객수	1,000 명
전시회지명도	★★★★★★	부스배정난이도	★★★★★
전시분야	건축.건설.빌딩		
주최기관	Centro Impulsor de la Construccion y la Habitacion, A.C		
주최기관 담당자	Ms. Dora Luz Hernandez		
주최기관 주소	Av. Minerva 16 Col. Credito Constructor		
주최기관 TEL	52-55-5661-0844		
주최기관 팩스	52-55-5661-3445		
주최기관 URL	www.cihac.com.mx		
주최기관 e-메일	expo@cihac.com.mx		
전시품목	건축 자재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멕시코는 31개의 주와 특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별로 무역투자 진흥기관을 가지고 있다.

주별 TPO 웹사이트와 유관기관의 사이트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이름	담당자명	전화번호	웹사이트
Aguascalientes	Humberto Moro	52 44 9910 2611	www.aguascalientes.gob.mx/sedec
Baja California	José Lagarde Amaya	52 68 6558 1048	www.bajacalifornia.gob.mx/sede
Baja California Sur	Rebeca Ruiz Ocaña	52 62 4142 3577	www.bcs.gob.mx/
Chiapas	Diego Valente Fuentes	52 96 1617 9730	www.sde.chiapas.gob.mx/
Chihuahua	Alejandro Casas	52 61 4442 3300	www.desec.org.mx/
Coahuila	Gerardo Ramos Espinosa	52 84 4415 1717	www.sefomec-coahuila.gob.mx/
Colima	Carlos Pérez Torres	52 31 2316 2000	www.sefidec.com/
Durango	Esteban Rosas	52 61 2812 1121	www.promociondurango.gob.mx
Guanajuato	Ángel Rodríguez Martínez	52 47 7788 3400	sde.guanajuato.gob.mx/
Guerrero	Teodora Ramírez vega	52 74 7471 9894	www.guerrero.gob.mx/
Hidalgo	Alberto Bustamante	52 77 1717 8117	www.hidalgo.gob.mx
Jalisco	Alejandro Sahagún Cueva	52 33 3678 2055	www.jaltrade.gob.mx
México	Bernardo Monroy	52 72 2318 3470	www1.edomexico.gob.mx/sedeco
Michoacán	Isidoro Ruiz	52 44 3113 4500	www.sedeco.michoacan.gob.mx/
Morelos	Joanna Ortiz Millán	52 77 7313 2518	www.morelos.gob.mx/10economico/
Nuevo León	Andrés Franco Labastida	52 81 2020-6560	www.nl.gob.mx/sedec
Puebla	Maricela Rivera	52 22 2246 5721	www.invierteenpuebladezaragoza.gob.mx
Querétaro	Claudia de la Fuente	52 44 2111 6800	www.queretaro.gob.mx/sedesu
Quintana Roo	Javier Antonio Pérez	52 98 3832 4482	sede.qroo.gob.mx/
San Luis Potosí	Martha Meade Espinoza	52 44 4834 3600	www.sdeslp.gob.mx/
Sinaloa	Elsa Mariel Sánchez	52 66 7846 4500	www.investsinaloa.org.mx
Sonora	Joaquín González	52 66 2289 0249	www.sonora.org.mx/es
Tabasco	Herminio Silván Lanestosa	52 93 4310 9750	www.sedeco.tabasco.gob.mx
Tamaulipas	Ezequiel Ordoñez	52 83 4318 9546	www.inviertaentamaulipas.gob.mx
Tlaxcala	Gastón Santacruz y Olmos	52 24 6462 1130	www.tlaxcala.gob.mx
Veracruz	Arturo Castagne Couturier	52 22 8841 8533	www.sedecover-gob.mx
Yucatán	Diana Castañeda Medina	52 99 9941 0004	www.sefoe.yucatan.gob.mx
Zacatecas	Noemi de la Torre	52 49 2922 4170	www.zacatecas.gob.mx